

## 제31장 레지오 확장과 단원 모집

1. 레지오를 확장하는 일은 상급 평의회에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며 꾸리아 간부들만의 의무도 아니다. 그것은 꾸리아 평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일반 행동단원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따라서 모든 단원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하며, 때때로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 권유하거나 또는 서신으로 접촉하는 것은 이 의무를 실천에 옮기는 하나의 방법임이 분명하지만, 그 밖에도 각자에게 적합한 독특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레지오 확장을 위한 추진 본부의 역할을 담당할 레지오 기관의 수가 많아진다면, 아마도 레지오는 곧 세상 모든 곳에 퍼지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수확할 밭에는 서로 일하겠다고 몰려드는 일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루카 10,2 참조). 그러므로 레지오 확장과 단원 모집이라는 중요한 이 두 과제를 단원들에게 수시로 주지시켜, 단원 각자가 이 의무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게 해야 한다.

2.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브레시디움에서는 무한한 선(善)이 흘러나온다. 따라서 그러한 브레시디움을 하나 더 설립한다는 것은 이러한 선이 배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간부들만이 아니라 단원 모두가 이처럼 바람직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쏟아야 한다.

브레시디움 주회합을 규정된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 단원들의 활동 보고나 다른 회합 순서를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이제는 브레시디움을 나누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 경우의 분단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이때 분단을 미루면, 일종의 수종(水腫)이 발생하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단원들이 위축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브레시디움은 레지오의 생명력을 다른 조직에 전달하는 힘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브레시디움 자체의 존립을 유지하는 일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특정 지역에 또 하나의 브레시디움을 세우자는 제안이 있을 때, 현재의 브레시디움들만으로도 모든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을 종종 듣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레지오의 으뜸가는 목적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화시키고, 개인 성화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를 성화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단지 이 이유만으로도 단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 또한 주요한 목표가 된다는 논리적인 결론이 나온다. 작은 지역에서는 새로 가입한 단원들에게 활동거리를 마련해 주는 일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새 단원을 계속 받아들이

고 또한 계속 찾도록 해야 한다. 레지오는 결코 한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레지오 대열에 들어와 있는 단원들보다 더 우수한 일꾼들이 배제될 수도 있다. 눈에 드러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더 깊숙이 들여다보라. 기계가 작동하게 하려면 일거리가 필요하다. 레지오라는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활동거리를 찾아내야 하며, 활동거리는 찾으려만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레지오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간부와 공정한 비율의 신입 단원을 기존 뿌레시디움으로부터 전속시켜 신생 뿌레시디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뿌레시디움은 단원 중 가장 훌륭한 인재를 새로 설립되는 뿌레시디움에 보내는 것을 큰 영예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가지치기 형태이다. 새 뿌레시디움에 단원을 내주어 단원수가 급감한 기존 뿌레시디움은 그 빈자리가 곧 채워지고 사도직은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레지오의 어떤 조직도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고장이나 지역에서는, 레지오 경험이 있는 단원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신생 뿌레시디움을 설립한 단원들은 최대한 부지런히 교본과 교본에 관한 해설서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

새로운 고장에 뿌레시디움을 처음 설립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회합은 더욱 흥미로워지고 뿌레시디움은 더 건강해질 것이며, 더욱이 단원들의 다양한 능력과 기호도 충족될 수 있다.

3. 단원 모집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입단의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상당한 기간 레지오 단원 생활을 한 사람들의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이 점을 새 단원 모집에서 고려해야 한다. 기존 단원들이 레지오에서 오랜 시간 보낸 후에야 도달한 그러한 수준을 새 단원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일 것이다.

단원 모집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뿌레시디움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검토해보면, 이러한 변명은 거의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거의 언제나 문제는 그 뿌레시디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가) 단원을 모집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원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단원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창립 단원이나 현 단원 대다수가 떨어져나갈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단원 모집에 적용하는 잘못을 뿌레시디움이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책임자들은 부적격자를 가입시키는 모험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의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단원이 되는 혜택을 모든 신자들에게 거부해서도 안 된다. 너무 엄격한 것과 너무 느슨한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의 경우가 더욱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일꾼이 부족하게 되고, 평신도 사도직은 일꾼 부족으로 말미암아 끝장나기 때문이다. 너무 느슨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며, 실수는 바로 잡을 수 있다.

쁘레시디움은 중용의 길을 걸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모험적인 요소를 전혀 없앨 수는 없다. 단원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활동해 보는 것이다. 부적격한 사람은 입단하더라도 활동이 부담스러워 곧 탈락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이 모험에 대한 안전장치이다.

군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혹시 무능한 사람이 끼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있는가? 군대의 조직은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통솔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지오도 일종의 군대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단원 확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물론 레지오도 단원의 자격 요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보통 신자들 대다수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의 영적이고 치밀한 조직은 양성과 규율이 필요한 신자들을 양성하고 통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초인(超人)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평신도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최고의 거룩함과 분별력을 지닌 사람들만 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컨대, 슬픈 사실은 레지오 단원이 되기에 적합한 신자가 이처럼 적다는 것이 아니라, 레지오 단원으로서 져야할 짐을 기쁜 마음으로 지겠다는 신자가 그토록 적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자격이 충분한 신자들이 입단하지 않는 이유는 쁘레시디움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가라앉아 있거나, 또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레지오는 단원 자격을 젊은이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을 찾아 그들의 마음을 사도록 해야 한다. 레지오가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목적 달성에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마음에 호소하지 못하는 어떠한 운동도 그 영향력을 널리 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젊은이들은 미래의 열쇠가 아닌가.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절당한 취향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맞지 않거나 그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밝고 너그럽고 정열적인 젊은이들이 레지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라) 흔히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다.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 그러나 신앙생활 때문에 바쁜 것은 아니다. 정작 신앙과 관련된 활동은 맨 마지막 순위에 들어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그릇된 가치 척도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실상 그들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사도직 활동은 우리 생활의 최우선 순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몇몇 일들은 사도직 활동에 자리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

“모든 신심 단체에 적용되는 첫 번째 법칙은 영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온 누리에 걸쳐 사도직 활동을 확장시켜 가급적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창세 1,28)라는 이 생명의 법칙은 우리 마리아회에 가입한 각 회원에게 하나의 의무로 부과된다. 뻘르 샤미나드(Père Chaminade)는 이 법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는 복되신 동정녀를 위하여 영혼들을 손에 넣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모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많은 이가 우리와 더불어 힘찬 행진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마리아회 편찬 : 성모학 소론)

## 제32장 예상되는 반대 의견들

### 1. 여기에는 레지오가 필요 없다

열성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레지오 마리아를 시작하기를 바랄 때 ‘우리 지역에는 레지오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레지오 마리아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사업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가톨릭의 열성과 정신을 육성하는 단체이며, 레지오의 가톨릭적 열성과 정신은 차후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수행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레지오 마리아가 필요 없다는 말은 흔히 그 지역에 가톨릭의 열성이 필요 없다는 진술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뵈뤼(Père Raoul Plus) 신부가 간결하게 정의한 대로, “그리스도 신자란 자신의 이웃을 돌보도록 하느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들이다.”

레지오 마리아가 수행하는 이러한 열성적인 사도직은 어느 곳에서나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할 능력을 지닌 신자들에게 마땅히 사도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오늘날 종교가 타성에 젖거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도직 활동을 통하여 일반 대중을 일깨워야 한다. 셋째, 좌절한 삶을 살고 있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참을성 있게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도직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회 모든 장상들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능력을 충만히 발달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신자가 지녀야 할 인품에 반드시 필요한 저 독특한 사도직 정신도 발달시켜주는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닌가? 따라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반드시 불러야 한다. 그러나 사도직의 부름에 응답할 방법도 제공해주지도 않고 막연히 사도직을 수행하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이는 부르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 스스로 사도직 활동의 방법을 찾아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직 단체의 형태를 띤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단원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흔히 단원 자격 요건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을 제기한다. 따라서 무릇 모든 사무실, 가게, 작업 현장에는 잠재적 레지오 단원들이 있다고 말해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잠재적인 레지오 단원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무직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특정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계층의 점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레지오는 이처럼 감추어진 힘과 발달되지 않은 사랑의 능력을 개발하여 교회의 사업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알프레드 오래힐리 몬시뇰(Mgr. Alfred O'Rahilly)은 레지오 활동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나는 위대한 발견을 하나 하였다. 아니, 위대한 발견 하나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남성과 여성들 안에 영웅적인 자질이 잠재되어 있고, 알려지지 않은 힘의 원천이 열려 있어 그곳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원의 자격 기준은 역대 교황님들이 어떠한 계층에 속한 신자라도 양성과 훈련을 통해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천명하였을 때 생각하였던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31장 [레지오 확장과 단원 모집] 3절 (나)항과 제40장 7절 ‘선교사의 도구로서의 레지오’를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란다. 특히 ‘선교사의 도구로서의 레지오’에서는 레지오 단원들이 신생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에 널리 퍼져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레지오 단원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 고장의 영적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낮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런 곳이야말로 활동이 필요치 않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레지오의 지단 하나가 좋은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지극히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방증해준다. 누룩은 우리 주님께서 영적 수준을 높이는 데 쓰시는 처방약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두기 바란다(마태 13,33 참조). 또한 쁘레시디움은 네다섯이나 대여섯 명 정도의 적은 수의 단원으로도 설립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몇 안 되는 단원들이 활동에 전념하고 그 필요성을 느낄 때, 단원이 되기에 적합한 이들을 즉시 발견하여 레지오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 3. 레지오 단원의 방문을 꺼려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단원들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많은 가능성을 지닌 레지오의 이상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방문 이외의 다른 활동거리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어느 고장에서도 레지오의 방문 활동이 지속적이거나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단원들이 레지오 사도직의 참된 정신에서 방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그들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나 그보다 더 악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따라서 단원들의 방문을 가장 꺼려하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단원들이 더욱더 힘을 쏟아 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첫 방문 때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서 방문 활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얼어붙은 장벽에 용감하게 맞섰던 단원들은 거의 언제나 그 장벽을 녹일 수 있었고, 레지오를 배척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제거할 수 있었다.

각 가정이야말로 영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가정을 정복해야 사회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가정을 정복하려면 그 가정으로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 4. 젊은이들은 낮 동안 열심히 일하므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 논리대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종교적인 황무지로 남게 될 것이다. 교회 사업은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수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은 진정한 휴식보다는 다소 무절제한 오락에 자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사실이지 않은가? 낮에는 고되게 일하고 저녁에는 쾌락을 즐기는 생활이 교차 반복되다 보면 실천적 유물론에 쉽게 빠져든다. 젊은이들이 이 실천적 유물론에 빠져 몇 해를 보내다보면, 그들 마음에는 그 어떤 이상(理想)도 남지 않게 되고, 조속히 흘러가버린 젊은 시절 동안 소진된 그들은 소중히 여기라고 배웠던 것마저도 젊음과 함께 빼앗기게 된다. 어쩌면 이보다 훨씬 불행한 결말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St. John Chrysostom)은 ‘이웃을 위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그들의 자유 시간의 첫 열매를 레지오 단원으로서 주님께 바치도록 권유하는 일은 한없이 더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그 첫 열매는 그들의 일생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마음만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평온하고 싱싱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두 배로 벌어서 두 배로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기분 전환을 위한 시간은 훨씬 더 풍요롭게 남아 있다.



## 5. 레지오는 같은 이념과 사업 계획을 가진 여러 단체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상이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요,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누구라도 몇 분 안에 매력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레지오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싸움과 중요한 활동을 제안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레지오가 자신들의 사도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체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호한 이상과 함께 회원들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좋은 일을 하라고 막연하게 호소만 한다면, 언젠가 가장 모호한 활동만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레지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싸움을 분명한 영성과 명확한 기도 계획, 한정된 주간 임무와 정해진 주간 보고로 간단하게 축소하였고, 따라서 그 싸움의 성과 역시 명확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레지오가 사용하는 이와 같은 방법론적 체계는 성모님과의 일치라는 역동적인 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 6. 레지오가 펴는 사업들은 이미 다른 단체들이 하고 있으므로 레지오와 그 단체들이 서로 충돌할지도 모른다

주민의 태반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거나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서 보잘 것 없는 영적 진보가 이루어진 고장에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는 마치 그 고장에서는 헤로데(Herod)가 사람들의 마음 속 왕좌를 차지해야 하고,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머니는 초라한 마구간으로 쫓겨나 그곳에 영원토록 머무르셔야 한다는 말과 같으니, 그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말은 레지오가 들어오는 거울 거부하는 말로서, 흔히 활동은 하지 않고 이름만 내거는 단체들,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적도 패배시킨 적이 없는 군대들을 두둔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사용된다.

게다가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활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일꾼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까지도 필요한 지역에서 수십 명의 일꾼만이 사도직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 활동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불행하게도 그러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리고 또한 회원 수가 적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흔히 그에 상응하는 정신과 수단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지오에게 활동거리를 맡겨서 시험해 보라. 제한된 활동 영역이라도 좋다. 그러면 그 성과를 보고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뿐인 조그만 규모의 조직에 속한 단원들



은 빵 다섯 개와 같이 불어나서 필요한 것을 모두 채우고도 차고 넘칠 것이다(마태 14,16-21 참조).

레지오가 특별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존 사업 중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못한 사업들을 새롭게 설정할 뿐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이전에 수공으로 하던 일에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와도 같을 것이다.

## 7. 단체들이 이미 너무 많다. 그러므로 레지오를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단체를 활성화하여 레지오가 계획하는 활동을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는 일종의 보수적인 논조일 수 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상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이 단지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지는 않으며, 때로는 새로운 것이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체들이 너무 많다고 할 것이 아니라 레지오에게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레지오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런 단체를 문 앞에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가!

또한 위의 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활동이 현재 그 고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 그 활동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다른 지역에서 이미 증명한 새로운 단체를 거부하는 것은 지혜로운 판단도 아니요 통상적인 관례에도 어긋난다. 만일 어떤 지역에 비행기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이 곳은 이미 자동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필요 없다. 그 대신,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괴상한 논리인가!

## 8. 여기는 작은 고장이므로 레지오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규모는 작지만 그리 부럽지만은 않은 평판을 가진 마을들이 흔히 이와 같은 반대를 하곤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통상적으로 선한 풍습은 있지만 침체된 마을이 있을 수 있다. 그 마을에는 도덕적 자질이 향상될 기회도 없고 인간적으로 흥미를 끝만한 것도 없기에, 결국 젊은이들은 사람들로 북적되는 도시로 떠가 정신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며 살아간다.

이 문제는 그 마을에 종교적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며,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무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비참한 상황이 빚어낸 결과이다. 일단 종교적 이상이 사라져버리면, 신앙은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다. 물론 마을만 신앙의 불모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해진다. 이와 같은 불모지에 다시 꽃이 피게 하려면 반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즉 소규모의 사도직 모임을 신설하여 그 사도직에 고유한 정신을 주민들에게 널리 퍼뜨리고 새로운 행동 목표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마을에 적합한 사업이 수행되고 생활이 즐거워질 것이며 젊은이들의 이탈은 멈추게 될 것이다.

9. 레지오 활동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영적인 행위이므로 본성상 사제의 직분에 속한다. 다만 성직자가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평신도에게 배당해야 한다. 성직자인 나는 지금도 일 년에 몇 차례씩 신자들을 방문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제10장 [레지오 사도직]에서 전반적으로 답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제가 탐탁지 않게 여기는 활동은 어떤 것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미리 지적하고자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도시라 할지라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죄와 세속에 병들어 있고 현대의 문질 문명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일 년에 한두 번 혹은 네 번 방문하는 것 만으로도 그 도시나 그 밖의 도시 공동체가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모든 신자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많은 신자들이 매일미사에 참례할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신자 전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미사에 참례할 것이다. 그런데도 주당 네다섯 시간을 것처럼 자주 고해소에서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 왜 이처럼 극심한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일까?

또한 사제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 하나하나에 대한 사목적 의무를 다하려면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 필요하고, 적어도 얼마나 자주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할까?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St. Charles Borromeo)이 자주 사용한 표현을 빌려본다면, 영혼 하나는 주교에게 교구와 견줄 정도로 중요한 존재이다! 간단히 신자 한 명 당 매년 반 시간만 할애한다 하여도 사제에게는 총 몇 시간을 의미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반시간만으로도 신자를 충분히 돌보았다 할 수 있을까? 막달레나 소피 바

라 성녀(St. Madeleine Sophie Barat)는 까다로운 성격의 영혼 하나를 위해 무수히 그를 직접 만났고, 그에 더해 200여 통의 편지까지 썼다. 얼마나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십년 이상 영혼들을 동반해오고 있고 또 여전히 동반하고 있는가! 만일 사제가 격무에 지쳐 신자 한 명에게 반시간조차 할애할 수 없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레지오가 열정적인 인력을 사제에게 공급해 준다면, 사제는 한 명이지만 그곳에는 사제를 대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제의 말 한마디에 순명하는 자들이고, 믿을 수 있는 분별력을 지닌 자들이며, 사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개인과 가정에서 사제처럼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영혼을 매혹하여 저 위에 속한 것들로 인도할 수 있는 은사를 지닌 자들이기에, 사제로 하여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레지오가 제공하는 이러한 도움을 마다하는 사제가 있다면 사제 자신의 직무나 사제 자신에게 온당한 일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레지오 마리애는 사제에게 두 가지 축복을 제공해 준다. 이 두 축복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축복은, 레지오가 하느님의 영께서 인증해주신 표지를 지닌 승리의 도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하느님의 섭리가 마련해주신 그 도구를 내가 소홀히 할 자격이 있는가?’ 두 번째 축복은, 레지오는 우리의 내적 생활을 온통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생명수의 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또 다시 자연스럽게 자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맑고 깊은 생명의 샘을 주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닌가?’”(뛰이노 신부 Fr. Canon Guynot)

## 10. 단원들이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마치 어설픈 낫질로 벼 이삭 몇 개를 버리거나 앓을까 두려워서 추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 추수해야 할 것은 영혼들이다. 가난하고 연약하며 눈멀고 다리저는 영혼들이다. 추수는 지금 당장 해야 하나 추수할 영혼이 너무나 많아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 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한길과 골목’, ‘큰길과 울타리’로 나가 영혼들을 찾아 데리고 와, 당신 집이 그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루카 14,21-23). 것처럼 방대한 추수는 평신도 대대가 정렬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수행될 수 없다. 무분별한 행동이 뒤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행동은 열정이 있고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일어나는 일이다. 무분별한 행위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고자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창피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엄격한 규율 밑에서 일하게 하는 방법이다. 병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운 마음으로 첫 번째 방법에서 몸을 돌려, 고통 받는 영혼들을 수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투신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레지오의 역사를 살펴보면, 심각하게 지각없는 행동도 없었고 그 횡수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레지오 마리아에는 엄격한 규율이 서 있기 때문이다.

## 11. 시작하는 데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레지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에 선행을 행할 때 레지오 홀로 건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단호함만 있다면 처음에는 그토록 만만치 않게 보이던 어려움이 일종의 숲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숲은 멀리서 보면 뻥뻥해서 통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가까이 접근해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말도 마음에 새겨 두자. “표적은 겨누고만 있으면 결코 맞출 수 없다. 모험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늘 안전하다는 것은 항상 약하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수많은 결점들에 대한 보상이다.”(뉴만 추기경 Cardinal Newman)

은총의 사업을 논할 때, 어느 누구도 세속적으로 너무 신중하여 은총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손해 가능성을 예로 들 때에는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레지오는 기도를 바탕으로 세워지고, 영혼들을 위한 활동을 하며, 전적으로 성모님께 속해 있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레지오에 대해 고찰할 때에는, 인간의 법칙에 대해 말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마리아는 ‘Virgo Singularis’ 즉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은 ‘유일무이한 동정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에 대해 고찰할 때에는, 인간의 법칙에 대해 말하지 말고 하느님의 법칙에 대해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보쉬에 Bossuet)

##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기본 의무

### 1. 브레시디움 주회합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해야 한다

(제11장 레지오의 기본 요소 참조)

(가) 이 의무는 몸이 편안할 때보다는 고단할 때, 날씨가 좋을 때보다는 나쁠 때, 그리고 흔히 어딘가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시련이 어디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참된 공로를 쌓을 수 있겠는가?

(나) 활동 보고를 하기 위해서 주회합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주회합에 참석하는 것이야말로 으뜸가는 의무이다. 주회합을 뿌리라고 한다면 활동은 꽃이다. 뿌리 없이 꽃이 필 수 없듯이 주회합 없는 활동은 있을 수 없다.

(다) 먼 길을 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는 단원은 그가 초자연적으로 심오한 안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브레시디움의 주 회합에 참석하기 위해 왕복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더욱 가치 있는 다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다. 주회합에 오고 가는 데 사용한 시간은 단원이 수행한 전체 활동의 일부분이며, 그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부분이 된다.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먼 길을 다녀오신 것을 시간 낭비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여러 덕성 외에도 굽힐 줄 모르는 용기의 덕도 지니고 있었다. 성녀는 ‘불평하기 보다는 힘닿는 데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었다. 현기증이나 심한 두통에 시달려 얼마나 자주 아침 기도에 빠졌던가? 그러나 그녀는 ‘저는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불굴의 용기의 덕분에 성녀는 영웅적인 일을 해냈던 것이다.”(아기 예수 의 성녀 데레사 St. Thérèse of Lisieux)

## 2. 주간 활동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가) 주간 활동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레지오 단원은 한 주간에 두 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 물론 두 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사실 상당한 비율의 레지오 단원들은 이 최소한도의 활동 시간을 뛰어넘어 일주일에 여러 날을 활동에 바치고 있다. 그리고 매일 활동하는 단원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주간 활동은 개별 단원의 기분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닌,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의무로 배당받은 명확한 활동이어야 한다. 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 활동은 기도가 그 형태를 달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활동에도 기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활동은 기도라는 초자연적인 뼈대가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배당받은 활동 의무는 쉬울 수도 있고 흥미로울 수도 있다. 너무 쉬우면 그 수행이 점차 지루해질 것이다. 흥미를 끝만하다면, 십중팔구 수행하기가 까다로울 것이며, 퇴짜를 받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일 것이다. 어느 쪽에 해당되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신속히 포기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활동은 초자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안개와 같이 활동이 지닌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감정들을 뚫고 나가서 그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맡은 활동이 십자가처럼 지고 가기 싫으면 싫을수록, 활동할 가치는 더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다) 레지오 단원은 군인이다. 따라서 세속의 군인들이 임무를 힘차게 수행하듯이 그 에 못지않게 레지오 단원도 맡은 임무를 활기차게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숭고하고 자기희생적이며 예의바르고 강인하다. 성모님의 참된 군인인 레지오 단원에게서는 군인이 지닌 이 모든 특성이 최고 수준에서 드러나야 하며, 당연히 그가 수행하는 활동에서도 투사되어야 한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다양할 것이다.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루한 보조 근무나 내무반 바닥 청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군인은 어떤 경우에서든 임무의 내용이 아니라 임무 그 자체만 바라본다. 어떤 상황에서든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성공이나 실패가 군인의 임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레지오 단원도 임무에 대하여 그에 못지않게 견실한 생각을 지녀야 한다. 그 견실한 생각은 활동 항목이 시시한 것이든 까다로운 것이든 모든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드러나야 한다.

(라) 레지오 활동은 성모님과 가장 가깝게 일치해서 수행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활동 대상자들에게 성모님과 성모님의 참된 사랑을 알려 주어, 그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성모님께 봉사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본질적인 활동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 성모님을 알고 성모님께 신심을 바치는 일이야말로 영혼의 건강과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성모님은 하느님 신비의 협력자시며, 그 신비의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숭고한 신앙의 기틀이시므로, 온 세대의 믿음이 성모님께 그 기초를 두고 있다.”(성 비오 10세, 회칙 Ad diem illum 5항) 성 비오 10세 교황은 다음과 같이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말도 하였다. 단원들은 이 말을 숙고해보라고 초대받고 있다 “한 영혼 안에 존귀하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깊이 뿌리를 내리자마자, 바로 그때야 비로소 그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 했던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덕과 거룩함의 열매가 그 영혼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성 비오 10세)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골고타에서 하셨던 것처럼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날카롭게 날을 세워 놓은 무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주님께서 받으신 상처를 나누어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설사 승리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끈기 있게 수고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나머지 일은 주님께 맡겨라. 성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정하신 시간과 때를 알아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간 고귀한 영혼들이 지녔던 불굴의 용기로 무장하여, 기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자.”(가반 더피 신부 Fr. Tomas Gavan Duffy : 동터오는 날의 대가)

### 3. 회합에서 구두로 활동 보고를 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이며, 단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주요 실천 사항 중의 하나이다. 보고는 이처럼 활동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켜 주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회합에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다. 레지오 단원의 능력을 알아보려면, 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쏟는 정성과 보고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된다. 활동 보고는 그 하나하나가 주회합이라는 건물의 벽돌이다. 따라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회합만이 레지오의 온전한 주회합이다. 보고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레지오 조직의 생명의 원천인 주회합이 큰 타격을 입는다. 보고는 단원들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보고를 통해서 다른 단원들의 활동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보고에 대해 경험 있는 단원들의 의견을 듣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보고를 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고의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8장 [쁘레시디움 회합의 순서] 9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한 바오로 성인의 권고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  
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모  
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셨기 때문이다.’(1티모 2,6 참조)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  
게 주어진 의무가 보편적인 성격의 의무이며 그 활동 대상도 보편적이라는 점은 요  
한 크리소스토모 성인(St. John Chrysostom)의 다음과 같은 엄숙한 표현에서도 드  
러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할 것이다.’”(그라트리 Gratry : 원천)

#### 4.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회합에서 들었거나 활동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실은 그가 레지오 단원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누설하는 것은 레지오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할 배신행위가 된다. 물론 쁘레시디움 회합에서는 반드시 활동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제19장 [회합과 단원] 20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대가 맡은 것을 잘 지키십시오.”(1티모 6,20)

#### 5. 모든 단원은 활동 수첩을 가져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간결하게 기록해 두는 수첩을 지녀야 한다.

(가)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려면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나) 지나간 활동이나 아직 끝나치지 못한 활동을 잊지 않기 위해 수첩에 기록해 둔다.

(다) 기록 없이는 적절한 보고를 하기 어렵다.

(라) 일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해준다.

(마) 어떤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필요한 때에 그 기록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기록은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만이 아는 부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기록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1코린 14,40)

## 6. 모든 단원은 까떼나(레지오의 고리기도)를 매일 바쳐야 한다

까떼나(Catena)는 성모님이 몸소 바치신 기도인 마니피캇(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도는 교회의 시간전례(성무일도) 중에 저녁 찬가로써, “모든 찬가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감사에 넘치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숭고한 노래이다.”(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St. Louis-Marie de Montfort)

그 이름이 드러내듯이, 까떼나는 레지오와 모든 단원들(행동단원 및 협조단원)의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단원들을 서로서로 결합시켜줄 뿐 아니라 복되신 성모님과도 결합시켜 주는 띠다. 까떼나라는 말에는 매일 기도를 바쳐야 할 의무 또한 암시되어 있다. 사슬은 수많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고리는 사슬이 온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단원에게 이 사슬이라는 개념은 레지오가 매일 바치는 기도 사슬에서 떨어져나간 고리가 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가 될 것이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행동단원을 그만둔 단원이나,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레지오 대열을 떠난 단원들까지도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레지오와 맺었던 관계를 적어도 끊지 않고 일생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그때마다 성모님의 이름으로 대화하며 부분적으로는 내 자신이 성모님이 되어 대화한다. 성모님은 나를 통하여 그 옛날 나자렛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하셨던 감미롭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정했던 나날들을 되살리고 싶어 하신다. 내 도움으로 성모님은 다시 한 번 아드님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실 것이며, 내 덕분에 그 옛날 나자렛에서처럼 아드님을 품에 끌어안으실 것이다.”(야아헬 De Jaegher : 신뢰의 덕)

## 7. 단원들 사이의 유대 관계

레지오 단원들은 일반적으로 동료 단원들을 사랑할 의무를 지킬 준비가 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의무에는 동료 단원들의 결점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는다. 결점처럼 보이는 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뿌레시디움은 은총을 빼앗기게 되고, 다른 단원들로 하여금 레지오를 떠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레지오 단원으로 생활하다보면 단장이나 어떤 동료 단원이 자기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든 상상으로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반대 받거나 질책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부차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레지오 단원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과 자신이 레지오 단원 생활을 하는 이유와는 전적으로 별개의 것임을 깨달을 만큼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제력이야말로 공동으로 하는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자제력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단원이라도 단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개성을 조절하여 가장 완전하고 가장 조화롭게 조직에 맞추는 그러한 단원이야말로 레지오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단원이 된다. 반대로, 레지오의 특징이 되어야 할 친절함을 벗어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단원은 마치 몸의 동맥을 절개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단원은 공동체의 중심부를 향해 그러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단원들이 공동체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레지오 단원이 동료 단원에 대해 지녀야 하는 태도를 논할 때는 ‘사소한 질투심’이라는 문제를 특별히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가볍게 말하지만, 사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질투 중에 사소한 질투란 없기 때문이다. 질투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산(酸)과 같아서 모든 인간관계에 끼어들어 독을 퍼뜨린다. 특히 악의를 품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질투심은 격렬하고 광포한 힘을 발휘해서 가장 끔찍한 일들도 자행한다. 또한 질투심은 민감하고 다정한 사람들의 사심 없고 순수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어야 하고, 덕행과 실천면에서 타인보다 뒤처지고 있으며, 젊은 단원들이 들어와 한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빛을 잃어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속앓이를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나약함에 새삼스레 놀라게 된다. 이러한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면 증오심이 가슴에 쌓여 거의 파괴적인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잊으려고 힘쓴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이라면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 이상의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승리 말고는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란,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같이 삭막한 마음을 과감히 깨뜨리는 일로, 증오심에 가까운 질투를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는 우리가 동료 단원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각자 배운 대로 동료 단원들과 주위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뵈고 섬김으로써 해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질투심이 발동할 때마다 다음의 말을 생각해야 한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쓰리다.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아니신가! 그러니 나는 요한 세례자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의 희생으로 더욱 드러나시니 내 마음이 기쁨에 넘친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영웅적으로 거룩한 태도이며 한 영혼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성모님께 영광스러운 기회를 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성모님은 이런 귀한 영혼을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어 다른 이들에게 ‘그 빛을 증언 하도록’(요한 1,7) 하시어, ‘주님의 길을 미리 닦아 놓는’(마르 1,2) 또 하나의 이타적인 일꾼(레지오 단원)으로 만드실 것이다.

선구자라면, 자신이 선포한 자로 말미암아 자신의 빛이 이지러지기를 늘 바라야 한다. 주님의 사도라면,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늘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고, 결코 자신과 비교하여 측정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의 성장을 바라지만, 자기보다는 덜 성장하기를 바라는 자는 사도가 아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관련된 일에서 언제나 자신이 최우선이지만, 진정한 사도에게는 자신이 언제나 가장 꼴찌가 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질투심은 진정한 사도직과 공존할 수가 없다.

“마리아는 존경과 사랑을 담아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신다. 그 첫 인사말로 마리아는 요한 세례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엘리사벳의 품위를 들어 높이심으로써 그들을 정화시켜주는 첫 번째 성화 은총을 베푸신다.

그 첫 말씀이 이토록 큰일을 이루었다면, 그 뒤 몇 날, 몇 주일, 몇 달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마리아는 언제나 주시고 …… 엘리사벳은 받는다. 아니, 아무런 질투심 없이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하느님께서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어머니가 되는 기적을 주셨는데, 엘리사벳은 자신이 주님께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도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고, 나이 어린 사촌 앞에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질투하지 않았고, 그 후 마리아도 당신 아드님

이 사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질투하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곁을 떠날 때,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다. 조금도 섭섭한 마음을 지니지 않고 자신을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직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요한 3,30-31) (페르로이 Perroy : 겸손하신 동정 성모 마리아)

## 8. 함께 활동에 나선 단원과의 관계

레지오 단원은 함께 활동에 나서는 단원에 대하여 지켜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여기에 ‘둘’이라는 신비의 숫자가 있다. 이 숫자는 풍부한 열매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인 사랑을 상징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셨다(루카 10,1). 그러나 이 ‘둘’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함께 일을 하게 된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탄의 영혼처럼 일치된 하나를 나타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1사무 18,1 참조).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시편 126,6)

함께 활동에 나서는 단원들 사이의 관계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일치를 보일 때 올바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약속을 어긴다거나 잊어버리거나, 시간을 안 지킨다거나, 생각이나 말속에 사랑이 없고, 예의가 없거나, 잘난 체하는 등의 행동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도랑을 파는 것과 같다. 이럴 때에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도 공동체에서 규율 다음으로 축복과 번영을 보장하는 가장 소중한 요소는 형제적 사랑과 조화로운 일치이다. 모든 형제들은 성모님이 선택하신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우리는 예외 없이 그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성모님은 우리가 이들 하나하나에게 보여 주는 사랑을 당신에게 행한 것으로, 아니 당신 아드님께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모님의 참된 아들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마리아회 편찬 : 성모학 소론)

## 9. 새 단원 모집

새 단원을 모집하는 일은 모든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19,19)고 명령하셨다. 그러

므로 만일 우리가 레지오 단원 생활을 통해서 은총을 받는다면,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마땅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향상되고 있음을 본다면, 그러한 사업을 더욱 확장하려고 갈망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레지오로 말미암아 성모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모님께 더 많이 봉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찌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모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가장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그리스도께 종속시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게 만드심으로써, 마리아에게서 초자연적인 생명이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꽃피우게 하셨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고귀한 길’을 걷기를 갈망하지만, 누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권유하지 않는다면, 그 길로 들어설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이 ‘고귀한 길’이야말로 그들을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주며, 그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도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준다.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다네.

길 하나, 여러 길들,

그리고 또 다시 길 하나가 거기 열려 있다네.

고귀한 영혼은 고귀한 길로 오르고

비천한 영혼은 뒷길을 더듬으며 걷고 있다네.

그 두 길 사이로 난

안개 낀 평탄한 여러 길들에는

다른 영혼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네.

길이 열려 있다네, 누구에게나.

고귀한 길과 뒷길이.

그대는 골라야 하리,

제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존 옥센함 John Oxenham)

## 10. 교본 공부

모든 단원은 교본을 철저히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본은 레지오의 공식 해설서이다. 이 교본은 단원들이 성모님의 군사로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 사항들, 곧 레지오 조직의 원리와 규칙, 운영 및 활동의 방법, 레지오의 정신 등에 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단원들 특히 간부들이 교본을 모르고 있다면 레지오 조직을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없다. 반면에, 교본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효율도 언제나 증가할 것이다. 교본 공부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흥미도 커지고, 많이 공부할수록 삶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는 진귀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교본이 너무 길다!’는 불평을 흔히 듣게 된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도 교본의 주요 부분을 읽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매일 신문을 정독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불평을 하곤 한다.

‘너무 길다! 지나치게 자세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 국법이나 의학 또는 군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레지오 교본과 비슷한 정도의 부피밖에 되지 않는 전공 서적에 대해서 그러한 불평을 말하겠는가? 심지어 그 책은 그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 관하여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학생은 그러한 불평의 말이나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전공 서적에 실린 개념과 단어까지도 한두 주일 안에 모두 외워 버릴 것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루카 16,8)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도 있다. 즉, ‘교본은 어려운 사상과 고상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청소년 단원들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단원들은 거의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런 단원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쓴 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은 교육의 제1원리, 즉 학생을 점차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완전히 터득하고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가르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교육 과정은 이미 종료된 것이다. 학생이 처음으로 받은 전공 서적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레지오 단원도 교본을 즉시 이해할 것이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명쾌하지 않았던 것을 명쾌하게 해주고 그것을 지식으로 심어주는 것이 학교의 기능이며 교육을 실시하는 본래의 뜻이다.

‘낱말도 어렵다!’고 불평을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낱말을 배울 수는 없단 말인가? 교본에 쓰인 어휘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누구에게 묻거나 사전을 찾아보면 배울 수 있는 어휘이다. 실제로 그러한 어휘는 우리 모두 읽고 있는 일간 신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와 동일하다. 신문을 쉬운 어휘를 사용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 본 일이 있는가? 모름지기 레지오 단원이라면, 단원으로서나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레지오의 영성 원리를 비롯하여 다른 원리들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낱말들을 마땅히 익혀야 하지 않겠는가?



교본의 어휘에 관해서 말한 것은 교본의 정신과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본의 어느 내용도 모호한 것은 없다. “교회의 가르침에는 단지 극소수의 사람만이 터득할 수 있을 만큼 깊숙이 숨겨져 있는 교리란 있을 수 없다.”(맥퀘이드 대주교 Archbishop John Charles McQuaid) 이러한 사실은 평범하고 소박한 셀 수 없이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교본을 완전히 파악하여 삶의 양식과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더구나 교본의 사상은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사도직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교본의 사상을 마땅히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사도직의 공통 원리, 즉 사도직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사도직은 그 참된 의미 곧 영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를 잃게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교 사도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권리마저 상실하고 만다. 그리스도교 사도직 활동과 ‘선행’을 위한 막연한 운동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교본에 실려 있는 사도직의 정신과 내용을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쁘레시디움은 스승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쁘레시디움은 영적 독서와 훈화를 통해서, 그리고 단원들이 교본을 체계적으로 읽고 터득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은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개별적인 활동 사업 항목에는 그에 부합한 가르침을 연결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언젠가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St. Thomas de Aquino)은 ‘어떻게 하면 박식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책 한 권을 읽으시오. 그리고 무엇을 읽거나 들었던 간에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힘쓰시오. 혹시 의문이 생기거든 확실히 알 때까지 노력하시오.” 이 학문의 대가는 여기서 훌륭한 책 한 권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지 않고, 다만 지식 전수를 목적으로 한 가치 있는 책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괜찮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성인의 말을 ‘교본 한 권만이라도 철저히 공부하라.’는 격려로 알아들어도 좋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교본은 일종의 교리서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즉, 레지오 교본은 가톨릭 교회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the Second Vatican Council)의 입법에 부합한 방식으로 포괄적이고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보나벤투라 성인(St. Bonaventure)의 지식은 내적 깨우침을 통해 얻게 된 결과였다. 그럼에도 그는 학문 연구에 수반되는 노고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학문 연구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레고리오 성인(St. Gregory)의 말을 인용하여,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의 기적을 예로 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無)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

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우선 하인들에게 빈 물독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어느 누가 자신의 항아리(각자의 마음)에 먼저 물(각자 연구를 통해 배운 내용)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에게 영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노력 없이는 깨우침도 없다. 영원한 진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바친 노고에 대한 보상이다. 어느 누구도 연구를 피해 갈 수는 없다.”(제멜리 Gemelli : 세상에 보내는 프란치스코의 호소)

## 11. 항상 복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면서도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레지오 정신이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뿌리를 뽑아 그 자리에 그리스도 왕의 깃발을 세운다는 레지오의 일반 목적을 촉진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늘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성냥불을 청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시오. 그러면 그는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하느님에 대해서 당신에게 물어올 것입니다.”(뒤아멜 Duhamel) 그렇다면 왜 우리가 먼저 성냥불을 청해서, 그 ‘생명을 전해 주는 접촉의 기회’를 확보하려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신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신자들이 너무 흔해 이제는 것처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거의 관례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부분적인 의미에서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교황 비오 11세는 ‘반쪽짜리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이라고 책망하였다. 물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고 하신 주님의 계명은 계속해서 선포되어 오고 있지만 많은 신자들이 단호히 귀를 닫아버린다.

레지오가 제시하는 기준을 오로지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도 이처럼 심각하게 잘못된 관점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레지오가 정한 기준은 그리스도 신자가 지녀야 할 기초적인 기준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신자가 그 기준에도 훨씬 미치는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은 주님께서 내리신 위대한 계명인 이웃 사랑의 실천을 자기 주변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신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이웃 사랑은 참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일부일 수밖에 없기에, 이웃 사랑을 빼버린다면, 그리스도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훼손되어버린다. “우리는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느님

대전에 나아가야 한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가 다른 이들 없이 혼자 하느님 앞에 나타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가?”(페기 Péguy)

우리는 개별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며, 단순히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과 봉사정신 그리고 자기 희생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교 정신을 드러내는 매혹적인 화신(化身)이 되어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참된 빛이다. 만일 이 참된 빛을 그 빛이 지닌 무수하고 뚜렷한 광선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생활이라는 실천적인 본보기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빛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그 빛은 통상적인 수준의 가톨릭 신자들 안에서 반영되지 않을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참된 빛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자들은 간신히 지옥을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는 종교가 종교 본래의 고귀하고 이타적인 특성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교가 지녀야 할 본모습과는 정반대로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종교는 아무도 매혹할 수 없고 아무도 붙잡아 둘 수 없다.

의무는 곧 규율이다. 항상 복무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씨, 옷차림, 태도, 행동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추문을 일으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 목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알아차린 사람들에게서 허물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사람의 경우에는 별것도 아닌 허물을 레지오 단원에게서 발견하게 되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길 것이며, 결국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단원의 수고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세상의 눈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른 이들에게 좀 더 고상한 삶을 살도록 권유하는 레지오 단원에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서도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 선행을 하겠다는 좋은 뜻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유로 사도직 활동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러한 이유로 단념해야 한다면, 모든 이들이 사도직을 끝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도 도달하지 못한 완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쌓으라고 조언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위선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St. Francis de Sales)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한다고 해서 위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위선이 된다면, 오 하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레지오 마리아가 목표로 삼는 것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는 ‘평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말한다. 오늘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형제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염려하지 않는 신자를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된 가톨릭 신자를 희화하는 것이며 가톨릭 신앙 자체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평균적인’ 가톨릭 신앙은 ‘정상적인’ 가톨릭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착한 신자’ 즉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는 말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사도직 활동’도 하지 않는 신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 최후의 심판 때 심판 기준이 될, 최소한의 사도직 활동을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라 불리는 대다수의 신자들이 수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고,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수에넨스 추기경 Cardinal Suenens : 사도직 신학)

## 12. 레지오 단원은 활동과 더불어 기도를 바쳐야 한다

레지오가 행동단원들에게 매일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요구하는 기도는 까떼나(Catena Legionis) 하나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뗏세라(Tessera)의 모든 기도를 자신들의 일과 계획에 포함시켜 날마다 바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협조단원들은 뗏세라의 모든 기도를 매일 의무적으로 바치고 있는데, 행동단원들이 그 수많은 협조단원들이 바치는 기도보다 훨씬 적게 바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물론 협조단원들은 실제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단원이 활동은 하면서도 기도를 바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협조단원이 레지오의 모후께 더 큰 봉사를 드린다는 것은 분명하다. 행동단원이 활동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레지오가 의도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반대가 된다. 왜냐하면, 레지오는 행동단원을 공격의 창끝으로 여기고, 협조단원은 단지 손잡이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협조단원들이 열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희생하고 영웅적으로 봉사하는 행동단원들을 자신의 기도로써 뒷받침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또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도 행동단원들은 협조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자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행동단원들이 바치는 기도가 협조단원들에게 요구되는 기도보다 적어서 어느 쪽이 레지오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어찌 협조단원들을 영적으로 복돋아 주는 행동단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행동단원이나 협조단원을 가릴 것 없이 레지오 단원들은 모두 ‘로사리오 회(the Confraternity of the Most Holy Rosary)’에 가입해야 한다. 이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은총을 받게 된다(부록 7 참조).

“우리가 청원기도를 바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때라도, 모든 청원기도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이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다. 예수님은 중재자이시기에 모든 간청은 그분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성모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부께 직접 기도를 드리거나, 또는 어느 천사나 성인에게 청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되신 동정녀께서 우리의 청원 기도를 함께 들으신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도 모르게 부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결합되어 계시는 복되신 성모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모든 기도를 바칠 때 암암리에 마음속으로 부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도 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청원을 드릴 때에도 성모님께 청원 드리는 것이며, 성인에게 부탁을 드려도 성모님께 간청하는 것이다.”(캐니스 버크 Canice Bourke : 성모 마리아)

### 13. 레지오 단원들의 내적 생활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라고 말했다. 내적 생활이란 자신의 생각, 뜻, 애정을 우리 주님께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적 생활을 이루어내기 위한 본보기는 복되신 동정 성모님이시다. 성모님은 성덕에서 끊임없이 진보하시어 영적 발전을 이루어내셨으며, 무엇보다도 애덕 즉 사랑에서 발전하셨고, 애덕은 성모님의 일생동안 성장해 나갔다.

“어떠한 신분이나 계층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름 받고 있다. ……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덕과 자기 신분의 완성을 추구하도록 권유받으며 또 그러할 의무가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40항 및 42항) 성덕은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모든 성덕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으며,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데에 있다.”(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St. Alphonsus Maria de Liguori)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언제나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

요합니다. 곧,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경청, 끊임없이 드리는 자녀다운 기도, 지혜롭고 고마운 영적 지도에 대한 의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자질은 물론 자신이 살아가는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충실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58항)

쁘레시디움 차원에서 단원들의 영적 양성이 이루어진다면 단원들의 성덕을 발달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뿌레시디움 차원에서는 주어지는 영적 지도는 집단적인 성격의 지도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각 단원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각기 다른 개인적인 요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영적 지도를 통해 집단적인 영적 지도를 보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며, 따라서 앞서 언급한 ‘지혜롭고 고마운 영적 지도’를 단원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올바른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기도와 고행과 성사 생활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가) 기 도

기도는 사적으로도 바치고 공적으로도 바쳐야 한다. 인간 본성은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배 의무는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공동체 전체가 사회적 유대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공동체 전체도 경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미사나 시간전례(성무일도) 같은 전례는 교회가 공적으로 드리는 경배 행위이다. 그렇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또한 자기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며, 더욱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12항). 사적으로 바치는 기도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영적인 것에 대한 묵상, 성실한 양심 성찰, 봉쇄 피정, 성체 조배,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특별 기도, 특히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묵주기도 등”이다(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하느님의 중재자(Mediator Dei)』 174항). “나아가 그러한 신심 형태들은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더 깊이 발전시키므로, 신자들이 거룩한 공적 행사에 참여하여 더 많은 열매를 얻도록 준비시키며, 전례 기도가 의미 없는 의식이 될 위험을 덜어” 준다(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하느님의 중재자(Mediator Dei)』 175항).

개인적으로 하는 영적 독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키워 줄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크게 도와준다. 영적 독서를 위해 권장하는 책은 신약성경과 영성 생활의 고전들이다. 신약성경은 가톨릭 교회가 인정한 주해서와 함께 읽어야 하며(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12항 참조), 영성 생활의 고전은 각자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지혜로운’ 안내자

가 특히 중요하다. 성인들의 일생을 잘 묘사한 성인전은 영성 생활의 훌륭한 입문서가 될 수 있다. 성인들의 삶은 우리를 선하고 영웅적인 생활로 들어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성인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알려주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인들의 무리와 어울려 걷게 된다면, 이내 그들의 훌륭한 자질을 따라하게 될 것이다.

레지오 단원은 될 수 있는 대로 매년 한 차례씩 봉쇄 피정을 해야 한다. 피정과 명상을 거듭할수록 단원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 받고 있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더 명쾌히 가지게 된다.

#### (나) 고행 즉 극기

고행 즉 극기란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여 그분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느님을 위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고행 즉 극기가 필요한 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이 흐려져 있고 의지는 나약해졌으며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쉽사리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교회가 정한 참회 고행의 날과 때 그리고 참회 고행 방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의지이다. 레지오 조직을 올바르게 따르기만 한다면 고행에 매우 유익한 훈련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는 하느님께서 건네주시는 ‘삶의 십자가와 수고와 좌절’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제하는 일이다. 특히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해야 할 지 스스로 통제하는 일과 관련된다. 눈과 귀와 입을 통제하게 되면 기억과 상상이라는 내적 감각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고행은 또한 나태, 변덕, 이기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것도 포함한다. 극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을 예의 바르게 대하며 그들에게 즐거움을 안겨 줄 것이다. 개인적인 사도직이란 결국 다른 이들과 우정의 관계를 쌓는 일인데, 이는 형제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기 위해 항상 친절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노고가 따르기 때문에 자기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1코린 9,22)라고 바오로 성인은 말했다. 형제가 위험한 쪽으로 빠지지 않는지 점검하고 좋은 습관을 지니도록 장려하기 위해 쏟는 노력은 그리스도 신비체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다른 이들의 죄를 보속하는 것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면 지체(肢體)인 우리가 그분과 연대하여 함께 고통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 우리 죄인들도 만땅히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훌륭한 그리스도 신자는 죄의 싹이 눈에 필 때마다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즉시 행동한다.

#### (다) 성 사

그리스도와 일치는 세례성사에서 비롯되어 견진성사로서 더욱 발달하며 성체성사 안에서 실현되고 효과적으로 양육된다. 이 세 가지 성사에 대해서는 이 교본 다른 곳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가톨릭 사제들로 하여금 당신을 대신 하여 집행하도록 하신 자비와 용서의 성사인 고해성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고해성사는 고백의 성사, 회개의 성사 또는 화해의 성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기에 고백의 성사이고,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회개의 성사이며, 회개한 우리가 이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전 인류와 화해하게 되므로 화해의 성사이다. 고해성사는 성체성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은 그분의 십자가상 죽음의 공덕으로부터 비롯되며, 성체성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거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레지오 단원들은 이 화해의 성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여 자주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야 한다. “왜냐하면 고해 성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참으로 알게 되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덕을 키우며, 나쁜 습관을 뿌리 뽑고 영신적인 나태와 냉담을 예방하며, 양심을 정화하고 의지를 굳건히 하며, 건강한 영적 지도를 받고, 성사 자체의 효과로 말미암음 더 많은 은총을 받기 때문이다.”(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 87항)

이렇게 단원 스스로가 먼저 이 화해의 성사를 통해 은총을 체험할 때, 그는 다른 신자들도 자주 이 성사에 참여하여 그 은총을 나누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여 말한다면, 영혼을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 왕국으로 바꾸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안에 사실 때에만 가능하다. 사실상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마리아 ‘영성’은 마리아 ‘신심’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여러 민족들과 국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개인들과 여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에서 매우 풍요로운 원천을 발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마리아 영성에 대한 많은 증인들과 스승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성사 때에 한 약속에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봉헌할 것을 제안한 루이 마리 그리뇽 드 몽포르(St. Louis Marie Grignion de Montfort) 성인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48항)

“우리의 영적인 삶과 교의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교의는 우리 신앙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 길을 밝혀 주고 확실하게 해 준다. 거꾸로 우리의 삶이 올바르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개방되어 신앙 교의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9항)

#### 14. 레지오 단원과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성소

레지오는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레지오는 일종의 훈련을 통하여 단원들의 모든 생활 영역과 모든 시간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레지오 단원이 주회합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이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만 단원답다면, 그는 레지오의 정신대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레지오의 목적은 단원들과 단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 받은 자신들의 성소를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성소의 근원은 세례성사이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각 신자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된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이외의 그 밖의 그리스도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 자신이 되었다.”(성 아우구스티노 St. Augustine)

세례 성사 때 그리스도께 합체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각 구성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제, 예언자, 왕의 자격으로 수행하시는 역할에 참여한다.

우리는 사적 또는 공적 경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한다. 가장 고귀한 형태의 경배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이다. 영적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버지 하느님께 제물로 바친다. 평신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분 생활, 가정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고 더 욱이 삶의 괴로움을 곳곳이 견뎌 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이 되고(1 베드 2,5 참조), 성찬례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되어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된다. 또한 이와 같이 평신도들은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배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한.”(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34항)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교도직)에 동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생활의 증거와 말씀의 힘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셨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35항) 우리는 평신도로서 신앙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할 능력과 책임을 부여 받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신앙의 진리를 전해 주는 일이다. 즉,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영혼이란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죽음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말해 주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하여 논쟁하고 증거를 댈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 진리를 알고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내는 차이를 깨달아 이를 주제로 총명하게 대화하여 진리에 내포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대화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흥미를 갖고 더 많은 정보를 찾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레지오 단원은 단원 생활을 통해 믿음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강력한 동기 부여와 체험을 통해 낯선 사람들에게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도움 받는다. 그런데 우리 단원들이 가장 먼저 이 사랑의 사도직 활동을 펼쳐야 할 대상은 바로 가정이나 학교, 업무나 직장, 친교나 여가 활동에서 우리가 늘 마주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레지오가 주간 활동 대상으로 배당하는 사람들은 아닐 테지만, 그들 역시 늘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권세를 물리침으로써, 그리고 다스리는 것은 섬기는 것이므로 우리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동참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 20,28)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특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안과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이 무엇이든 올바르게 해냄으로써 왕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한다. 이처럼 올바르게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지속하여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현세 질서를, 다시 말해, 이 지상의 모든 일들을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키는 일은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우리는 레지오 선서 때에 성령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는 서약을 한다. 우리가 행동할 때에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행동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본성 역시 될 수 있는 대로 흠 없는 도구를 성령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세 위격 가운데 한 위격이셨다. 하지만 그분이 행동하시고 생각하실 때, 말씀하시고 바라보실 때, 그리고 태도를 취하실 때,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어린아이들과 가장 안목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그분은 모든 이가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는 분이셨다.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St. Francis de Sales)은 그 몸가짐과 태도가 너무나 훌륭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성인은, 사

량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인 자신이 ‘아주 작은 덕목’이라고 불렀던 것들, 즉 친절함, 정중함, 예의 바름, 배려, 인내심 그리고 이해심을 특히 까다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연마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혈족이시라는 사실은 두 분의 인격이나 이목구비, 성향이나 취미, 그리고 덕목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혈족이라는 사실이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에 존재했던 그러한 정도의 유사성을 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두 분이 비슷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성모님의 경우 은총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고, 이는 너무나 강력한 은총이 이루어낸 결과였다. 이 은총은 혈족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자연 원리를 취하여 성모님 안에서 발전시킴으로써, 하느님의 아드님이 시자 당신의 아드님인 예수님을 어느 모로 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보여주는 표상이 되시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성모님을 뵈게 되면 성모님에게서 아주 정교하게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모성의 관계는 성모님과 그 아드님 사이에 일종의 친밀함을 형성하였다. 그 친밀함은 단순히 삶을 나누고 친교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속 비밀도 교환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성모님은 예수님의 생각, 감정, 포부, 열망, 계획을 모두 반영하는 거울이 되셨고,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의 영혼인 순결, 사랑, 헌신, 무한한 애덕이 이루어낸 놀라운 일들을 얼룩 하나 없는 거울처럼 더 뛰어난 방식으로 반영하셨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오로 성인보다 훨씬 더 당당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드 콘칠리오 De Concilio : 성모님에 대한 이해)

## 제34장 뻘레시디움 간부들의 임무

### 1. 영적 지도자

레지오가 자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적으로 단원들의 영적 자질이 얼마만큼 개발되어 활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본다. 따라서 단원들의 영적 자질을 높이는 일을 주된 임무로 맡고 있는 영적 지도자야말로 뻘레시디움의 힘의 원천이다. 영적 지도자는 회합에 참석하여 단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과 더불어 레지오의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보살피고, 조직이 영성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바르게 운영되도록 돌볼 것이다. 영적 지도자는 모든 악습을 막아야 하며, 레지오의 모든 정당한 권위를 옹호해야 한다.

자신이 지도하는 뻘레시디움이 훌륭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면, 그는 본당 내의 남다른 열성과 잠재력을 지닌 평신도들을 그 뻘레시디움 안에 확보해 놓은 셈이 된다. 그러나 뻘레시디움이 좀 더 가치 있고 어려운 활동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또한 뻘레시디움은 내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외부의 장애를 헤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 역시 영적 지도자의 격려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뻘레시디움은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영성을 고취시켜주는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뻘레시디움은 사실상 영적 지도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교황 비오 11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의 운명은 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단 한 번이라도 단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그리고 아무리 소규모의 뻘레시디움이라도 하느님과 성모님과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그 단원들을 목자 없는 양 떼처럼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까지도 영적 지도자는 “그 단체의 영혼이 되고, 모든 선한 활동에 영감을 주며, 열성의 근원”(교황 비오 11세)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였는데, 것처럼 양 떼를 내버려 둔 영적 지도자에 대해 그는 무엇이라 이야기하겠는가?

영적 지도자는 수도회의 수련장이 자신에게 위탁된 수련자들을 돌보듯이 뻘레시디움을 돌볼 것이며, 단원들의 영적인 안목을 높이고 그들의 활동과 영성이 레지오 마리아에 맞갖은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원들의 영적 자질은 목표로 하는 수준만큼 올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최고 수준의 덕성을 단원들에게 요구하거나, 영웅적인 덕성이 있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단원들에게 맡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불가능한 일도 은총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며, 은총은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영적 지도자는 단원들이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의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충성심을 발휘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충성심은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의 성과는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 결과는 그때까지의 작은 일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는 단원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활동에 나서지 않도록 반드시 조처하고, 성공했다고 자만하거나 겉으로 보기에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며, 마음에 내키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임무라도 일단 명령이 내리면 수백 번이라도 다시 나서겠다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영적 지도자는 단원들이 주어진 활동을 기도와 자기희생을 통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보살펴야 하며, 통상적인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야말로 어머니이신 레지오의 모후께 확실한 신뢰심을 갖고 의탁할 수 있는 때이며 그분은 단원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마리아의 군대의 영적 지도자라면, 모든 단원들의 마음을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뚜렷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특히 레지오가 특별히 공경하고 있는 성모님의 여러 가지 특전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도록 할 본질적인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가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듯이 단원들을 끈기 있게 지도한다면, 그는 그 무엇으로도 꺾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정신적 요새를 단원 각자의 마음 속에 세운다는 희망을 할 수 있다.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의 일원으로서 업무 처리나 토의 또는 기획에 관여하며, ‘필요에 따라 교사나 조연자 또는 안내자’(교황 비오 10세)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단장의 임무까지 맡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경향은 쁘레시디움에게는 좋은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제로서의 그의 위상과 인생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에다 업무 처리와 진행 역할까지 더해진다면, 그가 회합에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이 될 것이다. 각각의 사안은 영적 지도자와 해당 단원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논의될 것이고, 그러한 대화에 단장과 대다수의 단원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싶은 발언이 있어도 혹시 자신의 발언이 영적 지도자의 판단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입을 다물고 말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전체 단원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길이 막히게 되면, 회합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잃게 되고, 단원을 교육하는 힘과 건전한 발전의 기반도 상실하고 만다. 이러한 쁘레시디움은 영적 지도자가 불참하게 되면 아무런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무너질 수도 있다.

“영적 지도자는 단원들과 마찬가지로 회합에서 논의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말끝마다 자신의 견해를 주입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쁘레

시디움이 영적 지도자의 조언이나 지식을 요청하면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균형 잡힌 방식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즉 단장을 무시하거나 회합 분위기를 휘저어 놓아서는 안 되지만, 단원들이 다른 단원의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끔 필요한 정도만큼은 개입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햄싱 주교 Bishop Helmsing)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이 영성에 관한 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 그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단원들이 읽을 책을 세심하게 검열하여 교회의 정통 원리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가르침은 그 어떠한 것도 단원들에게 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회합에서 레지오의 까떼나를 바치고 나면 곧바로 짙막한 훈화를 하되, 가급적이면 레지오 마리아 공인 교본의 한 부분을 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18장 [쁘레시디움 회합의 순서] 11절 ‘훈화’ 참조). 영적 지도자가 회합에 참석하지 않는 때에는 단장이 훈화를 한다. 회합의 마침 기도가 끝나면 영적 지도자는 단원들에게 강복을 준다.

“그리스도께서 사제직을 세우셨을 때, 당신을 대리하고 당신을 나타내도록 사제직을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되도록 사제직을 세우셨다. 이는 달리 말해 당신 대리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소 하느님의 권능을 행사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제를 받들고 존경하는 것은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흠숭하는 행위이다. 사제는 그 영원한 사제직을 나누어 수행하는 교역자이다.”(벤슨 Benson : 그리스도의 우정)

“사제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포도밭 임자가 되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시간 장터로 나가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사제가 부르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장터에 서서 ‘온종일 하는 일 없이’(마태 20,6) 남아 있게 될 위험이 크다.”(치바르디 Civardi)

## 2. 단 장

1. 단장의 주 임무 가운데 하나는 자기 쁘레시디움이 소속되어 있는 꾸리아 회합에 반드시 참석하는 일이다. 단장은 꾸리아 회합 참석 의무와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뿌레시디움이 레지오의 중앙 기구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2. 단장은 브레시디움 회합에서 의장이 되어 업무를 처리한다. 단장은 활동을 배당하고, 그 활동에 대한 단원들의 보고를 받는다. 단장은 브레시디움의 세부적인 모든 면까지 충실하게 운영할 책임을 레지오로부터 위임받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그가 위임 받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는 레지오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된다. 세속 군대에서는 이러한 배신 행위를 반역이라 부르며 범법자로서 엄벌에 처한다.
3. 단장은 정시에 회합이 시작될 수 있도록 회합실의 조명이나 난방 또는 좌석 배치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4. 단장은 정시에 정확히 회합을 시작하고 적절한 시간에 회합의 진행을 중단하고 까때나를 바치며, 규정된 시간 안에 회합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탁자 위에 시계를 놓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영적 지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장이 대신 훈화를 해야 하며, 간혹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다.
6. 단장은 다른 간부들을 지도 감독하여 각자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돌본다.
7. 단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브레시디움이나 다른 브레시디움의 간부직에 결원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꾸리아에 추천할 수 있는 우수한 단원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브레시디움의 능력은 훌륭한 간부들에 의해 좌우되므로, 자격 있는 자들을 발탁하여 레지오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단장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8. 단장은 영성적인 면에서나 열성에서 동료 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단원들이 하고 있어야 할 일을 단장 자신이 떠맡아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장이 단원들의 일까지 하게 되면, 자신의 열성을 보여 주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정작 자신의 모범을 보고 배워야 할 단원들로부터 실천의 기회를 빼앗게 되므로 결국 그러한 열성은 모범이 될 수가 없다.
9. 작은 목소리나 분명치 않은 보고는 회합의 적이다. 그러므로 단장은 자신이 먼저 회합실 전체가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단장이 이 점을 소홀히 하면 단원들 역시 애써 들어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보고하게 되어 회합은 즉시 맥이 빠지고 만다.

10. 단장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며, 아직 익숙하지 못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단원에게는 적절한 질문을 하여 이끌어 주고, 아무리 훌륭한 보고라 해도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조정해 줄 의무가 있다.

11. 단장이 회합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발언을 되도록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극단의 한쪽은 확인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 없이 회합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 결과 어떤 단원은 너무 간단한 보고로 끝내는가 하면, 어떤 단원의 보고는 끝도 없이 길어진다. ‘너무 짧은 보고’와 ‘너무 긴 보고’를 합쳐서 반으로 나누면 계산상으로는 제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혼란을 덮어 놓았다 해서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한데 모아 놓았다 해서 정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한쪽의 극단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이다. 어떤 단장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열을 올리기 때문에 (가) 단원들이 발언할 시간까지 단장이 차지하거나 (나) 브레시디움은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루카 2,49 참조)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자리라는 본래의 취지를 여기게 되며 (다) 더욱이 단장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단원들은 입을 다물게 되어 회합은 해이해지고 만다.

위에 설명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는 그 어느 것도 단원들을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달갑지 않은 것이다.

12. 브레시디움 안에 형제적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 단장은 이 점을 명심하여 단원들 가운데 형제애가 복돋아지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장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쏟고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단장은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태 20,27)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13. 단장은 단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지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하고 자진해서 돕도록 권장해야 하며, 브레시디움이 펴는 모든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단원들을 이끌어야 한다.

14. 단장은 단원들의 활동이 다음과 같은 점에 부합되는지 살펴야 한다.

(가) 올바른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나) 올바른 노선을 따르고 있는가?

(다) 레지오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가 단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 전에 했던 활동을 가끔씩 다시 점검하고 있는가?

(마) 새로운 활동을 개척하려는 진취적 정신이 단원들 안에 살아 있는가?

15. 단장은 단원들로부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자기희생을 얻어내야 한다. 유능한 단원에게 사소한 활동을 맡기는 것은 영원을 위하여 양성되고 있는 그 단원에게 결코 정당한 배당이 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준다면 주어진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단장은 각 단원이 자신의 노력과 자기희생을 극대화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16. 빠레시디움이 잘못되는 것은 대개 단장에게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단장이 빠레시디움의 결함을 바로잡으려고 노력 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그와 같은 잘못은 되풀이될 뿐만 아니라 결국 점점 더 커지게 된다.

17. 단장은 연간 대략 50여 회의 빠레시디움 주회합을 주관하게 된다. 단장도 사람인 이상 때로는 기분이 언짢은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단원들 앞에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언짢은 기분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없다. 특히 회합을 주재하는 사람의 기분이 언짢게 되면 곧 전체 분위기를 해치고 만다.

18. 빠레시디움이 활동을 하지 않고 표류하거나 사기를 잃었다고 생각될 때, 단장은 개인적으로 꾸리아 간부들과 의논하여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일 꾸리아에서 단장에게 평단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나오면 그 결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겸손의 태도는 자신에게 커다란 축복이 될 것이다.

19. 단장은 다른 간부나 단원들과 마찬가지로 빠레시디움의 주간 활동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규율을 새삼스럽게 강조함이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단장이 주간 활동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 끝으로 단장은,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인 빠짜르도 추기경

(Cardinal Pizzardo)이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지도자라면 누구든지 특별히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특성이란, 교회 권위에 순명하는 덕, 극기하는 정신, 다른 단체들과 그 단체들에 속한 회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정신이다.

“영혼을 보살피는 일이 제게 주어진 순간부터 저는 제 임무가 저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임을 한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아기가 놀라면 아빠의 어깨에 얼굴을 숨기듯이 급히 주님의 품안으로 숨어 들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 영혼들에게 알맞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제 손을 먼저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당신 품안에 숨어서 얼굴을 묻은 채로, 제게 영혼의 양식을 구하러 오는 이들에게 당신의 보화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영혼들이 양식을 받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제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 감사드리는 것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만일 양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이 푸념을 한다면,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 양식이 당신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들이 알도록 타이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양식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St. Thérèse of Lisieux)

### 3. 부 단 장

1. 부단장은 꾸리아 회합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부단장은 단장 유고시 쁘레시디움 회합을 주재해야 한다. 그러나 단장 유고시 회합을 주재한다는 사실이 공석이 된 단장의 직무를 승계할 권한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의 운영 지침서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 규정은 쁘레시디움의 부단장에게도 적용된다.

“회장 유고시, 특히 장기간 유고시, 부회장은 회장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전적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한 회원의 유고로 전체 운영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회장이 유고중이라 해서 회원들이 아무런 활동도 하려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것은 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도리상의 의무로서, 회장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부재중이었

기 때문에 모든 것이 침체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 놓아야 한다.”

3. 부단장은 브레시디움 운영과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서 단장을 보좌한다. 부단장의 직무가 단장 유고시에만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흔히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부단장 자신에게나 브레시디움 전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 부단장의 역할은 단장이 하는 일을 긴밀히 협력하는 데 있다. 브레시디움 안에서 단장과 부단장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또는 군대에서의 사령관과 참모장 사이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완한다. 부단장은 능동적인 간부가 되어야 하며, 예비 간부나 수동적인 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회합중에 부단장이 특별히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단장이 처리할 일은 아니지만 브레시디움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수많은 업무들을 감독하는 것이다.

4. 부단장은 특히 단원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부단장은 회합에 처음 참석하게 되는 새 단원과 미리 낯을 익혀 두었다가 그를 브레시디움에 기꺼이 맞아들이고 회합이 시작되기 전이나 또는 회합이 끝난 후 동료 단원들에게 소개한다. 부단장은 새 단원이 활동 배당을 받도록 주선해야 하며, 까페나를 매일 바쳐야 하는 의무를 비롯한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설명해 주고, 브레포리움 단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알려 주어야 한다.

5. 부단장은 회합중 출석을 부른다.

6. 부단장은 행동단원, 브레포리움 단원, 아듀포리움 단원의 명부를 관리하며, 각각의 명부를 정 단원과 수련 단원으로 구분 관리한다. 부단장은 수련기가 끝나게 되는 협조단원들을 방문하여, 그가 협조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정식으로 협조단원 명부에 옮겨 기재해야 한다.

7. 부단장은 수련기에 있는 행동단원의 수련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면 미리 알려 주어 그가 선서를 준비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8. 부단장은 회합에 결석하고 있는 단원이 있다면 그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 이후 서신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그 단원이 레지오의 대열을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원들 중에는 분명히 레지오 단원 생활을 즐기게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성에 맞지 않아 곧 떨어져 나갈 사람도 있다. 이 두 부류 사이에 있는 많은 단원들은 외

부 여건이나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단원 생활의 지속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간부들은 이러한 단원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레지오에게는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 단원을 잃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단장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만 한다면, 수많은 훌륭한 활동 실적과 더불어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며, 새로운 브레시디움 설립이 앞당겨진다. 따라서 부단장의 임무 그 자체가 매우 특별한 형태의 사도직이 되는 것이다.

9. 부단장은 브레시디움 단원들이 세상을 떠난 모든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기도의 임무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살펴야 한다. 이 의무에 관해서는 별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10. 부단장은 병중에 있는 단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단원들이 방문하도록 배려한다.

11. 부단장은 단원들이 협조단원, 특히 아듀포리움 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도록 지도한다.

“수련자들은 데레사 성녀가 자기들의 내면의 깊은 생각을 꿰뚫어 보는 것을 알고 놀라서 성녀께 물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 비결은 이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동정 성모님께 기도를 바친 후에 여러분을 관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저를 깨우쳐 주시도록 성모님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내용에 대해 저 자신도 가끔 놀라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제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St. Thérèse of Lisieux)

#### 4. 서 기

1. 서기는 꾸리아 회합에 참석해야 한다.

2. 서기는 브레시디움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

성할 때 정성을 다해야 하며, 회합에서 회의록을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야 한다. 회의록은 낭독하는 방법과 그 내용에 따라서 회합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회의록을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작성하는 데는 상당한 수고를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렇게 알맞게 작성된 회의록을 알맞게 낭독하면, 회합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뚜렷한 길잡이가 되어 회합의 능률도 크게 높아진다.

3. 서기가 회의록을 훌륭히 작성하려면 필기 도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서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연필이나 망가진 펜으로 질 나쁜 종이에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 좋은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 그러므로 회의록은 품질이 좋은 공책에 잉크로 쓰거나 타자기로 작성해야 한다.

4. 서기가 서기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서 뵤레시디움의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우는 것은 아니다.

5. 서기는 꾸리아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와 보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뵤레시디움의 전반적인 통신 업무를 맡아 한다. 또한 서기는 뵤레시디움의 사무용품이 적절히 보급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6. 단장은 서기 직무 중 일부를 뵤레시디움의 다른 단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복음서에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루카 2,51)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화가 보띠첼리(Botticelli)는 ‘마리아가 그 모든 일을 왜 양피지에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드는 대신, 환희와 감사로 넘치는 가장 완전한 찬미가인 ‘마리아의 노래’를 그림으로 그려 놓았다. 그 그림에는 천사 하나가 오른손에는 잉크병을 들고 왼손으로는 원고를 받쳐 들고 서 있다. 그 원고에는 동정 성모님이 이제 막 마니피캇(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을 채색된 고딕체로 써 넣으셨다. 토실토실한 아기 예수님은 예언자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그 조그마한 손으로 어머니의 손가락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손가락은 피렌체 출신의 화가 보띠첼리가 성모님을 그릴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그려 넣은, 그 섬세하고도 감성이 풍부하며 마치 사색하는 듯한 손가락이다. 잉크병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황금병도 아니고 다른 천사들이 떠받치고 있는 왕관처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지도 않지만, 이 잉크병은 하늘과 땅의 모후이신 성모님이 맞이하실 승리를 상징한다. 이 잉크병은 세상 끝 날까지 인간 역사에 기록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겸손한 여종이신 성모님이 당신이 누리시게 될 영광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을 확인시켜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울로베르크 Vloberg)

## 5. 회 계

1. 회계는 꾸리아 회합에 참석해야 한다.
2. 회계는 뵤레시디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계 장부를 완벽하게 기입하고 보관하는 의무가 있다.
3. 회계는 뵤레시디움 회합 때마다 비밀 현금 주머니를 돌린다.
4. 회계가 지출을 하려면 뵤레시디움의 지시가 있어야 하며, 뵤레시디움 명의로 뵤레시디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 기금을 예치해야 한다.
5. 회계는 제35장 [자금]에 실려 있는 예치된 자기에 관한 권고 사항을 유념하고, 이에 관하여 때때로 뵤레시디움 회합중에 거론함으로써 모든 단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성모님은 성령의 포도주를 당신이 주고 싶으신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신 만큼 따라 주시기에 성삼위의 포도주 창고 관리인이시다.”(성 대 알베르토 St. Albert the Great)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관리하는 분이시다. 즉, 성모님이 간직하고 계신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모님이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보화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성 에이마르 St. Peter Julian Eymard)



## 제35장 기금

1.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자신의 직속 상급 평의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 이 의무와 아래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면서,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자체의 운영 기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지니며,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책임을 진다.

2. 각급 기관은 기부금을 일정 비율로 한정시키거나 기부액을 최저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쁘레시디움은 소요 경비 지출 후 남은 기금을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꾸리아에 보내 레지오의 일반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금 문제에서도 쁘레시디움과 꾸리아의 관계는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처럼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며,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드린다.

자주 뿌레시디움들은 레지오의 일반 운영이 뿌레시디움의 기부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 그러한 뿌레시디움들은 꾸리아가 겨우 운영될 만큼만 기여하거나 때로는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꾸리아들은 결국 상급 평의회들이 레지오 확장 사업과 지단 설립 및 방문 그리고 그 밖의 경상비와 관련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도울 수 없게 된다. 이는 레지오의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통탄할 만한 일이다.

3. 새로운 지출이 요구되는 계획이 있으면 뿌레시디움은 꾸리아에 문의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게 해야 한다.

4. 꾸리아는 뿌레시디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해당 뿌레시디움이 수행 중인 활동에 연관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져서는 안 된다. 재정적인 책임은 해당 뿌레시디움 스스로 져야 한다. 이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동호회나 대학 기숙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어떤 단체가 뿌레시디움으로 설립된 후, 기존 뿌레시디움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설립해 놓은 뿌레시디움의 사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모금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몰라도, 어떠한 뿌레시디움도 다른 뿌레시디움이나 꾸리아에 기금을 모으는 일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쁘레시디움이 자체적으로 펴는 특수 활동에 비밀 헌금을 지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특수 활동을 통해서 생긴 자금을 쁘레시디움 회계에 입금시키는 것 이외의 자금 전용은 꾸리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해산되거나 또는 레지오 조직체로서의 기능이 중지된 경우, 그 기금과 자산의 소유권은 직속 상급 평의회에 귀속된다.

7.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직접 권유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금전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회계 장부는 일 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에서 회계 직책을 맡지 않고 있는 두 단원을 지명하여 실시한다.

9. 성모님의 살림살이에 낭비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레지오 조직은 그 자산과 기금을 조심스럽게 아껴서 다루어야 한다.

“온 인류는 온전히 하나이자 한 몸으로서, 그 안에서 각 지체는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해야 한다. 생명은 살아서 순환해야 한다. 생명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 생명을 정지시키는 이는 생명을 잃는다. 생명을 내어 주는 이는 생명을 찾는다. 살아 있는 영혼이라면 모두 다른 영혼에게 자기 자신을 쏟아 부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하나를 그것을 보존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이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힘이다.”(그라트리 Gratry : 성모성월)

## 제36장 특별히 언급되어야 할 빼레시디움

### 1. 소년 빼레시디움

1.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위한 빼레시디움은 꾸리아의 승인을 얻고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특정 조건을 지키면서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교본 제14장 22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2. 레지오를 제대로 익히는 유일한 방법은 레지오 조직을 운영해 보는 것이다. 종종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열심히 권고하면서 강의를 실행하곤 하지만, 그러한 강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현장체험학습이라는 살아 있는 몸과 비교한다면 그저 마른 뼈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실전 훈련도 해보지 않고 사도직 활동을 시작하려는 지향과 뜻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지향이나 뜻은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 경험이 없으면 쉽게 겁먹는다. 설사 자기 방식대로 사도직 활동을 시작했다 해도 틀림없이 난관에 봉착하고 만다.

3. 소년 빼레시디움의 필수 요건으로서, 적어도 단장만은 성인 레지오 단원이 맡아야 한다. 또한 단장이 결석하는 경우와 앞으로 그 소년 빼레시디움이 확장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한 사람의 성인 단원이 간부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성인 단원들은, 만일 그들이 성인 빼레시디움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년 빼레시디움의 간부가 되어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성인 빼레시디움 단원으로서의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소년 빼레시디움에만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성인 단원의 능력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성인 간부는 될 수 있는 대로 경험이 많은 단원으로서, 레지오 조직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 해도 최소한 레지오가 소년 빼레시디움을 설립하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목적을 소년 단원들에게서 성취해내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레지오가 소년 빼레시디움을 설립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일정량의 유익한 활동을 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단원들을 훈련하고 영성을 불어넣어 그들이 학교생활을 마친 후 일반 레지오 단원 대열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에 있다.

4. 소년 빼레시디움에서 훈화(Allocutio)는 두 배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소년 단원들은 교본에 실려 있는 내용을 스스로 깨우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그의 부재시에는 단장)는 항상 교본을 바탕으로 훈화를 해

야 한다. 교본에서 짚막한 부분을 뽑아 읽은 후 모든 단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쉽게 설명한다. 매주 이러한 방식으로 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여 읽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한다. 그러나 소년 단원으로 있는 기간은 매우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한 단원이 교본을 두 번 반복할 만한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훈화를 한 번씩 빠뜨릴 때마다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된다.

5. 부록 10 [신앙 공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본을 연구할 수 있다면 ‘학교 숙제’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매우 유익한 공부가 될 것이다. 이는 장차 성인 레지오의 기둥이 될 소년 단원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다.

6. 성인 브레시디움에서 채택하고 있는 활동은 소년 브레시디움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소년 단원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활동거리를 매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필요할 것이다. 상당수의 소년 단원들은 성인 단원의 활동으로 여길 만한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미 16세에 도달한 소년 단원에게는 성인 단원들이 활동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의 하찮은 활동을 배당해서는 안 된다. 브레시디움은 다양한 활동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원 한 사람이 한꺼번에 모든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방면에 걸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동료 단원이 하는 활동을 서로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브레시디움의 회합도 더욱 흥미롭게 진행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7. 소년 단원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의 활동, 즉 성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된다.

8. 소년 단원들에게 적합한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기적의 패’를 나누어 주는 일. 주회합 때마다 각 단원에게 하나나 두 개(정해진 수)의 기적의 패를 나누어 준다. 단원들은 이 패를 배급받은 탄약으로 여기고, 가능하다면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또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신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성모님의 군사로서 가장 유익이 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동시에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 단원들에게는 예상되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과 어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야 한

다.

(나) 협조단원을 모집하는 일. 이 활동에는 모집한 협조단원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돌보는 일도 포함된다.

(다) 전례 참석 및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일. 가령, 매주 한 사람씩을 매일 미사에 참례하거나, 어떤 신심 행위를 하도록, 또는 어떤 교우회나 기도 모임이나 가톨릭 단체에 가입하도록 인도하는 일을 배당한다. (라) 어린이들을 미사 또는 다른 성사에 참여시키는 일

(마) 미사 복사

(바)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거나 교리반에 안내하는 일

(사) 입원중이거나 사회 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또는 일반 가정의 어린이를 찾아보는 일

(아) 환자나 시각 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돕는 일

9. 모든 소년 브레시디움은 (바), (사), (아)에 언급된 활동에 각각 적어도 두 명의 단원을 배치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이 세 가지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면 그 활동에 참여한 소년 단원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훈련의 기회가 되며, 그 밖의 브레시디움 활동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한 수준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10. 소년 단원은 성인 성인 단원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 활동할 수 있다.

11. 특수 전문학교 기숙사 내 브레시디움의 경우, 단원들에게 외부 활동을 배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기숙사 장상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의식하여 단원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권이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기타 위험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가) 만일 단원들이 기숙사 외부에 설립된 소년 브레시디움에 소속된 단원이었다면, 그와 같은 통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 미래는 훈련을 통해서만 대비할 수 있다. 만일 지금 그 어떤 자유도 없다면,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질 때를 대비하는 훈련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외 활동은 기숙사와 레지오라는 이중 규율로 관리되기 때문에, 미래를 이상적으로 준비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12. 방학중에 학생들이 고향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회합을 열 수 없는 기숙학교의 경우에도 브레시디움을 세울 수가 있다. 방학 동안 단원들은 고향에 있는

쁘레시디움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13. 소년 뿌레시디움 단원들은 자신들의 개인 성화가 레지오의 주목적일 뿐만 아니라 레지오 활동의 주된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원들이 뿌레시디움이 정한 지향에 따라 기도하고 희생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단원들에게 활동 의무로 배당해서는 안 되며, 또한 회합 때 보고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영적인 훈련은 활동을 대체할 수 없다. 영적인 훈련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활동에 추가해서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14. 단원들은 활동 보고를 준비하는 데 특별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성인 간부에게서 보고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상 흥미롭고 상세한 보고가 많을 것이라 기대하기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의 진행을 재미있고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15. 소년 단원들이, 까다롭고 때로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원대한 사업을 실천에 옮기며 주님의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성인 레지오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면, 자신들이 수행하는 조금은 덜 진취적인 활동을 활기차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젊은이다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사실 레지오 조직의 모든 것은 이처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되면 종교를 단순히 ‘강압된 일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소년 단원들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서도 멀리하게 해 줄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종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뿌리내리게 되면, 제 아무리 훌륭한 학문적 성과를 통해서도 보상될 수 없는 해를 입게 될 것이다.

16. 소년 단원들에게는 수련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들은 레지오 선서도 하지 않고 성인 꾸리아에도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레지오의 기도문, 조직과 회합, 비밀 주머니 헌금 등 그 밖의 다른 모든 면에서는 성인 뿌레시디움의 경우와 똑 같다.

소년 단원에서 성인 단원으로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통상적인 수련기를 거쳐야 한다.

17. 소년 뿌레시디움에서 봉사하는 성인 단원이 이미 성인 뿌레시디움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맡고 있는 소년 뿌레시디움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소년 단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선서 의식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들 자신이 장차 선서를 통하여 완전한 레지오 단원이 되는 날을 고대하게 될 것이다.

18. 어린이들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장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소년 단원은 성인 단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년’이라는 말이 ‘사소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소년 단원들에게는 활동과 신심이라는 높은 이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젊은이들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지오 기도문을 어느 정도 가르쳐준 이후에도 이 모든 기도문을 이해하며 바칠 수 없는 소년이 있다면 그는 지도자가 될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19. 마찬가지로, 소년 단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교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10절에서 논의하였다.

20. 소년 단원들의 부모나 권한을 가진 그 밖의 모든 이들은 레지오가 수행하는 계획에 온전히 협력해야 하며, 계획의 성패는 그들의 협력에 달려 있다. 소년 단원으로 봉사하는 젊은이들은,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앞으로 닥쳐올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시대에 세속과 마귀와 타락한 본성에 맞서 전투를 치를 예수님과 성모님의 용감한 군단’이라 부른 그러한 군단이 되도록 훈련받고 있다. 레지오의 사상이나 조직은 도르래나 지렛대 또는 힘을 배가시키는 기타 장치들과 같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모두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목적 하나하나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원동력은 즉시 효과를 내기도 한다. 즉 소년 단원들이 학교나 놀이터나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과 그 밖의 모든 시간을 거룩하고 실천적인 이상(理想)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린 단원들은 모든 사물을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이로써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세계관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가) 교회에 대하여 : 소년 단원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소속된 군인이라는 것을 일단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싸움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교회의 확장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 아무리 작은 광원(光源)일지라도 방 전체를 밝혀준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임무를 레지오가 배당해주더라도 이 일은 단원들이 보내는 일주일 내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다. 소년 단원들은 뽀레시디움에서 배우고 실천한 바를 자신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낸다.

(다) 이웃에 대하여 :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뵈고 섬기라는 가르침을 배운 대로 실천한다.

(라) 가정에 대하여 : 나자렛 성가정의 분위기가 자신의 집안에 감돌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 집안이나 기숙사에서(쁘레시디움이 기숙사 내에 설치된 경우) : 레지오 정신, 즉 나자렛 성가정에서 성모님이 지니셨던 정신으로 가정일이나 학교일을 돕는다. 도망치는 대신 일을 찾아 나서며,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일을 택하여 세세한 데까지 정성을 쏟는다. 늘 상냥하고 신중하며,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유지한다.

(바) 학교에 대하여 : 소년 단원들은 레지오의 이상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 학교나 선생님, 교과서나 학칙, 공부 등을 달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므로, 학교생활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설령 레지오가 공부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 대개 이것이 자녀들의 레지오 입단을 꺼리는 부모님들의 주장이지만 - 사실은 얻는 것이 훨씬 크다.

(사) '의무'와 '규율'에 대하여 :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젊은이들은 이를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역겨운 것으로까지 여긴다. 그러나 두 요소를 '성모 마리아'와 '레지오'라는 또 다른 두 낱말과 연관시킨다면 이해가능한 아름다운 요소가 될 것이다.

(아) 기도에 대하여 : 기도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부과되는 임무가 아니라 단원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지탱해주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 그리고 레지오의 보고(寶庫)와 교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21. 지금까지 말한 방침에 따라 소년 뽀레시디움을 올바르게 운영한다면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육적 영향력을 미칠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년 뽀레시디움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고유한 모든 자질들을 단원들에게서 발달시켜주어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거푸집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모와 기숙사 장장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교회에는 대들보가 되어줄 것이다.

22. 그러나 소년 뽀레시디움이 단원들에게 알맞은 활동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규율을 소홀히 한다면, 위에 설명한 모든 계획과 희망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뽀레시디움은 기형적인 거푸집이며, 단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레지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뿐이다. 그런 뽀레시디움은 레지오가 그 활동을 금지시켜야 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단순히 교회의 사목적 관심의 한 대상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은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사회 개혁의 참여자로서 교회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젊음은 특별히 강렬한 ‘자기’ 발견과 ‘인생 선택’의 시간입니다. 젊음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루카 2,52 참조) 더욱 많이 받게 되어야 할 성장의 시간입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46)

## 2. 신학교 뵈레시디움

“미래의 사제들이 평신도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평신도들의 의견에 기쁜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평신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형제다운 사랑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뿐 아니라 평신도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인간 활동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능력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 또한 최근에 열린 시노드에서도 다음과 같이 평신도들에게 사목적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제직 지원자들은 평신도들에게,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성소……에 대하여 소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성소를 받은 평신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함으로써 이 세상을 복음에 비추어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평신도들을 깨우쳐 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 59항)

레지오와 같이 널리 퍼져 있는 효율적인 단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사제와 수도자들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레지오에 대한 학문적 지식은 실제 단원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얻는 지식에 비하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학생들을 위한 뵈레시디움을 설립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신학교 내부 뵈레시디움을 설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학생들은 신학교 밖에 설립된 뵈레시디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부 뵈레시디움에서든 외부 뵈레시디움에서든 단원들에게 레지오의 이론과 실천의 기초를 철저히 가르칠 것이며, 사도직 활동에 대한 완벽한 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내용을 전수해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장차 그들이 사목 일선에 배치될 즈음에는, 레지오와 기타 사도직 단체들의 활동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지니고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신학교 내부 브레시디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가) 주회합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한 시간 이내에 주회합을 모두 마치기는 어려우므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써야 한다. 이 교본에 설명되어 있는 회합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나) 주회합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인 활동을 배당하는 일이다. 실질적인 활동 없이 브레시디움은 바르게 존립하지 못한다. 신학생으로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신학교 안에서 적절한 활동거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교본 연구에 특히 비중을 두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간 활동 의무는 최소 한 시간으로 한다. 다양한 활동을 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단점은 풍부한 정신으로 보완해야 한다. 배당받은 활동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성모님과 일치해서 수행한다는 점에 유념하여 완벽하게 이끌어야 한다.

활동 유형은 신학교 사정과 내규를 고려해 선택해야겠지만, 다음과 같은 활동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가정, 병원, 사회 복지 시설을 방문하는 일, 예비신자를 지도하는 일, 성인이나 아동이 성사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활동을 정하든, 신학교 장상들이 제정한 사목 실습 계획과 연관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브레시디움 주회합에서 판에 박은 듯한 활동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보고는 생동감이 넘치고 흥미로워야 한다. 이 점에서 성공하면 신학생 단원들은 보고하는 기술이 뛰어나게 향상되어, 장차 사제가 되어 브레시디움을 지도할 때 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라) 브레시디움은 규율 성격의 임무나 순전히 감독 성격의 임무를 배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활동은 동료 신학생 사이에 레지오 단원이나, 더 나아가서는, 레지오 자체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마) 단원 가입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한다. 강제성을 띠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는 이를 신학교의 관례라고 느끼게 만든다면, 해로운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레지오 단원 가입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뜻에서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브레시디움 회합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 브레시디움 회합과 활동이 신학교의 일과나 내규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레지오의 행동단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일단 변경하기 시작하면 브레시디움의 설립 목적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사실 신학교 브레시디움을 충실하게 운영하기만 한다면, 신학생들이 자신들의 성소나 학업 그리고 소속 신학교의 규율에 대하여 더욱 심화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제37장 활동의 예와 방법

이 장에서는 레지오가 활동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험상 특히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방법들은 다만 권장하는 활동 방법일 따름이며, 특별한 요청이 있다면 특별한 활동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레지오는 모험이 따르는 어려운 활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레지오는 그러한 활동을 탄복할 정도로 잘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활동을 펴게 되면 레지오의 정신에 바람직하지 않은 역효과를 낼 뿐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프레스비디움은 영웅적이라고 일컬을 만한 활동을 어느 정도씩은 펴고 있어야 한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에 진지한 자세로 모험적 활동을 해보겠다는 뜻을 지닌 단원 두 사람 정도를 확보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두 단원에게 활동을 배당하고 그들의 활동이 돋보이게 되면, 동료 단원들은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따라 나서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이 어느 정도 정착 되면,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두 명의 용기 있는 단원은 또다시 다른 새로운 영웅적 활동을 찾아 나서도록 한다. 이와 같이 활동 분야를 점진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단원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초자연적 영신 세계에서는 자연적 한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시야는 더욱 넓게 트이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신앙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도 안 된다’, ‘신중하지 못하다’고 외쳐댄다. 그러나 이 세상이 것처럼 무기력한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영혼들을 돕기 위해 활동을 펼쳐야 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정신을 세상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 높은 이상을 설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조심정보다는 용기이다. 피에 추기경(Cardinal Pie)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중한 태도가 판을 치면, 용기 있는 태도는 도저히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치게 신중하기만 하다가 결국 죽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조심만 하다가 레지오를 죽여서는 안 된다.

### 1. 본당에서의 사도직 활동

레지오 단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본당 안의 참된 공동체 정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 가정 방문 (다음 2절을 참조할 것)

(나) 미사 드릴 사제가 없는 지역에서 주일과 의무 축일에 준전례 의식(말씀의 전례)을 거행하는 일

(다) 교리반 지도

(라)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는 노인들을 찾아가 돌보고, 필요하다면 사제가 직접 방문하도록 주선하는 일

(마) 철야 기도회나 장지에서 묵주기도를 주도하는 일

(바) 교회에 속한 형제회(Confraternity)나 교우회(Sodality)가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단체들도 포함하여 신자들이 가톨릭 단체나 본당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기존 회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돌보는 일

(사) 본당이 주관하는 모든 사도직 활동이나 선교 활동에 협력하여 영혼들을 교회의 보호망 안으로 이끌어 들여, 개인과 공동체가 다 함께 안전하도록 만드는 일 이 밖에도 여러 다양한 본당 활동 중에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인 단원들의 활동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런 종류의 활동으로는 제대회, 성당 청소, 미화 작업, 전례 협조, 미사 복사 등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성인 단원의 활동 의무를 채워 주지는 못하지만, 참가하는 신자들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필요하다면 이러한 의무를 맡아 할 수 있는 신자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지오 단원들은 영혼들을 직접 접촉하는 좀 더 어려운 다른 일들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저도 은총의 어머니처럼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저의 수고와 희생을 바쳐 성경에 나오는 마카베오 가문의 사람들처럼 하느님 사업을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열성이 넘치는 용기로 ‘자기 자신들만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동포들을 구하려고 힘썼습니다.’”(그라트리 Gratry : 성모 성월)

## 2. 가정 방문 활동

가정 방문은 비록 레지오가 가장 먼저 시작한 활동 분야는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즐겨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며,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또한 가장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정 방문 활동은 레지오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원들은 가정 방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가 있다. “교회의 사목적 관심은 단지 목전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평을 확대하고, 모든 가정과 특히 어렵고 비정상적 상황에 놓인 가정들을 위해서 더욱 활동적임을 보여 줄 것입니다. 모든 가정을 향해서, 교회는 진리, 선함, 이해, 희망의 말을 하고, 그들의 비극적 난관을 깊이 동정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가정에 공평한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이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의도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 은총으로 갱신하신 가정의 모형에 접근하게 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가정 공동체』 65항)

쁘레시디움은 가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가정을 방문하는 레지오 단원들은 우선 자기 소개를 한 후 찾아온 목적을 밝힌다. 가정 방문을 통한 활동으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예수 성심상을 모시도록 권유하거나 본당의 교세를 조사하거나 교회 출판물을 보급하는 일 등이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신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레지오의 사도직 활동 영역 안으로 끌어 들일 수가 있다. 간톨릭 신자가 아닌 개신교인들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냉담 교우들과도 접촉할 수도 있다. 이때 앞서 언급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리반에 등록시켜야 할 사람들,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한다. 즉, 모든 가정에 빠짐없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레지오 단원이 가정 방문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태도가 겸손하고 순수해야 한다. 방문 받는 사람들 중에는 단원들이 찾아와서 잔소리를 늘어놓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를 떨쳐 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먼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점잖은 태도로 참을성 있게 우선 그들의 말을 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원들도 곧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것이다.

“평신도 복음화 사도직에서 가정의 복음화 활동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의 여러 시기에,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정은 그에 걸맞게 ‘가정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전체 교회의 다양한 측면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빛을 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이 복음화하고 또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깊이 실천하는 복음을 자녀들에게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정은 다른 여러 가정과 주변 이웃에게 복음 선포자가 됩니다. 혼종혼 가정은 그들이 받은 같은 세례성사의 충만함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의무가 있으며, 어려운 일이지만 일치를 이루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71항)

### 3. 가정에 예수 성심상 모시기

가정에 예수 성심상을 모시는 신심을 전파하는 활동을 펴게 되면, 이 활동이 여러 가정과 남다른 우정을 트고 나누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활동의 필요성을 뚜렷하게 밝혀 주는 목표와 그 실천 방법은 제39장 [레지오 사도직의 주안점]에 실려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어느 한 가정이라도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영성 생활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 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노력을 기울이고 끈기 있게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활동을 배당받은 단원들은 예수 성심께서 허락하신 열 두 가지 은총을 스스로 충만히 입도록 해야 한다. “나는 사제들에게 아무리 굳어진 마음이라도 감동시키는 은총을 내릴 것이다.”(열 번째 은총)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사제의 대리자로 방문하는 단원들에게도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특별히 이러한 은총에 힘입어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힌 대상자를 만나 활동을 하기 위해 용감히 나서야 한다.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을 전파하기 위한 방문 활동은 사람들과 사귀는 방법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맨 처음에는 단순한 신심 전파를 표명하며 방문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방문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게 되어 레지오 활동은 수월하게 전개될 것이다.

성모님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도와 드리는 데 있으므로, 성모님의 군사들이 예수 성심상을 각 가정에 모셔다 드리는 일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므로) 지극히 합당한 활동이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의 가치와 능력을 음미할 줄 알고 항상 그것을 육성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에 위협이 되는 위험과 악을 찾아 내어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발전을 두둔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 가정은 증가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망과 비탄의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따라서 가정 자체에 대한 신뢰, 가정이 그 본성과 은혜로 말미암아 소지하는 풍요에 대한 신뢰, 하느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신뢰의 이유를 돌려준다는 것은 훌륭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오늘의 가정은 그 본래의 지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사도좌 관보 72, 1980년, 791쪽)”(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가정 공동체』 86항)

#### 4. 본당 교세 조사

이 활동은 돌보아야 할 가톨릭 신자들이나 쉬는 교우들, 이른바 교회와 모든 관계를 끊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 조사 활동은 사제의 이름으로 하며, 할 수 있으면 집집마다 방문해야 한다.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부분 기꺼이 대답을 해준다. 방문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는 사제와 레지오 단원들이 장기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주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그것도 매우 손쉬운 시작일 따름이다. 이렇게 찾아낸 사람들 하나하나를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려면, 하느님께서 이 일을 레지오에 맡기신 사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여 불굴의 정신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비록 그 싸움이 아무리 오래갈지라도, 아무리 힘이 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반발이 심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굳어져 있고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레지오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에 덧붙여 강조할 것은, 쉬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가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의 영역에서 우리는 공적인 사명을 부여 받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활동 방법과 각자가 지닌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모님의 이름으로 성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혼들에게 다가서는 것만이 아니라, 특히 그 영혼들을 성모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으로 가득 채우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마리아회 편찬 : 성모학 소론)



## 5. 병원 방문 (정신병원 포함)

레지오가 처음으로 착수한 활동은 극빈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봉사한 것이었다. 한동안은 이것이 유일한 활동이었는데, 이 활동은 갓 태어난 우리 레지오 조직에 하느님의 은총이 넘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모든 빠른 시디움이 이 활동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의 글은 레지오 초창기에 쓰인 것으로, 언제나 이 활동의 특징이 되어야 할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한 여성 단원의 이름을 부르자 그 단원은 활동 보고를 시작했다. 활동 내용은 병원 방문에 관한 것이었다. 보고는 짧았지만 환자들과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단원은 다소 어색해 하면서 환자들이 이미 자신의 친형제 자매들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공동 방문자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로써 두 단원이 짝을 지어 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조(組) 활동은 사도직 활동의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주 한 차례 실시하는 병원 방문 활동을 미루지 않고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후속 보고가 이어졌다. 어떤 병동에서는 새로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보고가 길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활동 보고는 짧고 간결했다. 재미있는 내용도 많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단원들이 환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누구를 방문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활동 보고가 아름다웠다. 그 증거는 매 활동 보고에 들어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단원들이 가장 작은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뜻 나서서 스스로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일을 자신들의 피붙이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환자들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자상하게 보살필 뿐만 아니라 편지를 대신 써 준다는지, 친구나 친척을 대신 찾아가 준다는지, 심부름을 해준다는지 하는 등의 많은 일을 해준다. 아무리 귀찮거나 사소한 부탁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 준다.

회합중에 편지 한 통이 낭독되었다. 어떤 여자 환자가 자신을 방문해 주는 두 레지오 단원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 글 중에 ‘두 분이 제 삶 안으로 들어오신 후부터’라는 구절이 있었다. 마치 통속 소설에 나오는 구절 같아서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병원 침대에 외롭게 누워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또한 이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조직의 힘은 참

으로 놀랍다. 레지오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놓은 다음 그들에게 천사와 같은 임무를 주어,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에게 파견하는 참으로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미카엘 크리든 신부 Fr. Michael Creedon / 끈철리움 레지오 마리아 초대 영적 지도자)

병원 방문 활동의 목적은 환자들에게 그들이 겪는 고통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고 올바른 정신으로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아픈 이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는 기회를 맞게 되므로, 고통은 그 자체로서 큰 은총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St. Teresa of Avila)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자의 삶을 우리도 살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의 은혜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으며, 일단 깨닫게 되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든다.

베드로 알칸타라 성인(St. Peter of Alcantara)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병을 훌륭하게 견디어 낸 어떤 환자의 놀라운 인내에 탄복하여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는데, 성인의 말을 환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분이십니다. 당신이 그 큰 고통을 참아 내면서 얼마나 큰 영광을 쌓아 올렸는지를 하느님께서 내게 보여 주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와 단식, 철야 기도와 편태(鞭笞),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힘든 참회 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환자는 고통을 참아 낸 공로로 영적 보화를 얻게 되는데, 이 보화를 사용할 때는 폭넓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그러한 보화를 환자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 둔다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환자들에게 ‘고통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환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영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가르쳐, 그들이 겪는 고통으로 얻은 보화를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그 즉시 기도가 되고 보속이 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고통 받는 이들이 두 손을 들어 하느님께 탄원한다면, 그들의 손은 적을 직접 공격하는 이들의 손보다 더 많은 적군을 쳐부순다.”고 보쉬에(Bossuet)는 부르짖는다.

만일 환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게 된다면, 더욱더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들의 기도가 필요한 일이나 활동(특히 해당 레지오 단원이 현재 수행 중인 활동)을 추려내어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환자들을 협조단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 아듀포리움 단원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단원들이 모임을 갖도록 하면, 그들이 스스로 새 단원을 모집하기 시

작할 것이다. 그 밖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환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그런데 환자들이 협조단원이 될 수 있다면 행동단원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여러 정신병원 안에 입원 환자들만으로 구성된 브레시디움이 설립되어 있다. 이처럼 브레시디움이 병원 안에 생기게 되면 브레시디움은 누룩의 역할을 하여 병원에 활기를 준다. 이들 단원들은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므로, 이로써 그들 자신도 수준 높은 영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레지오에 입단하여 단원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에 충분한 치료나 치유력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환자 자신들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것은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어디에서나 인정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환자들이 이처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는 한낱 쓸모없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으로 참담한 처지에 빠져 있다가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쓸모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레지오 단원들과 단원들이 방문하는 환자들 사이에서도 고통과 은혜를 서로에게 유익하게 교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힘차게 작용해야 한다. 환자들은 죽을 모든 인간이 마땅히 짊어지게 되어 있는 고통이라는 빛의 일부분을 레지오 단원들 대신에 기워 갚고 있다고 여겨야 하지 않을까? 만일 그 고통의 짐을 인간 각자가 져야한다면 전 인류가 병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세상사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보다 더 많은 고통을 짊어지는 특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에서 레지오 단원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가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의 일부 말고는 없다. 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가운데 사도직 활동이라는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때로는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레지오 단원과 환자는 각자 상대방의 희생으로 기쁘게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로 균등하게 나눠 갖는 그러한 교환이 아니다. 베푼 것보다 백배나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리스도교의 원리에 따라, 각자는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공공 시설 방문과 관련하여 제39장 [레지오 사도직의 주안점] 20절 참조).

“나는 그리스도의 밀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의 맛갚은 빵이 되도록 사자의 이빨에 갈려 곱게 가루가 되어야 한다.”라고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St. Ignatius of Antioch)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십자가, 곧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거룩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몸소 정해 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자렛이라는 거푸집에서 찍어 낸 성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 가르침을 더 굳건히 믿으십시오.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 주시는 온갖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축복하고 찬미하며,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반감을 극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Fiat).’라고 외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Magnificat).’라고 말하십시오.”(마태오 크롤리-부뷔 Mateo Crawley-Boevey)

## 6.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

이 활동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즉 하숙집이나 간이 숙박 시설 또는 교도소 등을 방문하거나 레지오 단원이 상주 또는 출퇴근하면서 수용 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일 수도 있다.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원들이 확보되기만 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레지오이든 즉각 그리스도의 작은 이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 점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가톨릭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선 레지오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험난한 곳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쓸 데 없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이 근거가 있든 없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결국 많은 기도와 조직의 보호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 유능하고 훈련된 레지오 단원들이 할 수 없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어느 지역에 있는 레지오이든 단원들을 통하여 그 지역의 가장 불우한 이웃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들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 활동이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지역 레지오는 이러한 방향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상의 온갖 귀하고 값진 것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열성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레지오 단원들이 불행한 사람들을 찾는 데 쏟는 열성에는 비할 수 없을 것이다. 단원들이 벌이는 이러한 탐색 방문 활동은 불우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서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평소에 이들은 선의의 사람들에 의해서 감화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레지오 단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교도소나 이와 유사한 수용 시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더구나 이러한 활동에 나서자면 단원들은 전투에 임하는 병사와 같은 마음가짐을 지

녀야 한다. 난처한 일에 부딪치거나, 폭언으로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심한 횡포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알’ 같은 주먹이나 ‘대포알’ 같은 폭행이 덮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겁을 내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군사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여러 번 서약했고 또 마음속으로 다짐해 왔으므로, 이제 자신의 서약이 얼마나 신뢰할만한 지가 여기에서 입증되는 것이다. 단원들은 줄곧 이러한 싸움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에 대해서 말해 왔다. 그러니 막상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았는데 불평을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못된 사람이 못된 행동을 하고 가장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데 새삼스러이 놀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요컨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나 위협에 처할 때마다 레지오 단원은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한다. 이 말은 싸움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이겠지만, 영혼을 구하는 싸움에 뛰어든 레지오 단원들을 굳세게 만들어, 다른 이들이 모두 단념하더라도 끈기 있게 활동을 지속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영혼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고귀한 존재다.’라고 말할 때 조금이라도 진실성을 가지고 이 말을 한다면, 그들을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용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누가’ 치려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만일 평신도들에게 어떤 위기에 맞서도록 부탁해야 한다면, 성모님의 군사라는 이름에 맞갖은 자가 되기 위해 분투해온 레지오 단원들 말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말인가? 만일 평신도들에게서 큰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면, 골고타에 계셨던 성모님께 봉사하려고 것처럼 단호하고 것처럼 장엄하게 레지오에 입단한 단원들 말고 누구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말인가? 레지오 단원들을 불러주지만 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지도자가 단원들을 잘못 인도하여 활동을 그르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와 모든 간부들은 콜로세움(Colosseum)의 순교자들에 비교할만한 정도로 단원들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과 같은 타산적인 시대에 이러한 권고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콜로세움 역시 계산적이었다. 그것은 성모님의 군사인 레지오 단원들보다 결코 더 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더 약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훌륭한 신앙 선조들이 보인 계산이었다. 그들은 “사람은 영혼 하나를 위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려야 하는가?” 하고 스스로 물었던 것이다. ‘콜로세움’은 이 교본이 제4장 [레지오의 봉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바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다. 그것은 단순히 감상(感傷)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방치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 활동을 수행할 때의 기본 방침은 극도의

인내심이어야만 한다. 수없이 넘어졌다가 겨우 다시 일어서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처음부터 규율을 내세운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엄격한 방식을 쓰면 얼마 안 가서 치료하려고 했던 대상자들은 모두 놓쳐 버리고, 별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환자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활동은 가치 역순의 원리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활동은 낙관론자조차도 전혀 가망이 없다고 손들만한 사람들, 마음이 비뚤어지고 반응마저 보이지 않아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거칠고 심술궂은 사람, 공연히 밉살스런 사람, 사회에서 배척받은 사람, 감시 대상에 오른 사람, 도시의 퇴물 등, 이런 사람들을 단원들은 모두 끝까지 보살펴야 한다. 반발에 부딪치거나 거부를 당해도, 실패와 배은망덕의 괴로움을 겪는다 해도, 단호한 결심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대체로 이러한 활동들이 레지오 단원들의 평생 과제이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려면 영웅적인 자세와 초자연적인 안목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처럼 힘겨운 노력에 대하여 단원들이 받게 될 너무나도 큰 보상은, 마침내 그들이 하느님과 친구가 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 크신 하느님의 사업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오랜 세월을 참아 내시며  
진흙으로 생명을 빚어  
당신을 찬미하게 하시네!

(뉴만 추기경 Cardinal Newman : 제론씨우스의 꿈)

이러한 특수 활동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 활동이야말로 레지오의 전반적인 정신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활동은 레지오가 교회에 대하여 펼치고 봉사 활동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이 활동이 가톨릭 교회의 원리 하나를 특별히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리란, 아무리 미천한 사람들이라도, 즉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든 또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들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뵈고 흠송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랑의 진실성은 그 사랑이 시험받는 상황 속에서 드러남으로써 입증된다. 그 결정적 시험은 인간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을 가려내는 시금석이다. 인간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며, 그리스도교의 결정적 요체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가톨릭적인 이상이 없이는 존재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 의미와 생명을 부여해주는 뿌리와 분리된 채로도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오직 인간 자체만을 위하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면, 세상만사는 그것이 인간에게 겹보기에 유용한가라는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할 것이며, 결국 인간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교 제도에서 죄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숭고하게 드러내는 신자들이야말로 교회에 가장 큰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악행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대가 말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대는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대는 그 사람을 죄의 길에서 벗어나 덕행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그대가 해주는 말을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그대의 충고를 그가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는가? 그대는 그를 잘 타이르고 그의 마음을 돌려 보려고 정녕코 노력했는가? 가끔 그를 설득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그런 시도를 했는가? ‘여러 번’이라고 대답하겠지만 그 정도로 충분했다고 생각하는가? 비록 평생 그 일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타이르시는 것을 보라. 그분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사가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끊임없이 타이르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 결과는 어떤가? 우리의 행실이 모두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느님께 순명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순명과는 **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타이르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영혼만큼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태 16,26)”(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St. John Chrysostom)

## 7.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어린이들은 분명히 주 예수님의 온화하고도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분

께서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에게 하늘 나라를 약속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마태 19,13-15; 마르 10,14 참조). 특별히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작은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도덕적 정신적 조건들을 밝혀 주는 웅변적인 상징이며 고귀한 표상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사람이다.’”(마태 18,3-4; 루카 9,48 참조)(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47항)

만일 젊은이들을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신앙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빛나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마치 원기를 되찾은 거인처럼 온 힘을 쏟아, 믿지 않는 이들을 회개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단시일에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

잘못된 뒤에 바로잡는 것보다는 잘못되기 전에 보호하는 것이 더 쉽다. 물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중요하므로 레지오는 양쪽 일에 똑같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일 가운데 더 쉬운 쪽, 즉 청소년들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훗날 타락한 어른 한 사람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기울일 수고를 지금 쏟는다면 수많은 청소년들을 불행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어린이 미사 참례** : 어떤 주교가 레지오 단원들에게 제시한 활동 계획서에는 어린이들의 주일 미사 참례 운동이 으뜸가는 활동으로 올라 있었다. 이 주교는 어린이들이 미사에 빠지는 것을 후에 발생할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 보았던 것이다. 어린이들의 명단을 주일학교 출석부 등에서 알아내어 주일 아침에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스스로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가톨릭 신자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분명 그 부모가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사도들은 이 활동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성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간헐적이거나 짧은 기간의 활동으로서는 거의 또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나) **어린이 가정 방문** : 어린이들을 집으로 방문할 때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가정도 어린이를 찾아왔다고 말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열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열정보다 크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에 관한 일을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자녀에게 유익한 것은 소중히 여긴다. 아무리 매몰찬 사람이라도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러한 자식에 대한 뿌리 깊은 본능은 설사 자기 자신은 신앙에 무감각해져 있더라도 아이들마저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아이들 안에 은총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기뻐한다. 따라서 단원이 그들을 직접 찾아갔을 때에는 거칠고 난폭하던 부모들도 그들의 자녀를 찾아왔다고 하면 똑같은 단원이 방문했는데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유능한 레지오 단원들은 일단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도직 활동을 모든 식구가 느끼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자녀에게 진지하게 관심을 쏟으면 부모는 대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부모들의 마음 안에 초자연적인 것의 씨앗이 자라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부모의 집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였듯이, 부모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여는 데도 열쇠의 역할을 한다.

(다) **어린이 가톨릭 교리 지도** :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활동인데, 여기에 가정 방문을 곁들인다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교리반 출석률이 그리 좋지 않은 어린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열심한 어린이의 가정까지도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면, 다른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레지오는 명도회(明道會)의 지회(支會) 역할을 맡아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 8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신자수가 많은 본당에서 레지오 조직을 활용하여 주일학교를 운영한 성공 사례이다. 사제가 강론 등을 통하여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열심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는 불과 5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 새로 설립된 브레시디움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활동 외에 어린이 가정 방문 활동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일 년 후 평균 출석 인원이 600명으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숫자 안에는 같은 기간 동안 평소 신앙에 무관심했던 수많은 성인(成人) 가족들에게 베풀어진 영신적 혜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레지오 단원들은 모든 활동 중에 ‘성모님이시라면 당신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살피실까’를 늘 생각해야 하겠지만, 특히 교리 지도를 할 때에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어른들은 어린이를 대할 때 대체로 참을성이 모자라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어린이들에게 단지 사무적이고 세속적인 분위기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는 교리 수업을 단지 학교 공부의 연장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게 되며, 결국 예상된 수확의 10분의 9는 놓치고 만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어린이들 하나하나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을 보시는 성모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실까?’ 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암기 보조 자료와 시청각 교육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리 교재를 선택할 때에는 교회의 가르침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을 고르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리를 지도하는 사람과 교리를 배우는 사람은 한(限)대사를 받을 수 있다(『대사 편람』 20).

(라) **비가톨릭 학교 또는 공립 학교** : 가톨릭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의 생활은 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레지오는 이 문제에 관하여 각 지역의 교회 관할권자가 승인한 구체 방안들을 받아들여 온 힘을 다해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마) **젊은이들의 신심회** : 좋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위기가 찾아온다.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들은 학교에서 받는 건전한 감화나 보호 차원의 규제 또는 세심한 보살핌으로부터 벗어난다. 청소년들 중에는 가정에서 종교적 지도나 규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학교가 마련하는 보호 수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더 복잡하다. 이들이 학교의 품을 떠나는 시기는 도덕적으로 가장 갈등이 심한 시기이며, 불행하게도 성년이 채 되기도 전에 소년기를 벗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런 과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란 쉽지 않으며, 결국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설사 어른들이 그들을 돌본다 해도 일단 이 과도기가 지나버린 후라면 대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들이 이미 자유가 주는 위험한 매력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받던 지도 감독이 졸업 후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는 레지오의 주관 아래 청소년 신심회를 두거나 일반 신심 단체 안에 청소년 관련 분과를 두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할 무렵 관계자들이 대상 청소년의 명단을 레지오 단원들에게 넘겨주면, 단원들은 그 명단에 있는 청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친분을 맺고 신심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다. 신심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출석이 불규칙한 청소년들은 특별 방문 대상으로 삼는다.

각 단원에게 청소년 신심회 모집 인원을 일정 수 배당하여 그들을 책임 지도하게 하는 것도 좋다. 신심회의 회합이 열리기에 앞서 회원들을 찾아가 참석 의무를 일깨워 주고, 가능하면 연차 피정(될 수 있는 대로 봉쇄 피정) 및 연차 총 친목회 등을 청소년 신심회의 주요 행사로 삼는다.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규칙적으로 성

사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없다.

소년원이나 고아원을 나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살펴야 한다. 그들은 부모가 없거나 나쁜 부모의 희생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바) **청소년 단체, 보이 스카웃, 걸 스카웃, J. O. C(가톨릭 노동 청년회)분회, 양재 교실, 아동 복지회 지부 등의 설립 및 지도** : 이런 활동은 대개 브레시디움 전체의 활동으로서보다는 일부 단원들에게 개인 활동으로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 브레시디움이 위에 설명한 특수 활동 중 어느 한 가지 활동에만 전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브레시디움은 주회합을 결코 걸러서는 안 되며 레지오의 규정에 따라 모든 회합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원들이 특별 활동의 일부로서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의록을 낭독하고 몇 가지 간단한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를 브레시디움의 주회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방식은 비록 회합의 기본 골격은 갖추었다고 할지는 모르나, 교본 제11장 [레지오의 기본 요소]에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레지오 규율의 정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하나의 편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레지오는 단원들이 이러한 ‘특수 활동’으로 청소년 단체의 모임을 주관할 때 시작과 중간과 끝 부분으로 3등분하여 ‘레지오의 기도문’을 바칠 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묵주기도를 바칠 수 없는 경우라면 뗏세라에 실린 기도만이라도 바쳐야 한다.

(사) **레지오의 청소년 지도 지침** : 청소년 신심회나 기타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지도 원칙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운영은 담당 단원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매일 또는 매주 한 번씩 모이는 등 모임의 횟수도 다양할 것이고, 순수한 오락이나 기술 강습에서부터 종교적인 모임에 이르기까지 모임의 양상도 여러 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은 분명 다양한 성과를 거두게 되지만, 그렇다고 항상 최고의 성과만 거두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전적으로 오락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모임이라면, 비록 청소년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들을 바르게 수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놀이 않고 공부만 하는 아이는 바보가 된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이 격언은 이미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아이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좀 더 교훈적이고 사실에 들어맞는 또 다른 격언으로 재치 있게 바뀌어 있다.

브레시디움 조직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나 활동에도 어울릴 수 있는 표준이 되는 조직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조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제시하는 지침대로 청소년 단체를 운영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 단체를 맡고 있는 브레시디움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 (1) 나이는 최고 21세, 최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이 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회원은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만일 모임을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갖는 경우, 이 규칙의 적용 여부는 임의로 정한다.
- (3) 회원은 매일 레지오의 까떼나를 바친다.
- (4) 주간 회의 때 레지오의 제대를 차린다. 뵈레시디움 회합 때처럼 탁자 위에 차리거나, 좀 떨어진 곳 또는 안전하게 높은 곳에 차릴 수도 있다.
- (5) 회의 때마다 묵주기도를 포함한 레지오의 전 기도문을 뵈레시디움 주회합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바친다.
- (6) 전체 회의 시간은 한 시간 반 이내가 되어서는 안 되나, 초과할 수는 있다.
- (7) 적어도 30분은 단체의 업무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시간은 필요하다면 오락에 쓸 수도 있다. 여기에서 ‘업무’란, 예를 들어 축구 클럽이나 그 밖의 스포츠클럽 등을 운영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이란 종교적 혹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8) 회원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성체를 해야 한다.
- (9) 레지오 단원은 회원들에게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되도록 권유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봉사 정신을 마음에 새겨주어야 한다.

“우리는 요한 보스코 성인(St. John Bosco)의 놀라우리만큼 활동적인 삶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하는데, 참으로 영구불변한 중요성을 지닌 교훈이기 때문이다. 그 교훈이란,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또는 신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장상과 아랫사람, 교사와 문하생 사이에 존재해야 할 관계에 대해 성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성인은 장상이나 스승이 원칙상 또는 생각이 없어서 또는 단순히 이기심 때문에 아랫사람과 제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과 거리를 유지하거나 지나치게 품위 있게 행동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교육하고 양성하도록 맡기신 이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태도를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로 생각하였다. 요한 보스코 성인은 ‘사람들이 너를 잔치 주관자로 내세우더라도 우쭐대지 마라. 그들 앞에서 손님들 가운데 하나로 처신하여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고 그다음에 자리에 앉아라.’(집회 32,1)라는 성경 구절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부르느 추기경 Cardinal Bourne)

## 8. 이동 문고

레지오 단원들은 이동 문고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변화한 거리나 공공 장소에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 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동 문고 운영은 레지오 활동 거리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동 문고 운영이야말로 선한 사람, 평범한 사람, 악한 사람 등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 방법이요, 교회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모든 지역 평의회 중심지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동 문고가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동 문고는 책의 제목이 가급적 한 권이라도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진열해야 한다. 비싸지 않은 교회 출판물들을 넉넉히 갖추어 놓고, 레지오 단원들이 직접 맡아 관리한다.

이동 문고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처음부터 책을 구매할 목적으로 진열대를 훑어보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같은 교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신자들, 특별한 생각이나 관심 없이 심심해서 또는 호기심에 이끌린 사람들, 교우는 아니지만 가톨릭에 조금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 관심은 있지만 직접 접촉하기를 망설이던 사람들 등, 참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 문고 주위에 모여들 것이다.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한 레지오 단원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서적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여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친숙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접촉을 통하여 단원들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된다. 상대방이 교우라면 “가톨릭적인 일”을 하도록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며, 교우가 아니라 해도 가톨릭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동 문고를 둘러보고 나서면서 어떤 신자는 매일 미사와 영성체를 하겠다는 결심을 할 것이며, 어떤 신자는 레지오의 행동단원이나 협조단원 혹은 빠뜨리치안 회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또 다른 신자는 하느님과 화해하겠다는 결심을 할 것이다. 또한 가톨릭 교회에 입교하겠다는 회심의 씨앗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이동 문고를 떠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달리 레지오를 볼 기회가 없었던 신자들이 이동 문고가 운영되고 있는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각자 자기 지역에서 레지오를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사람들이 이동 문고를 찾아올 때까지 피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며,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야 한다. 방문의 목적은 반드시 책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들과 ‘접촉’하기 위한 것이면 충분하다. 앞서 여러 절에서 기술했던 방법들을 방문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한 번 만났던 사람들과 이미 시작된 우정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동 문고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오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리에 뛰어나게 정통한 단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단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치곤 한다. 교리 지식을 많이 갖추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리 지식이 모자란다고 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친화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뉴만 추기경의 말처럼 “좋은 인품은 우리를 감화시키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며, 실천적인 행동은 우리도 함께 따라 나서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삼단논법에 의한 것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성과 온화한 마음이 심오한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오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지식 때문에 종종 밑도 끝도 없는 깊은 물속이나 구불구불한 수로로 이끌려 들어가 결국 아무데에도 이르지 못하기도 한다. 반면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고백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튼튼한 기초가 되어 대화를 돕게 된다.

대화중에 나오는 질문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므로, 보통의 레지오 단원들이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혹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브레시디움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 보면 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교회가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등, 박해를 가했다는 등, 열성이 부족하다는 등, 이를 이유로 비난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주장은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논쟁에서 다루어지는 그 어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라도 상대방 적개심을 가지고 비난할 때에는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 이 임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그를 완전히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레지오 단원이 취해야 할 태도는 논쟁을 가장 단순한 요점으로 축소시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지 하나를 남기셨음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이를 종교라고 부른다. 그러한 종교는 하느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이고 명쾌하며 한결같고 그르침이 없어야 하며, 하느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오로지 가톨릭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 다른 단체나 조직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가톨릭 교회 이외에는 모순과 혼란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뉴만 추기경이 힘주어 말했듯이 “가톨릭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주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실하고 올바르게 알려줄 수 없다.”

참된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오로지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그 참된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진리에 대해 이처럼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마치 한 곳만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압도적인 효과를 내며,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 속으로는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가 계속해서 교회의 잘못들을 들먹일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많은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만 간결하고 부드럽게 상기시켜주면서, 그가 가톨릭 교회를 거슬러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은 적어도 여타의 다른 종교 조직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만일 그가 가톨릭 교회가 거짓 종교임을 입증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이 행했던 잘못을 증거로 내세운다면, 결국 그가 증명해낸 것은 단지 이 세상에는 참된 종교가 없다는 사실 뿐이다.

개신교 신자들이 자신의 교파만이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에 와서 그들은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일부 또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다소 온건한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일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한 주장은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며 어떻게 진리를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만일 어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어떤 것은 참되고 어떤 것은 참되지 않다면, 어떻게 참과 그릇을 가려낼 것인가! 더욱이 진리가 아닌 교리를 선택할 위험마저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어떤 것은 분명 진리이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우리가 걷는 여정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길잡이도 되지 못하여, 길을 떠나기 전 우리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놓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논리가 몸에 배일 때까지 되풀이해 익혀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며, 가르침에 모순이 없고, 모든 진리를 갖추고 있으며,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구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성모님보다 더 강력한 협조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도들, 예언자들, 순교자들, 증거자들, 동정녀들 그리고 훌륭한 협조자들이 있어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후이신 성모님은 이 모든 중재자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성모님과 함께 해야만 무엇을 이룰 수 있으나, 성모님은 그들 없이도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모님이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도우려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기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것

이며 남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성 안셀모 St. Anselm : 강론 중에서)

## 9. 군중 속에서의 접촉 활동

사도직 활동은 교회의 풍부한 보화를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도직은 한 영혼의 온정(溫情)을 다른 영혼에게 개별적이며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레지오에서는 이를 ‘접촉 활동’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부른다. ‘접촉 활동’이 미약해지면 그만큼 영향력도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모여 군중을 이루면, 군중은 영혼 대(對)영혼의 접촉을 피하게 되며 ‘접촉 활동’으로 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군중이란 수많은 개인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군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혼들의 집합체이다. 군중 속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다른 사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거리에서든 특정 장소에 함께 모여서든 다양한 형태의 군중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속에서 보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군중을 개인으로 되돌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접촉해야 한다. 성모님이시라면 이 군중을 어떻게 보실까? 성모님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머니이시다. 성모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애태우실 것이며, 그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일에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이동 문고를 운영하는 것이 큰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사도직 활동은 이동 문고와는 별개의 활동으로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군중 속의 영혼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접근하여 신앙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제의한다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선술집에서, 철도나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라면 어디에서든지 이 활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활동에 임하는 레지오 단원은 자신의 말씨와 태도가 가장 중요한 접촉의 수단임을 명심하여 언제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과 다투거나, 설교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거나, 강압적으로 말하거나, 또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단원들은 다만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님이 자신의 빈약한 말솜씨에 힘을 넣어 주시고, 단원들이 펴는 사도직 활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 10. 신자 가정부를 보살피는 활동



이 활동은 방문 성격의 활동의 일부로서나 아니면 독립된 특별 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앙에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정에 가정부로 들어가는 신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흔히 고향이나 고국을 떠난 사람들로서, 단순히 기계 취급을 받으며,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므로, 불행으로 빠뜨릴 사람들과 사귀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가정부들을 접촉하고 보살펴 주는 일은 매우 훌륭한 사도직 활동이 된다.

이런 가정부들에게 레지오 단원들이 매주 주기적으로 찾아와 그들이 잘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준다면, 그러한 단원들의 활동은 그들에게는 마치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방문하는 목적은,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들을 성당의 신심 단체나 모임에 가입시켜 친교를 맺게 하는 데 있지만, 가능하면 레지오에 가입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 활동은 많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성화시키며 새로운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얼핏 생각하면, 하느님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지상 생활은 적어도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위풍당당하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상상하기 쉽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성모님의 실제 생활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 성모님은 가난하게 살면서 마루를 닦고, 빨래하고, 음식을 차리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을 오가는 등, 험한 일을 하셨다. 이처럼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께서 보여주신 모범적 생활은 감히 비천하다고 부를 수밖에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성모님의 두 손은 고된 살림으로 빨갛게 거칠어졌을 것이고 때때로 지치고 과로에 시달리셨을 것이다. 노동하는 남편의 아내라면 누구나 갖는 걱정거리를 성모님도 늘 지니고 계셨을 것이다.”(뵈살-필립 Vassall-Phillips : 그리스도의 모친)

## 11. 군인 또는 직업상 자주 이동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거지를 자주 바꾸는 생활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거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직 활동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가) 민간인은 군사 시설 출입이 쉽지 않으므로, 장병들을 돌보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장병들로 조직된 뵈레시디움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군인 브레시디움이 설립되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나) 선원들을 돌보는 활동으로는 선박을 방문하거나 육상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활동을 착수하려는 브레시디움은 ‘해양 사도회 (Apostolatus Maris)’라는 국제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이 단체는 거의 모든 해양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다) 레지오 단원들은 군대나 선상 규율을 세심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그들의 규정이나 관례를 거스르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실 레지오 단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이 널리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즉, 단원들은 레지오가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이 국군 장병이나 선원들을 모든 면에서 향상시키며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봉사 활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유랑민, 집시, 서커스 단원들도 늘 이동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므로 레지오 사도직 안에서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다. 이민자와 난민도 이 활동 대상에 속한다.

“현대 세계의 큰 변화들 가운데에서 이민은 새로운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민으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매우 늘면서 접촉과 문화 교류의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교회에는 환대와 대화, 도움과 우애를 요청합니다. 이민들 가운데에서 난민들은 특수한 처지에 있으며 마땅히 지대한 관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계에 수많은 난민들이 있고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억압이나 비인간적인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굶주림과 가뭄을 피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교회의 전반적인 사도직 관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37항)

## 12. 가톨릭 출판물 보급 활동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St. Augustine of Hippo)과 이냐시오 데 로올라 성인(St. Ignatius of Loyola)은 자신들이 그 판단을 존중하던 사람들이 추천해준 책을 읽고 높은 경지의 삶에 이를 수 있었다. 이 두 성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는 이처럼 영향력 있는 책을 읽는 일이 삶을 높은 경지에까지 이끌어주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톨릭 출판물을 보급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므로, 그들과 가톨릭 신앙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성인들을 위한 상설 교리반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 줄 수 없다. 그들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속화된 세상의 목소리가 교회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온다. 이러한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속화된 세상을 정복하여 그리스도께 되돌려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명령을 완수하려면 먼저 올바른 가치관과 자세를 지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자세를 말한다.

다른 종류의 홍보 매체를 존중하면서도, 무언가 배워 보겠다는 진지한 자세로 책을 읽는다면, 그러한 독서는 참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감화를 주는 다양한 사상의 원천이 된다. 가끔씩 기분이 내킬 때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독서가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사람들에게 종교 서적을 읽게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고, 흥미가 식지 않게 하려면 책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레지오 단원들이 사도직을 수행할 좋은 기회가 있다.

교회 서적이나 홍보물 이외에 가톨릭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이 정기 간행물들의 발간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시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공한다.
- (나) 편견이나 계산된 침묵을 바로잡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 (다) 신문이나 방송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 (라) 보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건실한 자부심과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 (마) 신자 생활에 길이 도움이 될 내용을 읽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인쇄 매체 이외에도 시청각 자료가 신앙을 전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에 관한 어떤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이 교회의 가르침과 온전히 일치하는지 믿을 만한 곳에서 확인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다. ‘가톨릭’이라 자칭하는 출판물들은 그 이름을 지닐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St. John Chrysostom)의 말처럼 “내용이 이름을 믿을만한 것으로 만들지, 이름이 내용을 믿을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레지오가 시도하고 시험해본 가톨릭 출판물 보급 방법을 보면 : (1) 가가호호 방문하여 구독을 권유하는 방법 (2)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을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 (3) 성당 내 성물 판매소와 서점 운영 (4) 공공 장소에서 이동 문고 또는 간이 서적 판매소 운영 (5) 빠뜨리치안 회원에게 후속 읽을거리를 추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도서 진열대는 눈길을 끌도록 아담하게 차리고 잘 관리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를 흥

보하는 데는 대충대충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 단원들이 교회 출판물을 보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모든 가족들에게 감화를 주는 방향으로 활동하려고 힘써야 한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동반자이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 곁에 계신다. 따라서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주시는 분은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창세 3,15 참조), 즉 저 복되신 한 쌍이시지, 그리스도만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적 성격의 예절에서 마리아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은 하느님께서 몸소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테리앙 Terrien : 인류의 어머니)

### 13. 매일 미사 참례 및 성체 조배 권장 활동

“되도록 많은 신도들이 또 가능한 한 매일 미사성체에 적극 참여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영성체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 누리며 주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하여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같이 영원하는 까닭은 그들이 이 성사에 의해 하느님과 결합되고 또 탐욕을 억제하고 매일 발생하는 가벼운 과오들을 씻어 버리고 인간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범하게 되는 더욱 중대한 죄를 피할 수 있기 위하여 이 성사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좌 관보 38, 1905년, 401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례법은 성체가 성당 내에서 최대의 존경심으로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신도들은 기회 있는 대로 성체 조배를 해야 합니다. 조배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흠숭의 실천, 감사의 뚜렷한 표시, 사랑의 보증입니다.”(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신앙의 신비』 66항)

매일 미사 참례와 성체 조배를 권장하는 활동은 독립된 활동으로서 수행하기보다 레지오가 하는 모든 활동의 한 부분이요 한 묶음인 마냥 늘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추구해야 할 활동으로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8장 [레지오 단원과 성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희생 제사이며 성사인 성찬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께 바치신 모든

것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연계 된 모든 것이 온전히 요약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찬례는 골고타에서 흘리신 피이자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입니다. 그 피는 자비를 간구하며, 그 이슬은 시들어 가는 식물에 활기를 불어넣어 소생시킵니다. 성찬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이자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축복입니다. 성찬례는 생명이며 또한 그 생명에 대한 값입니다. 십자가도, 최후의 만찬도, 설령 이 둘을 모두 합친다 해도 성찬례에 비해 더 값어치 있는 일은 아니었으며, 성찬례는 인류의 모든 희망을 지탱하고 인류의 모든 희망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사는 마땅히 신앙의 신비라 불립니다. 그것은 단지 미사 안에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그리스도교 교의가 요약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사가 신앙의 신비라 불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또한 인류를 저 높이 들어 올리시어 전에 잃어버린 것들을 차고 넘치게 보상해주셨던 그리스도의 저 영웅적인 행위, 저 극적인 사건이 미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사는 순전히 상징의 방법으로 그 극적인 사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완수하셨던 바로 그 극적인 사건을 우리 가운데에서 실제로 실현하고 있습니다.”(드 라 타이외 De la Taille : 신앙의 신비)

#### 14. 협조단원 모집과 돌봄

기도가 지닌 힘의 진가를 아는 뵈레시디움이라면 협조단원 명부를 가득 채우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협조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은 모든 레지오 단원의 의무이다.

협조단원들의 영혼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생각해보라.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의 일부를 레지오를 위해 내어놓았다. 기록해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는가! 레지오는 협조단원들에게 한없이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이 빛을 제대로 값으려면 협조단원들을 완덕으로 이끄는 길 밖에는 없다.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은 모두 레지오의 자녀들이다. 행동단원은 형제 중에 맏형 격이므로, 레지오의 어머니께서는 모든 가정에서처럼 형이 당신을 도와 아우를 보살펴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형인 행동단원이 아우인 협조단원을 보살필 때 성모님은 단순히 감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일로 만들어주시어, 그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두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협조단원의 영혼에는 성덕의 전당이 세워질 것이며, 행동단원에게는 그 성덕의 전당을 지은 건축가가 받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처럼 협조단원을 돌보는 활동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뵈레시디움

의 단원들 가운데 영성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단원 몇 명이 전문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이 활동을 ‘만이’의 정신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죄악과 하느님께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선발된 영혼들로 구성된 군단(Legion) 하나를 당신 주위에 끌어 모으기를 바라실 것은 분명하다. 그 영혼들은 열과 성을 다해 주님과 주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므로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도움과 위안에 의지하실 것이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해야 할까?’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하고 물을 것이다. 주님의 군단에 소속된 영혼들은 드리지만 할 뿐 대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단 하나, 자신들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없고 조금이라도 더 고통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영혼들은 여느 사람들과 같지 않다. 아마도 세속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의 좌우명은 희생이지 자신의 안락함이 아니기 때문이다.”(알프레드 오래힐리 몬시뇰 Msgr. Alfred O’Rahilly : 윌리엄 도일 신부의 생애)

“그 때에는 자비로운 사랑의 산 제물인 작은 영혼들의 군단(Legion)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사탄은 이 작은 영혼들의 군단을 보고 두려움에 떨 것이며, 이 작은 영혼들의 군단은 성모님을 도와 교만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바스러뜨리고 말 것이다.”(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St. Thérèse of Lisieux)

## 15. 선교회를 돕는 활동

선교에 대한 관심은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도나 물질적 후원 또는 선교사 성소 육성 등에 관심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지오 단원들은 ‘어린이 전교회’의 지부를 운영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주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레지오의 행동 단원이 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가령, 협조단원들을 토대로 모임을 만들어) 선교회를 위해 재봉일이나 제의를 만드는 일 등의 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레지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성취한다.

(가) 단원 자신이 성화된다.

(나)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성화하도록 도와준다.

(다) 선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른 활동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가) 브레시디움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단순한 금품 접수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나) 재봉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로써 충분히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단원이 직접 재봉일을 했을 때에는, 신체장애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 단원의 실질적인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교회(Propagation of the Faith), 베드로 사도회(St. Peter the Apostle), 어린이 전교회(Holy Childhood), 선교 연맹(the Missionary Union) 등 4개 기구는 하느님의 백성 안에 보편적 선교 정신을 심어 준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84항)

## 16. 피정 참가 권장 활동

레지오 단원들은 피정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피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아직 피정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이는 교황 비오 11세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가톨릭 액션”(Catholic Action)이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 교계 제도에 봉사하고자 열망하는 일단의 독실한 평신도들은 거룩한 피정에 참여함으로써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명확히 알게 되고 영혼들을 돕겠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사도직 활동의 뜨거운 정신과 근면함과 용기 있는 행위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교황이 사도직 일꾼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때로는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도직 일꾼들이 배출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피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마땅한 숙소를 마련할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정의 은혜를 널리 퍼뜨리려는 레지오 단원들의 노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 실시하는 피정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사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정의 기회를 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 약간의 정원이 딸려 있다면 어떤 건물이든 대개 하루의 피정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두 끼 간단한 식사를 마련하는 비용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하늘 나라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당신 사도들을 달콤한 침묵 피정에 초대 하곤 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 주님께서 이 슬픔의 땅을 떠나 하늘에 오르실 때에는 당신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갈고 닦여 완전해지기를 바라셨다. 그곳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예 전념하였고’(사도 1,14)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틀림없이 이는 잊을 수 없는 ‘피정’이었고, 처음으로 ‘영신 수련’을 예시한 사건이었다. 이 피정으로부터 교회가 덕과 영원한 힘을 갖추게 탄생하였고, 이 피정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현존과 보호 아래 ‘가톨릭 액션’(Catholic Action)의 선구자라 부르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졌다.”(교황 비오 11세의 ‘피정’에 관한 회칙 『Mens Nostra』)

## 17. 예수 성심 단주회(斷酒會) 회원 모집 활동

쁘레시디움이 수행하기에 매우 훌륭한 활동 가운데 하나는 예수 성심 단주회(Pioneer Total Abstinence Association of the Sacred Heart)의 회원을 모집하는 일이다. 예수 성심 단주회가 추구하는 주목적은 금주와 절제를 촉진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은 기도와 자기희생이다. 회원들은 각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고무되어

(가) 선행을 행하려는 목적에서 음주를 일절 금하며

(나) 자신이 지은 죄도 포함하여 방종의 죄를 보속하고

(다) 과음하는 사람들과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자기희생으로 은총과 도움을 얻어낸다.

회원의 기본 의무는



- (가) 평생 동안 모든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지 않아야 하고
- (나) 하루에 두 번 ‘영웅적 봉헌 기도’를 바치며
- (다) 단주회의 회장을 공적으로 착용한다.

‘영웅적 봉헌 기도’는 다음과 같다.

오, 예수 성심이지여,  
 더욱 큰 영광과 위안을 받으소서.  
 저는 당신을 위해 좋은 표양을 보이고 극기하오며,  
 술을 절제하지 못한 죄와  
 무절제하게 음주하는 이들의 회심을 위해  
 보속하오며,  
 평생 동안 술을 끊기로 약속하나이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 브레시디움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가) 단주회의 중앙 회장으로부터 지부 설립 승인을 받는다.
- (나) 단주회의 지부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기존 지부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회원을 모집한다(부록 9 참조)

## 18. 지역별 특수 활동 실시

레지오 단원들은 지역 상황이 요구하고 레지오의 통치 기관이 승인한 레지오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타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교회 관할권자의 지침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새로운 활동을 착수하려면 항상 기획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가톨릭의 깃발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영웅적인 활동은 지역 주민의 사고방식에 가히 전율을 일으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비신자들조차도 깜짝 놀라 신앙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한다. 영웅적인 활동으로 새로이 기준이 형성되면 주민 전체의 생활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떨쳐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겁쟁이는 없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을 반복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도직을 수행할 때입니다. 두려움은 행동하는 정신과 맞지 않으며 올바른 판단력을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두려움이란 두려움은 모두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종류의 두려움은 예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단 한 종류의 두려움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중함에 관하여 말하자면,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고 지치지 않고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신중함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의 신중함, 영의 신중함입니다. 그러나 신중함이 육(肉)의 신중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육은 나약하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비참할 뿐입니다. 그러한 육의 신중함은 신중함도 아닙니다.”(교황 비오 11세의 1931년 5월 17일 담화)

## 제38장 빠뜨리치안회

빠뜨리치안회(the Society of the Patricians)는 1955년에 설립되었다. 이 회의 목적은 사람들의 종교 지식을 향상시키고, 자기 입장을 해명하는 법을 가르치며,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데에 있다. 빠뜨리치안회의 교육 방법은 시험적으로 마련한 것이었지만 오늘날까지 바뀌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교육 방법을 변경하자는 제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들은 교리 강습이나 강의 제도 또는 질의 응답 시간과 같이 이미 굳건히 자리 잡은 교육 방법들로 회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기존 교육 방법들은 각자 본질적으로 고유한 자리가 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즉 성인(成人)들의 종교적 무지, 평신도들의 마비된 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빠뜨리치안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으므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빠뜨리치안회의 교육 제도는 세심하게 균형 잡혀 있다. 따라서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조금만 돌려도 다른 방송이 나오듯이, 이 교육 제도에 약간의 혼선이라도 발생한다면, 전혀 다른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

앞서 말한 기존 방법들에서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전문 강사가 나서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빠뜨리치안회는 레지오 마리아가 쓰고 있는 공동 접근 방법을 이용한다. 회합에 참석한 모든 회원이 신앙 문제를 놓고 함께 적극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지식을 쌓아 가는 방법이다.

빠뜨리치안회가 지닌 다양한 특징적 요소들을 결합해보면 결국 레지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빠뜨리치안회는 레지오의 진정한 자녀라는 것을 보여준다. 빠뜨리치안회는 레지오 조직이 종교 교육 분야에 투사된 형태이다.

이 분야는 성모님이 주관하신다. 예수님을 모셔 오시고 이 세상에 전달해주신 분은 바로 성모님이셨다. 성모님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신다. 성모님의 지배적인 역할은 빠뜨리치안회합 때 중심에 놓여야 할 레지오의 소 제대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빠뜨리치안 회원들은 성모님 주위에 모여 회합을 모든 측면에서 논의한다. 달리 말해, 회원들 가운데 당신 약속대로 현존해 계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대화한다. 이는 고차원적인 기도로서 회합이 단조롭지 않기 때문에 쉬이 할 수 있다. 정상적인 기도로 연속 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빠뜨리치안회가 회원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영성적으로 드높여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단원들에게서 구두 보고를 받는 일

이다. 빠뜨리치안 회합도 마찬가지다. 빠뜨리치안 회합에서 으뜸가는 목표는 참석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구두 발언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회합 준비와 회합 진행은 이 목표를 겨냥해야 한다. 회합은의 분위기는 다정다감하고 감사하는 분위기여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모든 이가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훌륭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여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없을 때 가능하다. 통상적인 공개 토론은 공격, 비난, 조소를 근간으로 전략을 세운다. 공격, 비난, 조소가 빠뜨리치안 회합에서 보인다면 회원들은 모두 떠나고 말 것이다.

빠뜨리치안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이 편함을 느끼는 가족 정신이 자리 잡았다면, 기본 토대는 마련된 것이다. 사슬의 고리 하나가 다른 고리를 끌어당기듯, 회원 한 사람의 발언은 다른 사람들도 발언하게 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회원들은 가톨릭 교리에 대하여 몰랐던 부분을 채우고, 각기 따로 놀던 지식들도 모자이크처럼 짜 맞추게 된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각 회원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더 하나가 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 밖의 여러 면을 살펴보더라도, 빠뜨리치안회가 레지오의 이론과 기술을 응용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뵈레시디움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처럼 빠뜨리치안회를 운영하는 일에도 뚜렷한 소신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소신은 이 회를 이끌어 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줄 것이다.

슬픈 사실은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관해 말하지 않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신앙을 주제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용어가 고안되었는데, 바로 ‘침묵주의(Mutism)’라는 용어다. 수에넨스 추기경(Cardinal Suenens)은 이 침묵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평범한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 분야에서는 다른 이들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진지하게 물어 오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이 찾고 있는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는 형편이니, 결국 가톨릭 신자들은 복음화에 무관심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만연해 있는 잘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교의 특징 자체가 위협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교는 이기주의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 신앙 문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경우에 신자들이 침묵하거나 겉보기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대개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가) 이러한 신자들은 자신의 교리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만한 기회는 무조건 피하려 든다.

(나) 교리 지식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때조차도, 각각의 지식이 마치 교리 문답의 해답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의 부품이나 인체의 각 지체가 적재적소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함께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와 같은 후속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복잡한 상황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모르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른 지식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토막 교리 지식들을 조립했다 하더라도, 부적합한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와 같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할 기본 지식마저도 결여되어 있다. 이를테면 ‘반쪽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종교와는 거리가 먼 환경과 부딪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빠뜨리치안회는 레지오가 관장하는 모임이다. 각 지회(支會)는 하나의 빠레시디움에 소속되어야 하며, 반드시 그 빠레시디움의 행동단원이 진행을 맡아야 한다. 하나의 빠레시디움이 몇 개의 지회를 관장할 수도 있다. 각 지회는 빠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가 승인하는 별도의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수도자(수사나 수녀)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교회 관할권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평신도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레지오 고유 명칭이 그러하듯이 ‘빠뜨리치안’이라는 이름도 고대 로마 용어에서 유래한다. ‘빠뜨리치안’은 귀족(Patricians)과 평민(Plebs)과 노예(Slaves)로 구분되는 고대 로마의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높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빠뜨리치안 회원들은 모든 사회 계층을 단 하나의 영적 귀족으로 결속시키기를 열망한다. 그뿐 아니라, 본래 빠뜨리치안 귀족들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조국의 번영을 위해 책임감이 넘쳐야 했다. 따라서 우리 빠뜨리치안 회원들도 그들의 영적 조국인 교회를 떠받드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회의 규정은 회원들이 반드시 신앙심이 깊거나 본분을 잘 지키는 신자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지만, 다만 가톨릭 교회에는 전반적으로 충실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뿌리깊은 반(反)가톨릭적 성향의 신자들은 입회 대상이 될 수 없다.

주교가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 회합에 참석할 수 없다.

빠뜨리치안 회합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 회합 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회합은 매달

꾸준히 열어야 한다. 도저히 회합을 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회합을 걸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회원이 매 회합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다만 모든 회원들에게 다음 회합을 알리는 연락망을 마련해 놓을 필요는 있다. 한 지회의 회원수는 50명이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50명 정도만으로도 모든 이가 발언에 참여해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 회합 환경

극장처럼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는 배치는 피해야 하나, 그렇다고 무질서한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좌석을 반원형으로 배치한 후 그 앞쪽 공간을 탁자로 채워 둥글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지오의 제대는 탁자 위에 차리며 제대에는 반드시 벅실리움이 있어야 한다.

회합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조명, 온도, 각자 앉을 자리 등 외적인 준비까지 포함된다.

운영 경비는 비밀 헌금으로 충당하고, 회합 때마다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 회합 순서

1. 회합은 빠뜨리치안 기도를 모두 서서 함께 바침으로써 시작된다.

2. 평신도가 맡아서 주제 발표나 담화를 하며 그 시간은 15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물론 제한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 어느 모임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회합에 차질이 생기게 마련이다. 주제 발표는 굳이 그 방면의 전문가가 맡아야 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의 발표는 때때로 너무 학문적이거나 길어지게 되므로, 회합 첫머리부터 순조로워야 할 진행을 오히려 그르쳐 놓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제 발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토론 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사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토론 주제에 대한 사전 연구는 미리 어떤 회원을 지명하여 준비해오게 함으로써만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회합은 회원들이 작업할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회합의 다른 부분은 모두 이 종합 토론을 위한 것이므로, 활발히 진행되도록 잘 이끌어야 한다. 참석하고 있는 모든 회원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없다. 빠뜨리치안회의 과제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발언하기를 주저하는 신자들을 발언하

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가 발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온갖 배려를 다해야 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될 만한 일은 모두 없애야 한다. 잘못되거나 어리석은 발언이 수없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런 발언을 불쾌해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와 같은 태도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고 달래서 발언하도록 만드는 빠뜨리치안회의 목적을 망쳐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엉뚱한 발언을 할 때조차도 말할 자유가 장려되어야 한다. 아무도 교정 해주지 않는 바깥 세상에서는 마치 후렴구처럼 엉뚱한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따라서 회합에서의 주안점은 의견 제시를 한다는 것에 있지, 제시한 의견이 현명하다던가. 올바르다던가 하는 데에 있지 않다. 완벽한 의견 제시가 최고로 돋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의견 제시들이 모여 최고를 만들어낸다. 평범한 의견 제시야말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열도록 훈련시켜 주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볼 때, 발언은 회합의 주관자들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전체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전체를 향해 발언하게 되면, 듣는 이들은 발언한 사람의 말이 끝났을 때 그가 마치 자신과 얼굴을 맞대고 단둘이 대화한 것처럼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럴 경우 즉시 답변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처럼 회원들로 하여금 대답할 만만의 준비를 갖추게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빠뜨리치안회가 의도하는 바다.

그러나 만일 회원들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면, 이러한 심리적 균형은 깨지고 만다. 예컨대, 사회자가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곁들인다든지, 또는 칭찬을 한다든지 해서 회원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쏠리게 한다면 회원들의 마음은 흐트러지고 말 것이다. 또는, 주제 발표를 한 사람이 자신이 제기한 문제점을 다루려고 반복해서 개입한다거나, 영적 지도자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를 해결하려고 매번 발언에 끼어들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토론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본래의 뜻을 그르치게 되고, 소수가 질문하고 소수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이른바 ‘전문가 토론회(panel discussion)’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므로 소심한 사람들이 발언하도록 격려해주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회자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이 나오더라도 참을성을 발휘해야 한다. 발언을 제대로 하라고 주의를 주는 행위는 자칫 회중 전체를 위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빛나간 발언으로 다른 회원들까지 궤도를 벗어나는 발언을 하게 만들 때는 사회

자가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발언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앉은 채로 이야기하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토론이 단순히 대화하는 말투가 되며 무질서하게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발언의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발언을 한 회원보다는 아직 발언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4. 회합을 시작한 후 한 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다. 토론을 중단하기 바로 직전에는 회계 보고를 하고, 더불어 비밀 헌금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즉, 회합이 재개되어 영적 지도자의 훈화가 있는 바로 직후 비밀 헌금 주머니를 돌릴 것임을 알린다.

5. 휴식 시간을 위해서 간단한 다과(차, 커피, 과자 등)를 준비한다. 이는 회합의 중요한 요소이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므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

(가) 회원들이 서로 사귀고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다) 다과를 즐기며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도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접촉 기회가 된다.

휴식 시간에 다과를 생략하고 그 시간을 다른 목적에 쓰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다과를 베풀지 않고 휴식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휴식 시간은 15분 동안 계속된다.

6. 회합이 다시 시작되면 영적 지도자의 훈화가 15분 동안 있게 된다. 이 시간까지 진행된 모든 토론의 내용은 사실상 훈화를 통해서 정리되므로, 모든 회원은 이 훈화를 주의 깊게 들을 것이다. 훈화는 회합의 필수 요소로서 앞선 토론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내용을 올바르게 질서 있게 가다듬어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회원들이 하느님께 더 많은 사랑과 봉사를 바치도록 복돋아 줄 것이다.

훈화 시간을 회합의 끝 부분으로 옮겨, 토론을 거친 더 많은 내용들을 종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훈화는 훈화 이후 계속될 토론을 위한 값진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따라서 회합이 끝날 즈음 훈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의도를 살릴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참석한 회원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의 훈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때에는 훈화에 이어 재개되는 토론에서 ‘해석의 원리’(아래에 설명함)가 작동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7. 영적 지도자의 훈화가 끝나면, 다시 전체 토론을 계속하다가 폐회 시간 5분 전에 토론을 끝낸다.

8. 회합의 끝부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사회자는 전체를 대표해서 주제 발표자에게 간단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박수를 치는 등의 전체적인 감사의 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 다음 회합의 토론 주제를 결정한다. 토론의 주제는 종교에 관한 문제라야 하며, 순전히 학술적이거나 문예나 문학 또는 경제 등에 관한 주제는 피해야 한다.

(다) 그 밖의 공지 사항을 발표한다.

9. 모두 일어서서 마침 기도로 사도신경을 함께 바친다.

10. 회합은 사제의 강복으로 마친다. 강복은 무릎을 꿇지 않고 서 있는 채로 받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의자 사이에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소요 시간은 모두 두 시간이 되도록 한다. 회합 순서 전반에 걸쳐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한 순서라도 정한 시간을 넘기게 되면 다른 순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합의 균형이 깨진다. 회합의 각 부분과 할당 시간을 간략히 보여 주는 회합 순서는 405쪽(최종 본문에서 페이지 확인 필요)에 실려 있다. 전체 토론 내용을 요약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다음 모임이 계속 열리므로 언젠가는 완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뜨리치안 회원은 활동 의무가 없다. 회합에서 활동을 배당해서는 안 되며, 가외로 활동하도록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친밀한 개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을 여러 방면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며, 특히 레지오의 행동단원, 협조단원 또는 아듀포리움 단원이 되도록 권유함이 마땅한 일이다. 빠뜨리치안회를 슬기롭게 이용하면 지역 사회의 모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빠뜨리치안회의 몇 가지 원칙

1. 집단 심리를 활용하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자연스럽게 집단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만일 그 집단이 훌륭한 정신과 규칙을 지니고 있다면 그에 맞는 큰 영향력을 구성원들에게 행사하게 된다.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그 집단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그들은 순전히 수동적인 태도를 멈추고 그 집단의 삶을 공유한다. 집단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집단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 원리를 빠뜨리치안회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드러나 보이지는 않으나 억제할 수 없는 빠뜨리치안회라는 집단의 힘이 가장 뒤쳐져 있는 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을 움직여서, 그들이 이 회합을 통해 듣고 배운 바를 완전히 소화하고, 그 밖의 면에서도 이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내고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집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빠뜨리치안회는 고결한 회원들이 더 고귀한 의견과 사상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보장해 주므로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바로 집단 심리가 작용함으로써, 회원들은 새로운 의견과 사상을 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 빠뜨리치안회는 질적으로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2. 괴로운 침묵의 순간을 참고 기다리자. 토론중 발언이 오랫동안 끊기면 괜히 불안해진다. 그때 사회자는 회원들에게 발언을 재촉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촉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재촉에 의해 생기는 긴장감은 회원들로 하여금 오히려 발언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족들끼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으며, 가끔씩 침묵이 흐를 때에도 편안하게 느낀다는 점을 상기하라. 따라서 발언이 끊기면, 집안에서 가족들이 하듯이 모두 잠자코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침묵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침묵이 일단 깨지면, 대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변한다.

3.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문가에게 곧바로 해답을 얻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는 방법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직접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이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학생들이 전문가의 해답을 절반 정도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들의 실력과 책임감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푸는 두 번째 방법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해 그들 스스로 해

답을 얻게 한다. 학생들이 서툰 해답을 마련하면, 전문가가 나서서 지도해 준다. 그 다음 다시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이 도움을 받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과는 학생들이 실제로 배워 익힌다는 것이다.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서서히 노력하여 해결책을 얻었으므로, 문제 해결에 익숙해지고 해결책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빠뜨리치안회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잘못된 의견이 제시되는 때라도 지도자가 즉시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토론에 맡겨 둘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오류는 토론 과정에서 제거된다. 만일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심각한 오류로 남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잡아 줄 때에도 결코 관련 당사자가 창피를 느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성모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까 하고 생각해 보라.

4.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자. 강의식 제도에서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반응이 드러나므로 질문을 환영한다. 몇몇 사람이 질문을 하면 즉시 강사가 답변한다. 이와는 달리 빠뜨리치안회에서는 질문을 받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류 단락(短絡)과 같이 토론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간주한다. 많은 회원들이 처음부터 의견을 제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회합의 주관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질문하려 할 것이다. 질문에 한 번 답하기 시작하면 토론은 타격을 입게 되며, 결국 토론의 장(場)이 강의실로 바뀌고 만다. 이런 강의실에는 회원들이 끝까지 앉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황금률이 하나 있다.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반드시 자기 생각을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질문을 토론의 흐름 속에 유익하게 포함되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이다.

5. 빠뜨리치안회의 형성 원리.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지식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빠뜨리치안회에서는 덧셈보다는 곱셈에 가까운 현상이 발생한다. 이른바 살아있는 벽돌로 지식을 쌓기 때문이다. 즉 빠뜨리치안회에서는 이미 제시된 다른 모든 의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기존 의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기존 의견들에 영향을 미친다. 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는 수정되고 새로운 생각이 싹을 틔운다. 이처럼 복잡한 활동이 은총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필연적으로 각 회원의 마음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극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만이 아닌 집단 전체에도 공동의 효과를 일으키며, 이를 밑거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 각자의 개성과 생각을 한데 모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긍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다. 침체된 신앙과 종교관을 가진 이들에게 이처럼

힘을 부여하고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준다면,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6. **주관자의 역할.** 빠뜨리치움의 운명이 간부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빠뜨리치안 회도 주관자들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주관자는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주관자가 너무 드러나게 행동하면 할수록 일반 회원들의 역할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학교 교실과 같은 분위기로 빠져 들고 만다. 영적 지도자, 사회자 및 주제 발표자는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밖의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문가나 권위자 앞에서 불편을 느낀다. 그러므로 이 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9)라고 우리 주님께서 몸소 알려주신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지식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주관자들이 눈에 띄지 않으면 앓을수록 토론은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관자들이 꼭 정해진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관자들도 일반 회원과 마찬가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되도록이면 자제하라는 뜻이다.

7. **해석의 원리.** 빠뜨리치안회의 특성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해석의 원리’이다. 대다수의 회원들은 토론 때 행해진 발언들을 이런 저런 이유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한 발언들이 바로 이 해석의 원리를 통해 회원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이는 아무리 진보된 사상이나 까다로운 내용이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장 단순한 회원까지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사상과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뜻한다. 해석의 원리가 지닌 이러한 능력, 즉 가장 많이 배운 사람과 가장 적게 배운 사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은 참으로 값진 보석과 같다. 이제 해석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가령, 주제 발표(또는 어떤 다른 발언)의 수준이 너무 높아, 참석한 회원 가운데 10%만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하자. 따라서 만일 그것이 통상적인 강의 형태로 행해졌다면, 시간만 버린 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빠뜨리치안 회합에서는 내용을 이해한 10%의 회원 가운데 몇 사람이 이를 두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다. 실제로는 그들이 토론을 벌일 때에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 토론을 벌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른 회원들도 발언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내는 밀을 갈아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 내는 것과 유사한 작업이 성취된다. 당초 발표된 내용에 들어 있던 명확하지 않았던 점들이 모든 회원들의 지적 능력에 맞도록 이를테면 해석되고 설명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합이 진행되므로, 빠뜨리치안 회

합에서 발표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손실되지 않는다.

빠뜨리치안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선교 지역과 같은 환경에서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다.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들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방식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톨릭 교리를 온전히 가르쳐야 할 임무가 있다. 빠뜨리치안 회원들이 지닌 ‘해석하는 힘’은 선교사들과 선교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처럼 놓여 있는 깊은 골을 메워준다.

8. **하느님께 일거리를 드리는 일.** 빠뜨리치안 회합에는 벽돌을 많이 가져와 건축물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동하는데 바로 ‘은총의 원리’이다. 은총은 우리가 지닌 자재로 건설할 수 있는 건물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 활동한다.

우리는 계시 종교의 영역에서 완전한 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믿음과 은총이 언제나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지혜로운 주장을 하는 자도 회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보다 덜 지혜로운 발언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설득력이 가장 떨어지는 발언조차도 당신 손에 취하시어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신다. 회원들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의견 차이가 좁혀져 있음을 본다. 생각한 것보다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더 기여를 많기 했기 때문인지, 하느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기 때문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활동은 이루어졌다.

우리는 앞서 말한 내용을 언제나 우리의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빠뜨리치안 회원들보다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그러해야 한다. 우리의 발언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아는 때조차도 모두가 말해야 한다. 미약한 노력이라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가톨릭 신자들이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 몸을 사리고 있는 편이 낫지’하며 우물거리기만 한다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빠뜨리치안 회원들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도맡아 행할 좋은 기회이다.

## 빠뜨리치안회 기도문

(다 함께 서서 바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옵 주님,  
 빠뜨리치안회를 축복해 주소서.  
 저희는 빠뜨리치안 회원으로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오며,  
 또한 주님의 어머니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다가가려 하나이다.  
 저희가 가톨릭 신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로써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저 한 사람의 방심이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케 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소서.  
 저희에게 내려 주신 짐이 비록 무겁지만  
 영광임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인내하게 하소서.  
 저희가 어떤 인간의 무리인지,  
 또한 저희 본성이 얼마나 게으른지 잘 아옵기에,  
 저희는 주님께 저희의 두 어깨를 바치기에도 합당치 않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연약함보다는  
 저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어,  
 불완전한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불러 써 주심을  
 또한 잘 알고 있나이다.  
 이에 저희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기도  
 저희들의 목소리를 합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고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풍부하게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도록 해주소서.  
이 길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강생과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얻어 주신 은총의 열매를  
온 세상이 받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옵니다.  
주님, 그토록 크신 당신의 노고와 수난이  
저희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회합 순서

- 0 : 00 - 빠뜨리치안회 기도문(다 함께 서서 바침)  
평신도 주제 발표(15분 이내)  
0 : 15 - 토론  
0 : 59 - 회계 보고  
영적 지도자 담화 후 비밀 헌금이 있음을 예고  
1 : 00 - 다과, 휴식 시간  
1 : 15 - 영적 지도자 담화(15분 이내)  
1 : 30 - 토론 소개  
헌금(비밀 헌금 주머니를 돌림)  
1 : 55 - 공지 사항(주제 발표자에 대한 감사 표시 및 다음 회합 일자와 주제 등을 알림)  
2 : 00 - 사도신경(다 함께 서서 바침)  
사제의 강복(선 채로 받음)

### 기숙사 및 청소년 지회

정상적인 방식으로 회합을 갖기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 (가) 기숙사 및 사회 복지 시설에 지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나) 회원 모두가 18세 미만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지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단축된 진행 방식(소요 시간 1시간 30분)을 허용한다.

- 0 : 00 - 빠뜨리치안회 기도문 및 평신도 주제발표(5분 이내)

0 : 05 - 토론(40분)

0 : 45 - 휴식 시간(10분) (다과를 생략할 수 있음)

0 : 55 - 영적 지도자 담화(10분)

비밀 헌금은 생략할 수 있음

1 : 05 - 토론 속개(20분)

1 : 25 - 공지 사항(일반 지회의 경우와 같음)

1 : 30 - 사도신경 및 강복(일반 지회의 경우와 같음)

“빠뜨리치안회는 가정사와 같다. 가족 구성원 모두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럼없이 터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은 가정생활에서 맛보는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기에 하느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갈릴래아에서 매일 선교 활동을 마친 후, 일일 학습처럼 믿음을 주제로 생각하고 대화하며 그 적용 방법에 관하여 토론했던 그러한 정신이 빠뜨리치안 회원들의 정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스승이시고, 경이롭고 사랑스러운 교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러한 분이심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에 대해 즐겨 이야기하듯,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우리 정신을 흠뻑 젖어들게 하여 온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시고, 우리는 빠뜨리치안 회합에서 이 통찰력을 다른 회원들과 나누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배운다. 이 회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웃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불타오른다.

빠뜨리치안 회합 안에서, 빠뜨리치안 회합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어 당신 진리를 우리 마음에 더욱 각인시켜 주시고, 교회는 우리가 일해야 할 현장으로 더욱 생생히 다가온다. 회원들의 정신은 다른 회원들의 정신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은 신앙으로 불타오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신다.”(브로피 신부 Fr. P.J. Brophy)



## 제39장 레지오 사도직의 주안점

### 1. 성모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영혼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모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영합하려고 간혹 성모님을 뒷전에 감추는 일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톨릭 교리를 좀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려는 의도는 인간적 사고방식에는 맞을지 모르나, 결코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구원 사업에 있어서의 성모님의 역할을 경시하는 태도는 마치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알려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어 인류에게 주시며, 세상에 드러내시는 모든 일에 언제나 성모님을 개입시키셨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성모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이미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 관해서 몸소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더할 나위 없이 유일무이한 운명을 마련해 주셨다. 성모님의 모든 위대함은 아득히 먼 옛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비롯되었다.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태초부터 구세주에 대한 구상을 하실 때마다 마리아도 함께 염두에 두셨다. 이로써 ‘왜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하셨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대답을 마련해 두셨던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고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따라서 마리아 없이도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흡족하다고 여기시는 구원 계획 속에는 마리아가 들어 있었고,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정하신 순간부터 구세주의 옆에는 마리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하느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구세주의 어머니로 삼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필연적으로 구세주와 일치하는 사람들의 어머니까지 되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처럼 성모님은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드높은 자리를 차지하셨으며, 가장 위대한 이들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하느님의 섭리 안에 독특하게 마련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탄에게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다.”(창세 3,15)고 선포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차 있을 구원 사업

에 관해서 하느님께서 몸소 밝히신 요지이다. 성모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차지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성모님은 태어나시기 전이나 그 이후에도 영원히 사탄과는 서로 원수가 되는 분이시다. 성모님은 피조물이지만 구세주 바로 다음 자리에 계시며, 구세주의 협력자(창세 2,18 참조)이시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월등히 능가하는 분이시다. 어떤 예언자도, 심지어는 세례자 요한까지도, 성모님처럼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였다. 어떤 제왕도, 어떤 지도자도, 베드로와 바오로를 비롯한 어떤 사도나 복음사가도, 어떤 위대한 교황이나 사목자나 교회 박사도, 어떤 성인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아브라함도, 성모님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한다. 그 모든 위대한 이들 가운데에도 성모님처럼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성모님만을 구속 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지정하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생생하고 확실하게 계시되었다.** 예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동정녀’, ‘동정녀와 아기’, ‘여인’, ‘여인과 아기’, ‘임금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모후’ -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한 여인이 우리 구원의 으뜸 요소가 될 것임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확인시켜 준다. 이 예언은 장차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 여인과 관련된 어떤 위대한 일이 마땅히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성모님이 차지하시는 지위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이런 예언이 얼마나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언은 닥쳐올 일의 그림자이며, 공간 대신 시간을 꿰뚫어 보는 것이며, 먼 광경에 대한 희미한 윤곽이다. 필연적으로 예언은 그것이 가리키는 현실보다는 생생하지 못하고 불명확하며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언은 당연히 그 언급된 현실과 서로 잘 어울리는 대응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예언은 사탄의 머리를 바수는 여인과 그 여인의 후손이 함께 (다른 사람은 없이) 구속 사업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그 여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진 채 어떤 형태로든 구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만일 예언이 진실된 것이라면, 또한 (거룩한 교회와 성서가 함께 선언하는 바와 같이) 구원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죽음을 인간 영혼의 본성 안에 일생을 통해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교 체계 안에서 성모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새로운 하와이시며, 그리스도께 매어 계시지만 그리스도께 꼭 필요한 분이시다. 성모님이야말로, 가톨릭 교회가 그 은총에 넘치는 임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부르는 것처럼, ‘모든 은총의 중재자’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만일 예언이 비추어준 바가 참으로 하느님의 나라라면, 성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느님 나

라의 이방인들이다.

마찬가지로, ‘주님 탄생 예고’는 성모님의 막중한 지위를 나타낸다. 이제 예언은 절정에 다다른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리아 안에 다져진 하느님의 뜻은 바야흐로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저 놀랍고도 감동적인 장면을 생각해 보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 ‘평화 회담’에 참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평화 회담을 ‘주님 탄생 예고(the Annunciation)’라 부른다. 이 회담에서 대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을 대표하였고, 인간 쪽은 우리 레지오가 영광스럽게도 그 이름을 받들어야 할 특권을 지닌 한 여인이 대표하였다. 그 여인은 암전한 처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날 온 인류의 운명은 그 여인에게 달려 있었다. 천사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구세주를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천사는 단지 일방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인류의 운명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순간이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류 구원을 열망하고 계셨다. 그러나 이보다 사소한 문제를 다루실 때에도 그러하셨듯이, 이 중대한 일에 있어서도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제로 꺾으려 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서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고자 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쪽이므로, 인간에게 그 은혜를 거절할 자유까지 주셨다. 인류 운명의 순간은 그렇게 다가왔다. 그 순간이야말로 그 때까지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순간이며, 그 이후의 모든 세대가 돌이켜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은 모든 시대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여인은 즉시 수락하지 않은 채 질문을 했고 대답을 들었다. 또 한 차례의 침묵이 흐른 뒤 그 여인은 응답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이 응답은 하느님을 이 땅 위에 모셔 왔으며, 이로써 인류의 위대한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성부께서는 구원 사업이 마리아에게 매이도록 하셨다. 마리아의 ‘예’라는 응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마저도 성모님이 맡으신 역할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교회 박사들에 따르면, 만약 동정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 되기를 거절했다면 성자께서는 동정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취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응답은 얼마나 장엄한 일인가! “하느님께서 나자렛의 여종이 말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한마디에 구세주의 등장이 좌우되도록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리아의 응답으로 낡은 세상은 끝이 나고 새 세상이 열

렸으며, 모든 예언들이 완성되었고, 세상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정의의 태양이 떠오름을 미리 알리는 새벽의 첫 반짝임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의지가 달성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하늘나라가 땅위에 내리도록 하고 인류를 하느님께로 들어 올리는 결속의 관계를 이루어 낸 것이다!”(헤팅겔 Hettinger) 이 얼마나 장엄한 일인가! 이는 성모님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인류의 운명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성모님의 ‘예’로 안전해졌다. 이 점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 응답은 성모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이를 수 없는 가장 영웅적인 행위였음이 틀림없다. 이 응답으로써 구세주께서 성모님에게 오셨는데, 오직 성모님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이 대표하는, 절망에 빠진 온 인류에게도 오신 것이다. 성모님은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의미하는 그 모든 것도 함께 가져다주셨다. 믿음은 바로 인간의 참된 생명이다. 그 밖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러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과 앞으로 이 세상을 이어갈 무수한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라. 이 모든 이들의 믿음은 그 동정녀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었던 것이다.

**성모님 없이는 참 그리스도교가 있을 수 없다.** 온 인류는 성모님이 가져다주신 이 무한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땅히 동정 마리아를 복되다 일컬어야 한다. 이 땅위에 그리스도교를 가져다주신 성모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경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성모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보거나, 또는 그보다 더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모든 은혜가 성모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만일 그날 밤 마리아가 신의 응답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켰더라면, 그들을 위한 구원 사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 아닌가? 응답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구원 밖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말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온종일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마태 7,21 참조).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생명의 은총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성모님이 그 은총을 얻어 주셨기 때문이며, 성모님의 응답 안에 그들도 함께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세례성사는 동시에 성모님의 자녀로도 태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하

는 태도는 -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구원은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께서 공동으로 마련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는 성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나라야 한다.

**성자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 없이는 은총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 하느님께서는 그 밖의 일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보다 앞서 오는 사명을 준비시키실 때에도 복되신 성모님의 사랑에 넘치는 방문을 통해 그를 성화시키셨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성모님을 문전에서 되돌려 보낸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되돌려 보낸 것이다. 그들은 성모님을 내쫓으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세주도 함께 내쫓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선택된 백성을 대표하는 목동들이 ‘모든 백성에게 약속된 분’을 찾아냈을 때, 그분은 성모님과 함께 계셨다. 만일 목동들이 성모님에게서 등을 돌렸더라면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의 공현(公顯) 때, 주님은 세 사람의 동방 박사를 통하여 세상의 이방 민족들을 맞아들이셨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성모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뵈 수 있었다. 만일 그들이 성모님께 가기를 꺼려했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이다.

나자렛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던 일들이 마침내 성전에서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성부께 봉헌하셨을 때, 어머니의 팔에 안겨 어머니의 손을 빌려 봉헌하셨다. 아기는 자기 어머니에게 딸려 있게 마련이므로, 어머니 없이는 이 봉헌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성모님의 동의 없이 공생활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갈릴래아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성모님의 요청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물을 술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는 장차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입증해줄 기적과 놀라운 행위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표징이었다.

**예수님과 아담, 성모님과 하와, 십자가와 나무.** 구원 사업이라는 엄숙하고도 극적인 사건은 골고타에서 막을 내린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고, 그 밑에는 성모님이 서 계셨다. 성모님은 단순히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또는 우발적으로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구세주 강생(the Incarnation)에 참여하셨던 때와 똑같은 자격으로 그곳에 계셨다. 성모님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거기에 계시면서, 당신의 아드님을 모든 인간을 위해 바치는 데 동의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대신하는 성모님의 동의와 봉헌 없이 당신 자신을 성부께 봉헌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

이자 동시에 그 두 분의 희생 제사였다.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으로 성모님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 아드님과 더불어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당신 아드님에 대해 가진 권리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시면서, 하느님의 심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신 힘이 닿는 만큼 당신 아드님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말해야 마땅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항상 성모님과 함께 일하신다.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딛었던 저 위대한 순간인 오순절을 조금 더 가까이서 바라보자. 그 자리에는 성모님이 계셨고, 바로 성모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교회라는 신비체 위로 내리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모든 위엄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1역대 29,11)를 지니시고 거주하려 오셨다.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돌보기 위해 쏟으셨던 봉사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대해 모두 재현하신다. 이 원리는 오순절에도 적용된다. 오순절은 주님께서 다시 당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일종의 새로운 공현(公顯)이었기 때문이다. 성모님이 첫 번째 공현에 반드시 계셔야 할 분이셨다면 이 새로운 공현에도 꼭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모든 일에도 성모님은 필수적인 존재이시다. 어떤 기도이든 어떤 활동이든 어떤 노력이든 만일 성모님을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과는 부합하지 않다. 성모님이 그 기도나 활동이나 노력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은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를 지나친 생각이라 여겨 혹자는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총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들도 사실 은총은 받는다. 성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철저한 무지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변명이며,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성모님께 이 무슨 푸대접이 되겠는가! 더구나, 이렇게 얻는 은총은 풍성히 넘쳐흘러야 할 은총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에, 그러한 이들이 벌이는 필생의 사업은 대개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성모님께 어떤 지위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깜짝 놀라서 일개 피조물에게 것처럼 보편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하느님께 무례를 범하는 일이라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모님이 그러한 힘을 갖는 것이 하느님께서 흡족해 하신 일이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믿는 일이 어떻게 하느님의 품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된단 말인가? 만유인력의 법칙이 하느님의 권능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들리겠는가? 이 중력의 법칙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자연계 전반에 걸쳐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총의 세계에서 성모님도 그만한 힘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일이 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인

가? 하느님께서 자연을 위하여 세우신 법칙이 그분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면, 마리아를 위하여 세우신 법칙도 하느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모님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어떤 이들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와 성삼위나 성인들에게 바치는 기도를 어떤 비율로 분배해야 하는가? 성모님께 얼마만큼의 기도를 바쳐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까?’ 하고 물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성모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면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며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의구심들은 모두 하늘나라의 일을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 성인들 각각의 성상들이 따로따로 놓여 있어서 성상 하나를 향해 몸을 돌려 예의를 갖추면 필연적으로 다른 성상들은 외면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진면(眞面)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장 간단하고 동시에 가장 고결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은, ‘모든 것은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성모님과 함께 드리십시오.’라고 그들에게 권고해주는 데에 있다. 그렇게 한다면, 겉보기에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신심 행위를 성모님께 드릴 때조차도 계산하고 따져 조정해야 하는 수고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행동은 성모님의 ‘피앗(Fiat : 그대로 이루어지소서)’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 탄생 예고(the Annunciation)’에서 찾아야 한다. 천사가 마리아께 주님의 탄생을 알리던 그 순간, 온 인류는 그 대표자인 마리아와 결합되어 있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신 대답에는 인류 전체의 대답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리아 안에 온 인류가 들어 있었기에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인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자신 안에서 모습을 갖추시도록 일상을 살아갈 뿐이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주님께서 꼴을 갖추시는 일은 성모님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일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본래 강생 사건이 다시 표출되는 것이자 그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실 때 성모님의 동의와 어머니로서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개개인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실 때에도 성모님의 동의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 탄생 예고’에서 시작되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됨으로써 구원을 얻어다 준 바로 그 희생 제사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마음과 의식을 다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성모님이 그 당시 행하셨던 일들을 공적으로 승인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성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무한한 은혜를 부끄럼 없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그 공적인 승인이란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할까? 단 한 번 승인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 대답을 찾는 일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실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평생 하는 행위는 바로 성모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에 성모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 않겠는가? 따라서 대답은 앞서 이미 주어진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성모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성모님과 더불어 주님을 찬미하라.**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늘 성모님을 마음속에 떠올리도록 하자. 우리의 지향과 뜻을 성모님의 지향과 뜻에 결합하여, 우리가 하루 동안 행한 행동과 바친 기도가 모두 성모님과 함께한 것이 되게 하자. 어떤 경우라도 성모님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성부께 기도하든, 성자께 기도하든, 성령께 기도하든, 성인에게 기도하든, 모든 기도는 언제나 성모님과 일치하여 바치는 기도여야 한다.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되풀이하신다. 성모님과 우리는 입을 맞춰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어느 부분에서든 성모님이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성모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성모님과 공동으로 소유한 그 모든 것을, 우리와 성모님이 함께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삶이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성모 신심을 통해 우리는 인류 구원 사업에서 성모님이 수행하셨고 날마다 수행하고 계시는 역할을 훌륭하게 인정하게 된다. 이는 또한 성모 신심을 가장 손쉽게 수행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성모님께 얼마나 드려야 하나?’하고 말하는 사람들과 ‘성모님께 드림으로써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이들의 의심을 해소시켜준다. 그런데 몇몇 가톨릭 신자들조차 ‘이건 지나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모 신심이 어떤 점에서 건전한 이성애 배치된다는 것인가? 또한 어느 면에서 전능하신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인가? 후자와 같은 잘못된 생각은 흔히 자신들은 하느님의 존엄함을 지키고자 애쓴다고 말하면서도 하느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실천에 옮길 의사가 없거나, 성경을 하느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48-49) 하고 노래하는 성경 구절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견



된다.

이처럼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풍요롭고 충만한 성모 신심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 말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런데 성모님을 축소시키거나 격하시켜 말한다면 성모님을 그저 미지의 존재로 보이게 할 뿐이다. 성모님을 실체가 없는 환영으로 보거나 또는 감상(感像)이 만들어진 일종의 관념으로 보는 일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며, 차라리 성모님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나 당연한 일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모님이 차지하고 계신 본질적인 지위와 성모님의 마땅한 권리를 온전히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진술은 은총의 지배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성모님의 역할에 관해 차분히 살펴볼 수만 있다면, 결국 성모님의 발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레지오의 목적은 마치 거울처럼 성모님을 반영하는 데에 있다. 레지오가 이 이상에 충실하다면, 성모님의 더없는 은총을 나눠가져 신앙이 없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던져 줄 것이다.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St. Thomas de Aquino)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대 알베르트 성인(St. Albert the Great)은 복음의 ‘주님 탄생 예고’ 부분을 주석하면서 매혹적인 구절을 남겼는데, 마리아의 아드님께서는 존귀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무한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매에 무한한 완전함이라는 속성이 들어있다면, 그 열매를 맺은 나무 역시 그 안에 무한한 완전함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은총의 세계에서 무한한 힘을 지닌 분으로 공경한다. 성모님은 당신이 지닌 은총의 보편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의 어머니로 여겨지신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사실 덕분에 성삼위를 제외하고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광활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초자연적 힘을 지닌 분이시다.”(보니에 Vonier : 하느님의 어머니)

## 2. 무한히 값진 영혼들을 끝없는 인내와 친절로 돌보아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활동을 수행할 때 딱딱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따뜻한 마음씨와 다정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서는 활동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버림받은 사람이나 죄지은 사람들을 만날 때 더욱 그러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남을 자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만, 그런 것들조차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킨다. 그렇지만 얼마 못가서 곧 후회하고 만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런 잘못과 후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누구나가 겪게 되는 잘못된 언행의 반복은,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평소에 생각 없이 내놓는 거친 말씨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왜 미리 깨닫지 못하는가! 꽃은 부드럽고 따뜻한 곳에서는 활짝 피어나지만 쌀쌀한 공기 속에서는 움츠러든다. 훌륭한 레지오 단원이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정성껏 도와주겠다는 자세로 활동에 임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가장 완고한 사람의 굳어진 마음마저 무너뜨려, 5분도 안 되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만든다. 이런 결과는 훈계와 잔소리로는 일 년 동안 활동해도 거두기 힘든 성과이다.

다루기 힘든 사람들은 대개 곧 분노를 터뜨릴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들을 더 자극하면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반항심만 키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우선 자극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오직 끝까지 참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들을 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집회 24,20)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복되신 성모님께 드리는 말씀이다. 모든 레지오 단원은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불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물론 레지오 단원이 아닌 사람들은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씨와 다정한 태도이다. 단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방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를 벗어나면 아무 결실을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의 영역 밖에서 헤맨다면, 그들이 펴는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시는 성모님과의 유대가 끊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맨 처음 설립된 브레시디움의 이름이 ‘자비의 모후’였는데,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은 이 브레시디움이 처음 착수한 활동이 ‘자비의 수녀회(the Sisters of Mercy)’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단원들은 자신들이 브레시디움의 이름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상 성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성모님은 레지오가 지향해야 할 특성을 처음부터 밝혀 주셨다.

일반적으로 레지오 단원들은 죄에 물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 나선다.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칠 줄 모르고 쫓아다니다 보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갈 수도 있다. 때로는 단원의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에 오히려 시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평범한 죄인들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즉, 이들은 극도로 사악하고 이기심의 화신이고 끝없이 배신하며 하느님께 대한 증오심과 종교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에게서는 부드러움이란 찾아 볼 수 없으며, 은총의 빛이나 영적 생활의 흔적도 없으므로, 하느님도 염증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추악한 사람들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시어, 성체를 통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시며 하늘나라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은 결코 그러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사악하고 추악한 영혼을 참으로 원하고 계신다. 그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므로 당신의 성자,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추악한 영혼과 함께 계신다.

레지오 단원이 이런 경우에 꾸준히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하는 이유를 벤슨 몬시뇰(Monsignor R. H. Bens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어떤 죄인이 자기가 범한 죄로 그리스도를 쫓아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준 놀라운 가르침에 따르면, 그 죄 많은 영혼은 그리스도를 붙잡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욕을 보이고 있으므로(히브 6,6 참조) 그런 영혼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원수의 손아귀에 붙잡혀 계시다니!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활동에 확고한 근거를 준다. 주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야 할 영혼들을 평생 지칠 줄 모르고 찾아 나서야 하는 이 유례없는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구호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죄인들의 사악한 영혼 안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을 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곁을 지키려는, 거센 불길과 같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모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 하더라도 풀무질로 타오르는 불길에는 견디지 못해 녹아떨어지듯이,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더라도 꺼질 줄 모르는 사랑의 불길에는 견디지 못하고 부드러워지게 마련이다.

어떤 대도시에서 극도로 타락한 죄인들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레지오 단원에게 그 동안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레지오 단원으로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꺼렸던지, 지독한 죄인들은 많았으나 가망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에게 여러 번 다그쳐 물으니, 마침내 그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고 인정했다.

바로 그날 저녁 그 단원은 심한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그는 그날 자신이 가망 없다

고 말한 그 사람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다. 그리고 3분 동안의 대화 끝에, 가망이 없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막달레나 소피 바라 성녀(St. Madeleine Sophie Barat)의 전기에는 한 영혼을 충실히 돌보는 모습을 매우 감동적으로 그린 일화가 있다. 성녀는 하느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한 여인을 23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했다. 성녀가 아니었다면, 이 한 마리 길 잃은 양은 우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줄리아(Julie)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줄리아는 외롭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성질이 까다롭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여느 사람과는 하나도 닮은 데가 없다 고들 하였다. 또한 거짓말을 잘하므로 믿을 수 없었고 천박하고 성미가 난폭하였다. 그러나 성녀는 ‘착한 목자’께서 위험한 지경에 처한 이 영혼을 찾아 돌보도록 맡겨 주신 것으로 생각하여 정성껏 보살폈다. 성녀는 그 여인을 양녀로 삼아, 200통 이상의 편지를 써서 보냈으며, 그 여인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도 줄리아는 성녀를 중상하고 여러 번 배은망덕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성녀는 참고 견디고 용서에 용서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 결국, 줄리아는 성녀가 선종한 지 7년 후에 하느님의 평화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모나한 Monahan : 성녀 막달레나 소피 바라)

### 3. 레지오 단원의 용기

어떤 일이나 그 일이 요구하는 독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속에서도 용기가 없는 사람은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레지오에서는 단원들에게 도덕적 용기를 특별히 요구한다. 레지오가 수행하는 활동은 대부분 사람들을 접촉하여 그들이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활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반감이나 오해와 부딪치게 된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포탄처럼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대결하려 들지 않고 피해 가는 레지오 단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비 오듯 쏟아지는 포화 속을 용감하게 헤치고 전진하는 수많은 단원들이 있는가 하면, 욕을 먹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앓을까, 비난을 받거나 이상한 눈총이나 받지 않을까, 또는 사람들이 설교가나 성인이라고 된 척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몸을 사리는 단원들도 있다. 이들의 태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빠한 사도들'(사도 5,41 참조)과는 달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이라고 수군댈까?' 하고 걱정하며 움츠러든 모습이다.

흔히 체면이라고 부르는 이런 소심한 태도가 그대로 통용되도록 방치하면, 영혼들을 위한 모든 활동은 보잘것없이 되고 만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비극이 쉽게 눈에 띈다. 어디를 가나 가톨릭 신자들은 수많은 이교도나 비 가톨릭 신자나 또는 냉담자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알려 주려고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첫 번째 시도에서 100명 중 다섯 사람은 입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섯 명은 장차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키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은 지니고 있으나, 체면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실천으로 옮기는 힘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독소는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즉, '좀 더 신중하자',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노력해 보았자 소용없다', '누가 먼저 착수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등등의 그럴듯한 이유가 그것이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다 보면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레고리오 타우마투르구스 성인(St. Gregory Thaumaturgus)의 일화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임종이 가까웠을 무렵 성인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구 안에 신자가 아닌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어떤 사람이 즉시 “열일곱 사람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죽음을 앞둔 성인은 그 숫자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가 이 곳 주교가 되었을 때의 신자 수와 똑같은 숫자로군.” 하고 말했다. 이 성인은 신자 수가 단지 열일곱 명밖에 없을 때 주교가 되어, 열일곱 명 외의 모든 주민을 신자로 만들었을 만큼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실인가! 그 후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하느님의 은총은 메마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런 업적을 똑같이 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얻을 수 있다. 대체로 믿음은 모자라지 않은데 용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레지오는 이러한 점을 깊이 깨달아, 단원들 사이에 체면을 앞세우는 그릇된 정신이 퍼지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이를 막아야 한다. 우선 건전한 규율의 힘으로 체면만 생각하는 마음을 억제하도록 한다. 둘째로, 군인이 비겁한 행동을 경멸하듯이 레지오 단원에게도 체면을 앞세우는 행동은 경멸받아 마땅함을 교육을 통해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체면을 차리려는 충동에 맞서면서 활동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참된 희생과 용기로써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랑도 충성도 규율도 결국 아무 쓸모가 없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깨달도록 만들어야 한다. 용기 없는 레지오 단원! 베르나르도 성인(St. Bernard)의 다음의 표현은 바로 그러한 단원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머리이신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지체인 나는 이토록 나약하다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될 때만 싸움에 나선다면 무슨 공로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실제로 용기가 없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실밥 한 가닥 좁는 일조차도 귀찮게 느껴질 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실밥을 좁는다면, 열성이 넘칠 때 하는 훌륭하고 고상한 행동보다도 훨씬 더 큰 공로를 쌓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약점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심으로써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는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St. Thérèse of Lisieux)

#### 4. 상징적 행동

활동에 대한 레지오의 기본 원칙은 단원들이 어떤 종류의 활동을 맡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반드시 성모님의 정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미리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어느 선을 정해 놓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에 부딪치게 되면, 그 어려움을 과장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부분의 활동은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근면함과 능숙함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레 짐작하면, 그런 우리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 일은 정말로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정말 불가능한 일에 부딪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때 우리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일이든, 아니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든 간에 활동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것이므로, 몸을 움츠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활동 가운데 4분의 3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버려 두는 결과를 가져오며, 결국 과감하게 나서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큰 싸움을 하나의 전쟁 흉내 정도로 변질시키고 만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원리는 노력을 으뜸가는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갖 노력을 기울여 활동하라는 것이다. 자연적으로나 초자연적으로 불가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이 가능으

로 이끄는 열쇠가 된다. 오직 이러한 태도를 지닐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세는 하느님과 함께 하는 정신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확실히 응답하는 것이다.

자신을 갈고 닦아 불굴의 정신을 지니려고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영적인 이득만을 꿈꾸는 것은 순전히 환상일 따름이다.

레지오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의 정신 무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39단계로 나누어 놓으면, 그 하나하나의 단계는 가능한 것이 된다.” 얼핏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을 레지오는 조직의 한 구호로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우 슬기롭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기반이 되며, 성공 철학의 요점이라 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면, 몸도 마음처럼 해이해지고 결국 활기를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어렵게 느껴져도 무조건 불가능한 일로 판단해 버린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앞서 소개한 슬기로운 구호가 말해 주듯이,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한 단계씩 정복해야 한다. 단 한번 뛰어서 지붕에 오를 수는 없으나 계단을 통해 한 계단씩 올라가면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면 그에 맞서면서 우선 한 계단만 올라서라. 그 다음 계단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지 말고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계단을 오르면, 두 번째 계단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얼마 안 있어 곧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계단을 오르면 세 번째 계단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끝내는 맨 위 계단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마도 위의 구호가 말하는 39계단을 모두 오르기도 전에(39라는 숫자는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다), 불가능이라는 관문을 이미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섰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선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보다 덜 효과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경우, 우선 적극적인 자세만이라도 드러내야 한다. 이는 단지 기도를 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종의 행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동은 비록 실제적 가치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목적을 지향하거나 또는 그 목적에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취하는 도전적이고 적극적

인 자세를 레지오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불러 왔다. 이 상징적 행동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 낸 ‘불가능’을 쳐부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상징적 행동은 믿음으로 무장된 우리의 정신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와도 극적인 싸움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예리고’의 성벽은 마침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일곱 번째가 되어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여호 6,16-20)

## 5.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레지오의 근본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지 않은 레지오는 생명력이 약한 다른 단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단원들을 크게 변화시키는 레지오의 정신은 아무나 들이마시라고 여기저기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다. 단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 레지오 정신은 오직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의 산물이다. 이 정신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의 질적 수준과 방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갇박거리다가 결국 꺼져 버리고 만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펴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시작하기조차 꺼려한다.

(나) 어디에나 활동거리는 많이 있지만, 이를 찾아내는 능력과 적극성이 부족하다.

(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반대와 혹평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때때로 브레시디움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기피하거나, 또는 단원들에게 별로 뜻도 없는 활동을 배당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단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레지오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관장하도록 조직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레지오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레지오이다. 군대가 전투에 참가하기를 거부한다면 군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브레시디움의 단원들이 있다면, 이들은 레지오 마리에 단원이라는 이름을 지닐



자격이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영적 신심 행위만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레지오 단원의 의무를 채우지 못한다.

활동을 하지 않는 브레시디움은 ‘강력한 사도직 실천’이라는 레지오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직에 심각한 상처마저 입힌다. 그런 브레시디움은 레지오라는 단체가 어떤 사업을 맡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는데, 이는 결코 사실과 다르다. 레지오 조직 자체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그 능력이 활동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다.

## 6. 활동은 브레시디움이 주관한다

활동은 브레시디움이 배당한다. 단원들은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되는 활동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임의대로 골라서 레지오의 이름을 내걸고 수행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데도 활동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사실상 레지오 단원은 어떤 의미로는 항상 복무중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연히 찾아내어 수행한 활동이라도 그 다음 주회합에서 보고할 수 있으며, 브레시디움이 인정하면 정상적인 레지오 활동이 된다. 다만 이런 자유 활동을 처리할 때 브레시디움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바른 뜻을 지닌 단원들 중에도 많은 단원들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활동은 제쳐놓고 다른 일을 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원들은 브레시디움이 배당한 활동은 하려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른 일을 찾아 헤매며, 결국 레지오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지 않을 때 레지오의 규율은 파괴되고 만다.

단원은 브레시디움에 대하여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즉, 단원은 브레시디움으로부터 확고한 지시를 받는 심부름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심 성의껏 수행하고 그 결과를 브레시디움에 보고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점이 흔들리게 되면 얼마 안 가서 활동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브레시디움을 위태롭게 하는 싹이 자라게 된다. 그리하여 멋대로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중대한 잘못이 생기게 되면, 비록 그것이 레지오 조직을 무시한 단원 개인의 소행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지오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된다.

남달리 열성적인 단원들 중에도 규율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활동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억제한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위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라 분석해 보는 것이 옳은 일이다. 다만 이러한 종류의 불평은 별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규율의 근본 취지는 단원들로 하여금 활동을 수행하도록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지, 결코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레지오 활동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규율의 취지를 오직 단원들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규제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 7. 짝을 지어 방문 활동을 하는 것은 레지오의 규율을 보호한다

방문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해야 한다. 레지오가 이러한 규정을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레지오 단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개 이런 보호 장치는 거리에서보다는 가정 방문의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둘째, 짝을 지어 방문 활동을 하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 냉대를 피하기 어려운 장소나 가정 방문의 경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체면치레나 수줍음을 이겨내는 데는 짝을 지어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 활동에 관한 규율을 지키도록 해준다. 두 단원은, 짝지어 활동하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약속된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된다. 혼자일 때는 쉽게 활동 시간을 바꾸거나 아예 미루어 놓고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다른 단원과 시간 약속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이 피곤하거나 날씨가 나쁘거나 특히 마음 내키지 않는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자연히 꺼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등 온갖 부정적 심리가 고개를 쳐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방문은 무질서해지고 불규칙하게 되며, 따라서 별 성과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마침내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한 단원이 공동 방문자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통상 관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받은 활동이 이룰테면 병원 방문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활동일 때는, 혼자서라도 활동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방문자가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거나 방문해야 할 곳의 환경이 염려되는 곳이라면 단독 방문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단원 혼자라도 방문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예외적인 경우임을 알아야 한다. 짝을 이룬 두 단원 중 한쪽이 연거푸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브레시디움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두 단원이 짝을 지어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대상자를 함께 방문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두 단원이 각기 다른 병실을 맡아 각기 다른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돌보는 것은 규칙에도 맞는 일이며 방법상으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8. 레지오 활동의 본질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레지오는 지나치게 과격한 사회 개혁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레지오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행동이어야 한다. 그것은 각 단원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 열정과 사랑의 정신으로 발전해 나간다. 단원들은 꾸준하고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전체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활동을 조용하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수행한다. 레지오는 세상의 죄악을 직접 억눌러 없애려는 활동보다는 가톨릭 신앙의 원리와 가톨릭적 온정을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만들어, 죄악이 자라기에 알맞은 토양을 제거함으로써, 저절로 소멸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레지오는, 비록 속도가 느리더라도, 신자로서의 열성적인 생활과 가톨릭적 이상을 사람들 안에 꾸준히 퍼뜨리는 데 참된 승리가 있다고 본다.

레지오 방문의 본질은 활동 대상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점을 조심스럽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레지오 단원들이 상대방의 결점이나 들추어내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레지오의 방문 활동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가정을 방문하는 활동이나 그 외의 전반적인 단원들의 움직임이 의심의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단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레지오 단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서가 아니라 마치 조직을 위해서 정탐 활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오해를 하게 되어 단원들의 방문을 꺼려하게 될 것이므로, 레지오의 참된 가치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활동을 관리하는 간부들은, 어떤 활동이 레지오의 본질과 공통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 활동의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레지오의 이름을 결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여러 특수 사업 단체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과 싸움을 치르고 있다. 레지오 단원들은 필요한 경우에 이런 단체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 자격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렇더라도 레지오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전통과 고유한 활동 방법을 충실히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9.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지오 단원들은 호별 방문을 할 때,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하는 것은 마음에 두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집집마다 빠짐없이 방문해야 한다. 만일 몇몇 집만 골라서 방문한다면, 그 사람들은 레지오 단원들이 자신의 집만 골라 찾아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든다고 반발할지도 모른다.

교우 가정이 아니더라도, 방문해서는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성당을 다니지 않는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신앙을 강요하는 자세보다는 단지 우정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하며, 가족들과 서로 알고 지내려고 모든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교우가 아닌 가정에서도 대개는 친절하게 맞이해 준다. 이와 같이 방문 활동을 통하여 개인접촉이 이루어지면, 하느님께서 이 활동에 섭리하시어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을 당신 품안으로 불러들이는 은총의 계기로 삼으실 것이다. 비신자들은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가톨릭 신자들과 우정을 쌓음으로써 온갖 편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틀림없이 가톨릭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단원들은 가톨릭 신앙에 대하여 묻거나 책자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일에서부터 더욱 중요한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10.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은 금지한다

물질적 원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경험상 분명히 밝혀두지만 현웃가지를 가져다주는 행위도 물질적 원조의 범주에 해당된다.

레지오가 이러한 규율을 정했다고 해서 어려운 이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행위 그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레지오로서는 구호 활동을 직접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힐 따름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착한 행위이며, 더구나 초자연적 동기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면 더욱 가치 있는 선행이다.

구호 사업을 하는 여러 훌륭한 단체, 특히 세상에 널리 알려진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the Society of St. Vincent de Paul)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레지오는 빈첸시오 회가 보여 준 모범과 그 정신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기꺼이 밝힌다. 사실상 레지오의 뿌리는 빈첸시오 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레지오는 이 단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레지오는 빈첸시오 회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레지오 조직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이 아닌) 영적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렇게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물질적 구호 활동과는 실질적인 면에서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호 단체 회원들의 방문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방문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웃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의 대

상으로 비쳐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지오의 쁘레시디움이 물질적 원조를 하는 단체라고 알려지게 되면, 즉시 그 활동 범위가 극도로 좁아진다. 물질적 도움은 다른 단체들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레지오의 경우에 그것은 오히려 열린 문을 스스로 잠그는 자물쇠가 될 뿐이다.

(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불만을 품게 되며, 그로 인해서 레지오의 감화력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다) 물질적 원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라도, 레지오는 물질로써 영혼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활동은 구호 사업을 특수 활동으로 삼고 있는 단체들에게 맡겨 두자. 그 단체들은 구호 사업을 통해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레지오 단원들은 구호 사업을 통해서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레지오의 규율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쁘레시디움이 이 점에 있어서 잘못 이 끌리면 곧 복잡한 사정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에는 레지오에 아픈 상처만을 남겨 주게 될 것이다.

개개의 단원들이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자선을 베풀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레지오 단원의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분석해 보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레지오에 입단하기 전에 물질로써 남을 도운 일이 없었던 단원들을 놓고 생각해 보자. 그는 레지오 활동중에 물질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방문 활동을 수행하는 당일에는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른 날 ‘개인 자격’으로 다시 찾아가서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다. 이 경우 그는 분명코 물질적 원조에 관한 레지오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며, 같은 활동 대상자를 두 번에 걸쳐 방문한 것은 단지 규정 위반을 면해 보려는 구실을 만들려고 한 것뿐이다. 그는 맨 처음 레지오 단원으로서 방문하였고, 레지오 단원으로서 그 활동 대상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를 레지오 단원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규정 위반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구실도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단원의 물질적 원조는 단순히 레지오 활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며, 레지오로서는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단 한 명의 단원이라도 규율을 어기고 분별없는 행위를 저지른다면,쁘레시디움 전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다는 소문은 쉽게 퍼져 나간다. 여러 번 반복해서 도와주어야만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만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소문은 널리 퍼지게 마련이다.

레지오 단원이 어떤 사정으로 꼭 물질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생겼다면, 레지오의 규칙을 어기고 레지오를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령, 친구를 통하여 익명으로 물품을 전달하거나 또는 적당한 구호 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나서지 않고서도 도와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자신의 선행에 대하여 하늘에서 보상받기보다는 현세에서의 보상을 더 바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활동중에 만나게 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단원들은 그러한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적절히 원조해줄 수 있는 다른 단체에 알려 주어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레지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았는데도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얻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레지오가 그 모자란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 물질적 원조를 하는 일은 레지오의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딱한 사람을 돌보아 줄 만한 개인이나 단체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동정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일깨워 주는 활동을 통하여, 현세의 일시적 유익이 아닌 영원한 선(善)을 영혼들에게 베푸려는 열성과 노력이 훨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그리스도교 교리 교육에 관한’ 교황 비오 10세의 회칙 『Acerbo Nimis』)

물질적 원조에 관한 레지오의 규정이 너무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이 그 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서 밝혀졌다. 따라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봉사 활동은 물질적 원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봉사 활동은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마땅하다. 때때로 레지오가 신앙에 대한 문제에는 민감하지만, 막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단원들의 봉사 활동은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을 이해와 협력으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허용되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사랑을 쏟고 봉사 활동에 열성을 다함으로써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 11. 돈을 걷는 일

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레지오 단원의 방문 활동을 이용하는 것은 물질적 원조와 같은 범주에 속하므로, 이를 금지한다.

모금 행위로 돈을 건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선을 이루는 분위기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이는 ‘한 푼에는 약삭빠르나, 한 냥에는 어리석다.’는 격언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 12. 레지오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을 돕기 위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 13. 모든 영혼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자

종교 활동의 핵심은 자신의 사도직 활동 영역 내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열망에 있다. 따라서 쉬는 교우이든 신자 가정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타락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활동 대상으로 삼는다.

아무리 완고한 냉담자라 해도 레지오 단원들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아무리 버림받고 가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레지오 단원이 용기와 믿음으로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레지오가 중대한 죄악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레지오에 주어진 사명의 뜻을 지나치게 좁게 만드는 것이므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레지오는 길 잃은 양이나 도둑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들을 찾는 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본 의무만을 겨우 이행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이끌려면 많은 인내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 돌봄이 바로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웨이버 신부(Fr. Faber)는 “한 분의 성인(聖人)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 백만 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예수의 성녀 데레사(St. Teresa of Avila)는 “설사 성인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고자 힘쓰는 한 영혼이 평범한 삶을 사는 수천 명보다 하느님 앞에 더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는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삶은 얼마나 충만한 삶인가!

#### 14.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나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

방문 활동을 통하여 만난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활동을 하다보면 단원 자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단원들은 ‘과연 내가 저렇게 훌륭한 형제(자매)를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 레지오 단원들은 그런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신심을 전해 주어, 판에 박힌 그들의 신앙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단원들이 사도직 생활을 활발하게 실천한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의 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성인을 다루든, 죄인을 다루든,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원들이 사람들을 방문할 때는, 빈약한 영성을 지닌 한 사람의 신자로서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 군단의 대표로 나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이 성모 마리아의 군단은 ‘자신들의 사제들과 주교들과 교황,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그리스도 왕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관한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Ubi Arcano Dei』) 군단이다!

#### 15. 막연한 사도직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어떤 활동을 수행하든 확실한 선행을 많이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많은 선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며,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많은 선행을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적은 선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후자의 길을 따르는 레지오 단원은 사실상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단원이 이미 끝마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활동은, 레지오의 이상에 비추어 보면, 이제 겨우 시작한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그로 인해 다른 단원이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위험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단원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이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결국 단원 생활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 16. 감화의 비결은 사랑이다

레지오 단원은 자신이 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과 반드시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만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친교가 없는 활동은 알맹이가 없거나 우발적인 성과만 낼 뿐이다. 특히 예수 성심께 대한 가정 봉헌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방문 활동에 나설 때, 단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이 운동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활동이고 은총의 원천이기는 하지만, 이 운동의 성과를 올리는 것만을 방문 활동의 주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수 성심께 가정을 봉헌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찾아간 후에 그 가정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면, 이는 레지오의 관점에서 볼 때, 의도했던 결실을 거의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가정을 각기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방문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더 많은 레지오 단원들과 쁘레시디움들이 이 방문 활동에 투입되어야 한다.

## 17. 레지오 단원은 활동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뵈고 그리스도께 봉사한다

어느 곳을 방문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단지 불행한 이들에 대한 박애 정신이나 순전히 인간적인 동정심만으로 방문 활동이나 접촉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각자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이웃 안에서 우리 주님을 뵈고 합당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이웃은 온 인류이며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기에, 우리는 악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천성적으로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사람 등, 모든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가장 작은 형제들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치 왕자와도 같이 공손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레지오 단원이 방문 활동에 나설 때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듯한 태도나 동등한 입장에서 방문한다는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또는 종이 주인을 찾아뵈는 마음가짐으로 방문해야 한다. 방문자가 은덕을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정신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마치 은인이라도 된 듯한 태도로 방문을 해서는, 초자연적으로나 인간 본성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방문하면, 아마 선물이라도 들고 가야 겨우 참고 만나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겸손한 태도로 문을 두드리는 양전하고 호감

이 가는 레지오 단원들은, 비록 물질적인 선물은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기쁘게 환영받을 것이며, 참된 우정의 발판을 손쉽게 마련하게 될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옷차림이나 말씨도 검소하고 단순 소박해야 한다. 그와 같은 자세야말로 그의 방문을 받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장벽을 허무는 일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18. 성모님은 레지오 단원을 통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사랑하고 보살피신다

어떤 레지오 단원이 매우 불쾌하고 힘들었던 방문 활동에서 마침내 성공을 거둔 후,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레지오의 활동 방법을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다. 상대방의 애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먼저 애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원들은 방문 대상자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이 방법 이외에는 그들을 진정으로 감화시키는 다른 방법도 수단도 비결도 없다. 아우구스티노 성인(St. Augustine)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다른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여라.”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St. Francis of Assisi)의 전기에서 체스터튼(Chesterton)은 이 독특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모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보았을 뿐, 한 모습으로만 나타난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성인에게 인간은 늘 인간이었다. 사막 한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늘 인간이듯이 뻘뻘한 인파 속에 섞여 있어도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상실하지 않았다. 성인은 모든 인간을 경배하였다. 인간 모두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모두를 존경하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성인은 개인적으로 비범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교황에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천개(天蓋) 아래 호사롭게 앉아 있는 시리아의 술탄에서부터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강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성인의 불타오르는 갈색 눈을 들여다보고서, 성인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에게 관심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나’의 개별적인 내적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성인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아봄으로써 가능하다. 우리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뵈는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불타오른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성모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실제 몸에 쏟아 부으셨던 바로 그 사랑이 레지오 단원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당신 아드님의 신비체에 쏟아 부어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레지오 단원들이 이 일을 수행할

때 성모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사랑의 불꽃이 단원들 안에 희미하게나마 타오르기 시작한다면, 성모님은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부채질을 해주실 것이다.

## 19. 겸손하고 정중한 레지오 단원에게는 어느 집이나 문이 열린다

경험이 없는 단원은 “첫 번째 방문”을 불안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신입 단원이든 경험이 많은 단원이든, 앞 절에서 설명한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가정의 대문을 여는 열쇠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방문하는 단원은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집주인의 호의로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마치 높은 어른을 찾아뵈을 때와 같은 정중한 몸가짐이어야 한다. 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방문 용건을 말하고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대개는 문이 활짝 열리고 들어와 앉으라는 권유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때 레지오 단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집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을 가르치거나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친교의 씨를 뿌리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친교의 씨를 뿌릴 수 있다면 지식을 전달하고 영적인 감화를 줄 길은 열린 것이다.

‘사랑이 내뿜는 향기는 남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없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시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잡아 주지 않고, 믿는 마음을 내보여도 아무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뒤하멜 Duhamel)

처음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무례하게 굴더라도 온순하게 굽히고 들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처음부터 어른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반발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자녀들이 교리 공부를 잘하는지 또는 성사를 잘 보고 있는지 묻는다면 좋을 것이다. 어린이들을 통하게 되면 부모들에게도 효과적인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

방문을 마치기 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간단히 인사하면서 다시 한 번 만났으면 한다고 말하면 자연스런 작별 인사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길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 20. 공공 시설을 방문할 때의 몸가짐

레지오 단원이 공공 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치 개인 집을 방문하는 손님처럼, 그 곳 책임자의 호의로 방문이 허용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 시설의 관계자들은 방문객이 비록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가 직원의 안내를 무시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을까 해서 늘 방문객을 살피게 된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러한 점에서 결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규정된 시간 외에 방문해서도 안 되고, 약품이나 그 밖의 금지된 물품을 환자에게 가져다주어서도 안 되며, 간혹 그 공공 시설에 내부 갈등이 있을 때 어느 한편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직원이나 다른 환자들이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런 하소연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고충을 없애는 일에 레지오 단원이 나서서는 안 된다. 물론 단원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들어주면서도 어려움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거기에서 끝내야 한다. 혹시라도 진정으로 분노할만한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단원은 이 문제를 빠르게시디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빠르게시디움이 안전 장치 역할을 맡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빠르게시디움은 상황을 모든 면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조언해줄 것이다.

## 21. 레지오 단원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지침을 세심하게 지키려는 자세는 단원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단원의 마음가짐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단원이 이웃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마치 다른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하는 기준이나 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레지오의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모순된 일이다. 단원 자신과는 여러모로 다르다고 해서, 자신이 내놓은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맞선다고 해서,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레지오 단원은 그들을 지탄하는 비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고발당했던 성인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도 있다. 하느님 홀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다. 그라트리(Gratry)는 단원이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렸을 때 초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도덕적 유산을 전수

받지 못하고 태어났으며, 이 고단한 삶의 여정을 걷기 위한 양식으로 그릇된 처세술과 잘못된 본보기만을 유산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그가 받은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편,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며 절제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요즘 사람들은 대개 이런 무리들을 비판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레지오 단원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런 사람들도 니코데모를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그는 남몰래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께 여러 친구들을 소개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등 주님께 많은 것을 해드렸으며, 마지막으로 가서는 주님의 장례를 돕는 유일무이한 특권을 누렸다.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것은 레지오 단원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다. 단원들은 성모님의 부드러운 눈길이 그 모든 정황과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경자 에델 퀸(Edel Quinn 1907-1944)은 남의 결점이 눈에 띄었을 때 반드시 성모님과 의논하는 것을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삼았었다.

## 22. 악평에 대한 태도

이미 이 교본 여러 곳에서, 가장 훌륭한 선의를 가진 단원들조차도 비난을 받지 않을 까 두려워 제대로 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원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레지오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레지오는 이 목표를 통해 더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레지오 단원은 사도직 생활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며, 그 때문에 가장 모범이 되는 평신도 생활을 표방한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모방하려는 흥미로운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 본능 덕분에, 레지오 단원들의 행동이나 삶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과 정도로 그 모범에 접근해보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단원들의 모범이 훌륭했을 경우,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단원들이 보여준 모범을 선한 마음으로 드러내놓고 본받으려 애쓸 것이다. 그러나 더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으로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원들이 보여준 모범이 낮은 수준의 신자 생활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시처럼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며, 어느 자극이 그러한 것처럼, 불편함과 저항이라는 건강한 반응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양심을 찌르는 그 자극은 이내 곧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의 행동과 삶을 보고도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원들의 모범이 훌륭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의 활동이 다소 비평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활동 방법상의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다지 당혹해 할 필요가 없다. 사도직 활동 노력을 지배해야 할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위대한 원리를 늘 마음속에 새겨 두도록 하자. “오직 사랑과 친절만이 사람을 정복하는 길이다. 자존심을 다치게 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조용하고 슬기롭게 다가서야 한다. 오로지 정복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공격을 가한다면 반발만 살 뿐이다.”(쥘루에 보르시 Giosue Borsi)

### 23.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영웅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노력했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레지오 단원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며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망감을 지닌 채 활동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선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죄라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는 무한한 결실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위로를 얻을 뿐 아니라 더욱 불굴의 정신으로 노력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죄 하나가 일련의 비참한 결과들을 끝없이 야기하는 어마어마한 사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 공간에서는 질량(質量)이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별들이 균형을 이루는 자연 법칙에 한몫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주님, 공책 위를 달리는 저의 작은 펜이 일으키는 지극히 미세한 파장마저도, 당신만이 아시고 헤아리시는 방법으로, 천체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함께 공헌하며 그 일부를 이룹니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성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관념은 지성 세계 안에 살면서 참으로 복잡한 현상을 보입니다. 이 지성 세계는 물질 세계보다 훨씬 위대한 세계이며, 그 광대하고, 풍부하며, 그리고 가장 다양한 복합체 안에서도 조밀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와 지성 세계에서처럼, 그보다 무한히 위대한 도덕 세계에서 모든 것이 결합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쥘루에 보르시 Giosue Borsi) 각각의 죄는 이 도덕 세계를 흔들어 놓으면서 모든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 이 과정의 첫 번째 고리가 눈에 보이는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로 끌고 들어갈 때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죄는 죄로 이어진다. 같은 논리로, 하나의 죄를 예방하면 다른 죄도 예방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를 막음으로써 세 번째 죄가 예방되고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다보면 언젠가는 죄의 예방이라는 이 사슬이 온 세상에 연결되어 영원히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일 우리가 회개해서 선한 삶을 사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뒤를 따라 하늘나

라로 행진하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무리를 대표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지나친 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대죄 하나를 막는 일은 지극한 정성으로 평생을 바쳐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은총을 추가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죄 하나를 막는 일은 일종의 운명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순간에 영적인 성장 과정이 착수되어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모르는 삶에서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 24. 십자가의 표지는 희망의 징표이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절망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레지오가 맞서고 있는 세력들이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이 아니다. 절망에 빠질 위험은 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도움이나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심적 고통 때문이다. 친구들도 부족하고, 좋은 이웃들도 없고, 사용하던 방법도 실패한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오, 얼마나 많이 수확할 수 있는데, 나에게서는 무딘 낫밖에 없고, 우리 진영에는 부족한 것투성이고, 십자가만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구나!’

영혼들에게 선행을 베풀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한다면 이러한 조바심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 조바심은 우리의 적대자들이 만들어낼 수 없었던 종류의 좌절감을 일으킬 수 있다.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주님의 사업에는 주님 자신의 표지(標識)인 ‘십자가 표지’가 늘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 표지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활동이 초자연적인 성격의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며, 그러한 활동에서는 참된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자네트 스튜어트(Janet Erskine-Stuart)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성스러운 역사인 교회의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또한 당신이 해를 거듭하여 직접 체험한 바도 살펴보십시오. 그때에 당신은 하느님의 일이 이상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우리가 상상하거나 선택한 대로 이루어진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가!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상적인 조건이 될 수 없게 방해하면서 일의 전망까지 망쳐버릴 듯 보이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요, 결함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검증된 상황이며, 수고를 가중시키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수고에 힘이 되어 일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연료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성공을 이끌어내시고, 불완

전한 도구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심으로써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일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서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겪는 그러한 어려움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어려움이 우리의 태만이나 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지오는 그 단원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엇을 행해서 발생한 잘못으로부터 은총을 끌어내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 25. 성공은 기쁨이며, 실패는 늦추어진 성공일 따름이다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활동은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다. 성공은 그 기쁨 가운데 하나이다. 실패는 일종의 보속이자 믿음을 단련하는 훈련이며, 생각이 깊은 레지오 단원에게는 더 한 차원 높은 기쁨이다. 그는 실패에서 오로지 더 큰 성공이 늦추어져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말하지만, 단원들의 방문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담은 미소로 맞이해줄 때, 단원들이 즐거움을 느낀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혹의 눈길로 쳐다본다면, 이때 단원들은 더 깊은 안도감을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는 여태껏 단원들이 놓치고 있던 심각하게 잘못된 무엇인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레지오의 경험에 따르면, 설령 신앙생활을 다소 소홀히 한 탓으로 복잡한 상황에 있는 신자들이더라도 진실한 가톨릭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다면, 호감을 보이며 다정하게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관심과 호의를 보인다. 따라서 만일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십중팔구 그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26. 뵤레시디움과 단원들의 결점을 보는 태도

뵤레시디움이나 개별 단원의 결점에 대해서는 참을성을 발휘해야 한다. 열성이 부족하고, 진보도 거의 없고, 세속적인 단점까지 뚜렷하게 보이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결점들이 보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자.

레지오 단원들은 레지오 조직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으며 레지오의 기도와 신심의 영향도 틀림없이 받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발견되는데, 만일 레지오가 전혀 없었더라면 그들의 수준은 과연 어떠했을까? 더욱이 훌륭한 뵤레시디움 하나를 구성하는데 요구되는 적합한 일꾼 몇 사람도 양성해낼 수 없는 교회 공동체라



면, 그 영적 수준은 또 어떠할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원들과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사도직 활동이라는 누룩을 집어넣어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르게’(마태 13,33 참조) 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사도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일꾼들을 끈질긴 인내와 온화한 태도로 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정신이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더디게 성장한다. 그러니 어찌 사도직 정신이 당장에 성숙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실패해버린다면, 이 유일한 치유법마저 사라지고 만다.

## 27.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레지오는 단원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 레지오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신분을 레지오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질책을 받을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

## 28. 단원들에게 금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의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단원들에게 금품이나 그에 상응한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게 되면, 횡수가 잦아지고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레지오가 기꺼이 단원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쁘레시디움이나 그 밖의 레지오 기관이 소속 단원과 관련된 특별한 행사 때 축복이나 위로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영적 꽃다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 29. 레지오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레지오는 지역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만으로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는 데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단원 자격을 제한하면 쁘레시디움은 배타적으로 흐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동

체의 형제애를 위태롭게 만든다.

(나) 새 단원 모집을 보면, 대체로 단원이 친구를 입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쁘레시디움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배타성을 띠게 된다면, 이러한 친구들의 입단이 어렵게 된다.

(다) 각기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쁘레시디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거의 예외 없이 입증되고 있다.

### 30. 다리를 놓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레지오는 확고한 목표에 따라, 세상의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나 수없이 많은 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 싸움은 레지오의 기본 단위 조직인 쁘레시디움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레지오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바깥 세상의 대립 위에 다리를 놓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신비체의 일치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정신에 따라 조직하려고 힘써야 한다. 세상에서 서로 멀리하던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아 쁘레시디움의 동료 단원으로서 결속시켜 놓았다면, 그런 레지오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으로부터 거룩한 힘이 온 누리에 퍼져 나가, 세상에 만연하는 악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게 될 것이다.

### 31. 레지오 단원은 조만간 아주 어려운 활동을 다루어야 한다

활동거리를 선택할 때 주저하는 마음이 앞서는 때가 있다. 특히 다루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사제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쁘레시디움에 그 일을 맡기기조차 꺼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극적인 태도가 일반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도직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착한 이들의 소심증, 더 정확히 표현해서 비겁한 태도에 있다.”고 지적인 교황 비오 10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해당되도록 해서 안 된다. 만일 그래도 주저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처음 한동안은 활동의 강도(強度)를 낮추며, 쁘레시디움으로 하여금 쉬운 활동부터 다루도록 해야 한다. 회합이 거듭되고 경험이 쌓이면, 단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극히 어려운 활동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 그런 단원들에게 처음에 주저해 왔던 활동거리를 배당하고, 다른 단원들 역시 능력에 따라 차차 어려운 활동을 처리하도록 배당한다. 비록 두세 명의 단원만 어려운 일거리를 맡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활동은 나머

지 단원들에게도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32. 위험한 활동을 대하는 태도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을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혹시 어떤 중요한 활동에는 위험 요소가 따를 수도 있다. 그런데 냉정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가) 레지오가 활동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활동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나)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활동은 모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별된 일꾼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게 하자. 이웃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치닫고 있는데도 레지오 단원들이 그저 무감각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무지한 자들의 고요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며, 겁쟁이들의 비겁한 평온 속에도 놓아두지 않으신다.”(드 가스파랭 De Gasparin)

### 33. 레지오는 교회가 벌이는 싸움의 최전방에 서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당신 아드님의 승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모님의 신앙을 함께 나눈다. 그 신앙은 아드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로써 세상의 모든 죄의 세력들을 정복하셨다는 믿음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모님과 맺고 있는 일치의 정도에 따라서, 악과 싸우는 교회의 전투에서 이 승리가 얻어 준 은총의 힘을 쓰시도록 허락하신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용기와 신뢰로써, 세상의 모든 악과 문제들에 맞서 싸우는 교회의 지표(指標)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가 벌이고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싸움은 단지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이끌어 들이려는 싸움이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적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적’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불멸의 영혼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셨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나 그리스도를 맹렬히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패배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데 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의 영혼도 끌고 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맞서 싸워 그를 구해야 한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사람과 맞서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마저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성령의 힘 안에 머물면서 싸움을 펴야 하며, 성령께서는 곧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시다. 따라서 교회의 병사들인 우리가 증오하는 마음에서 싸움을 벌인다면, 결국 우리는 성령에 맞서 싸우고 있는 셈이 된다.”(쉬드 F. J. Sheed : 신학 입문)

#### 34. 레지오 단원은 가톨릭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전파해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교회가 공인한 ‘성의’(聖衣, 스카플라), ‘메달’, ‘뱃지’를 활용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성물들을 보급하고 그 신심을 널리 전파하면 은총의 수로가 풀리게 되며, 이 수로를 통해서 - 이미 술한 예가 보여주듯이 - 하느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옷인 ‘갈색 성의(Brown Scapular)’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성의를 몸에 지니고 있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끌로 드 라 콜롬비에르 성인(St. Claude de la Colombière) 같은 분은 이 말을 달리 해석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죽는 순간 갈색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성의를 몸에 늘 지니고 있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플뤼 Père Raoul Plus)

또한 레지오 단원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가정에 십자가와 성상을 모시고, 벽에는 성구(聖句)와 성화를 걸고, 성수를 준비하고, 기도로써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축성된 묵주를 마련하라고 권면함으로써 가정의 신심을 북돋우어야 한다. 교회의 준성사를 경시하는 가정은 장차 성사 생활까지 포기하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외형적으로 신심을 북돋아 주는 성물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므로, 성상이나 성화를 모셔 놓지 않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신앙의 참되고 친숙한 모습을 익히기가 어렵게 된다.

### 35. 동정 마리아는 모든 이의 어머니이시므로, 모든 이에게 성모님을 알려야 한다

교황 레오 13세가 즐겨 말하던 주제는, 성모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시라는 것이었다. 즉, 성모님은 당신을 미워하거나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시므로, 하느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모님을 사랑하는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이다. 이 씨앗은 점점 자라게 될 것이므로, 다른 재능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바르게 키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영혼들에게 접근하여 성모님이 맡고 계시는 어머니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모 마리아가 전 인류의 어머니이심을 선포했고(『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53항 및 54항) 성모님은 사도직의 원천이시며 모범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는 노력에서 성모님께 의지해야 한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65항)고 선언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어디에서나 특히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성모님의 모성적 임무에 관해서 신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성모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모님에 대한 지식의 보화를 나누어 주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더구나 교황은, 성모님이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만드시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전 인류를 사랑으로 불타는 성모 성심에 맡겨드렸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성모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화합의 임무를 계시의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성모님께 ‘일치의 어머니’라는 뜻깊은 칭호를 바쳤다.

따라서 성모님이 개종을 가로막는 장벽이므로 그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뼈아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성모님은 은총과 일치의 어머니이시므로 성모님 없이 영혼들은 바르게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입교 권면 활동을 할 때에 이 원리를 한결같이 적용해야 한다. 곧, 모든 사람들에게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이 신심을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의 신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레지오의 전유물이 아니라, 원래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동정 마리아를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항상 제시해온 것은 마리아께서 살아가신 생활 형태나,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께서 신자들의 모범이신 것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책임있게 받아들이셨다는 데에 있습니다(루카 1,38

참조).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셨으며, 그 힘은 사랑과 봉사의 정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은 마리아께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마리아 공경』 35항)

## 제40장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 1. 주님의 마지막 유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비록 이미 육신이 쇠잔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말한 것이라 해도, 누구나 엄숙히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은가? 주님은 유언이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이 내려질 때보다도 더 엄숙한 순간에 선언하셨다.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 주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지상에서의 모든 가르침을 완성시키시려는 듯, 성삼위의 위엄을 갖추시고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남기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기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꺼지지 않는 열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신앙의 요건이 때때로 저버림을 받고 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나 밖에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리신 이 마지막 명령을 저버린다면, 결국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은총의 흐름이 막히어 믿음은 식어지고, 급기야는 그 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미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앞에 그리시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창에 찔리시고, 온갖 수모와 설움을 당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여러 번 기절하시고, 마침내 골고타 언덕 위에서 목숨까지 바치셨다.” 이처럼 위대한 주님의 수난을 헛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성혈을 아낌없이 흘리셨으므로, 우리는 이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 나서는 일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까이 또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극히 사악한 사람들, 먼 곳에 외따로 있는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 고통 받는 이들, 악마 같은 자들, 외로운 등대지기, 나병 환자들,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들, 술과 악습에 젖은 사람들,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나 떠돌이들, 전쟁터의 군인들, 찾아가기 꺼려지는 곳, 달동네, 얼어붙은 황무지, 불별 같은 사막, 울창한 밀림, 음침한 늪지대, 지도에도 없는 작은 섬,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족 마을,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그리고 무지개가 걸린 땅 끝까지라도 찾아 나서야 한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시도록,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레지오는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명령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레지오는 어디에서나 어떠한 형태로든 영혼들과 접촉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일단 시작만 한다면, 주님의 명령은 이미 완성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접촉하기를 요구하셨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겠지만, 접촉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만일 모든 사람을 아우르면서 차별 없이 접촉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고 불필요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는 일은 적어도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마도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를 새롭게 타오르게 만드시는 일일 것이다.

열성적인 일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자신의 힘닿는 데까지 수고하고 나면, 그것으로써 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다 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혼자서 쏟는 노력은 안타깝게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더구나 주님께서도 그런 외로운 노력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 뿐더러, 미처 끝맺지 못한 채 남겨진 일을 기꺼이 돌보아 주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하는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혼자서 하기 힘든 다른 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일할 일꾼들이 넉넉히 확보될 때까지 신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충분한 힘을 갖춘 후에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공동 사업의 원리, 즉 개인의 노력을 공동체의 노력에 연결시키는 행위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이 의무는 고위 성직자나 본당 사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레지오 단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이를 통하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각기 한줄기의 사도직 물결을 이루며, 이 물결들이 합쳐져서 마침내 온 누리에 넘쳐흐르는 대홍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행동의 힘도 함께 커진다.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은총은 지상의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에 무슨 조건이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은총의 샘은 항상 넘쳐흐르고 있으며, 아무런 제한도 없고, 그 생명수를 통제하는 일정한 수로도 없다.



우리는 단지 이 생명의 물을 진실로 목말라 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물을 받아 마시자.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이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도록 힘쓰자.”(카르타고의 성 치프리아노 St. Cyprian of Carthage)

## 2. 레지오는 영혼 하나하나를 겨냥해야 한다

“이른 아침 평일 미사의 제대 앞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 든다 하여 그와는 정반대되는 무서운 세속 현실이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온통 잘못된 가정과 그 가족들, 주민 전체가 타락하여 미움의 대상이 된 동네, 악의 세력과 그 패거리들이 군림하는 곳들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죄악 못지않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죄들도 세상을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우리는 앞서 말한 그런 곳에서 잘 익은 - 사해(死海)와도 같은 - 죄악의 열매를 보지만, 사실상 그러한 죄악은 온 세상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영혼을 돌보지 않는 나태와 일상의 죄악들이 고개를 드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더럽고 추악한 큰 죄들이 그 싹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므로 일꾼이 있는 곳에는 언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게 마련이다. 가령 할 일이 정말 마땅치 않다면, 병원을 찾아가 불쌍한 노인들을 위로해 주거나 어린아이들에게 성호 긋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누가 세상을 만들었지?’ 하고 묻고, 그 아이들이 혀 짧은 소리로 대답하게 만들어 보라. 여러분은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런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죄악의 전체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넷째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무서운 죄악과 무질서도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죄악이 판치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는 사도직 일꾼들에게는 희망의 복음이다. 이런 경우에 그 치료법은 단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신심 조직을 강력하고도 꾸준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얼핏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질 만큼 타락한 생활이 굳어버린 곳에서도, 어떤 순간이 되면 선(善)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신앙인은 존재한다.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달래고 격려하고 착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옛날의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면, 가장 불행한 죄악의 희생자들도 사제에게 인도하여 성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일단 성사를 받게 되면 어떠한 종류이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놀라운 힘이 자주 이 성사를 통해 드러나, ‘현대의 작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가 새로이 태어나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유가 그다지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젖어 있던 악습이나 과거의 인연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에 겨워, 넘어

지고 일어서는 일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른바 모범적인 시민이 되게 만들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린 초자연적인 은총은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새로운 삶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로써 위대한 목표는 달성되기에 이른다.

사실 용감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레지오 단원은, 아무리 암담하고 사악한 곳에서 활동을 한다 해도,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성사와 일반 대중 신심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최악은 우리 눈앞에서 녹아 없어지기 마련이다. 어디에서나 선행을 행하여라. 그대의 선행은 모든 이를 향상시킬 것이다. 어느 지점이든 적군의 전열을 일단 깨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필요에 따라 그에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라. 가령 어떤 건물에 여섯 가정이 사는데, 미사와 성사를 멀리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받아들이지 않는 냉담 상태에 있다고 하자. 이럴 때에는 우선 어느 가정 하나를 설득하여 약간의 협력이 필요한 아주 작은 일을 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가정에 예수 성심상을 모시도록 할 수 있다면, 그날 이미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 가정은 스스로 점차 나아지게 될 것이고 더불어 다른 가정들도 향상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나쁜 본보기로 서로를 타락의 길로 이끌던 사람들이 드디어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서로를 격려하기에 이르는 것이다.”(미카엘 크리든 신부 Fr. Michael Creedon)

“이 도둑이 결국은 낙원을 훔쳤구나! 이 사람보다 앞선 사람들도 일찍이 아무도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아브라함도, 이사악도, 야곱도,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도둑은 그들을 모두 제치고 앞서고 말았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예언자나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구나! 이 도둑은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영광 중에 계시는 것처럼 흠숭을 드렸다. 이 도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마치 왕좌에 앉아 계시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다. 이 도둑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임금님께 애원하듯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했다. 오, 찬탄해 마지않을 도둑이여! 그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고서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선포하였구나.”(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St. John Chrysostom)

### 3. 정교회(동방 교회) 전통을 지닌 자매 교회들과의 특별한 유대 관계

교황 바오로 6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교회 본연의 사명’(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14항)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도록 힘써야 할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겠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분명코 이러한 분열은 그리스도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며, 세상에는 걸림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 할 지극히 거룩한 대의를 손상시키고 있다.”(『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1항)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방의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일치를 회복하려는 가톨릭 교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교서 『동방의 빛(Orientale Lumen)』의 다음 구절은 매우 중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존경스럽고 유구한 동방교회의 전통을 그리스도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방교회의 전통과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가톨릭 신자들은 그 전통에서 자양분을 얻고 각자 최선을 다하여 일치의 과정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 가톨릭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우리 정교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바로 이 전통의 생생한 전달자임을 깊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라틴 전통의 가톨릭교회 신자들도 이 보화를 온전히 익혀야 하며, 그럼으로써 교황과 함께 교회와 세상에 교회의 보편성 회복을 온전히 드러내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하나의 전통만으로는, 더구나 다른 공동체와 대립상태에 있는 한 공동체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보편교회의 갈라놓을 수 없는 유산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산은 서방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방교회 생활에서도 보존되고 성장해 왔습니다.”(『동방의 빛』 1항)

더 나아가 교황은 정교회(正敎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신다.

“매우 긴밀한 유대가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치에 대한 진실한 열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동방의 빛』 3항)

정교회는 이와 같이 진정한 우리의 자매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치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을

지침으로 삼아, 화해와 일치를 위한 온갖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래에 이어지는 장(章)에서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종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정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입교자를 찾아 나서자

교황 비오 11세는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확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주는 데에 있다.”라고 엄숙하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을 교회에 이끌어 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종종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문제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막상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가서 교회 안의 신자들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로 데려오지 못했다 해도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알려주어야 한다. 신앙이라는 선물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이 선물을 함께 나누려는 지고한 열망이 소심한 마음이나 체면 또는 그 밖의 이런 저런 어려움들을 송두리째 집어 삼켜버려야 한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St. Francis Xavier)이 말했듯이,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미친 듯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물론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많은 것이 이 신중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신중함이 진정으로 필요한 영역에서만 그러하다. 신중함은 해야 할 행동을 반드시 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지, 해야 할 행동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에서 신중함이 말아야 할 역할은 ‘브레이크’ 곧 제동 장치이다. 반면에 신중함이 ‘엔진’ 즉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거의 모든 실수가 행해진다. 신중함을 ‘엔진’으로 생각할 때, 결국에는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진실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 위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황 레오 13세가 ‘범죄적 과도함’이라 이름붙인 ‘무분별함’에 잘못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을 발판으로 삼아 앞서 말한 ‘신중함’ 즉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신중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영혼들이 시간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노력을 미룬다면, 그 사이에 영혼들은 (우리가 활동 대상으로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다른 영혼들과

합류하여 흘러갈 것이고, 영원한 심연은 이미 그들을 자기 팔에 안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 자신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고 만다.”(수에넨스 추기경 Cardinal L. J. Suenens)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바다에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그곳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갈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참다운 믿음과 안식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사도 8,30-31 참조) 가톨릭 신자인 우리가 안전만을 추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터무니없는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의 냉랭한 겉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그 마음속에는 따뜻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는가? 열성을 보인 일이 거의 없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신들과 별로 또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들을 나무랄 수 있겠는가?

가톨릭 교회의 교리나 주장을 대중 홍보 매체나 공공 집회를 통하여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방법도 개인 접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홍보 매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선교 방식이 효과가 있다면, 과학 기술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대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 와 있는 사람들조차 그대로 붙잡아두기 어려운 형편이다.

아니다! 선교 방법이 참으로 효과적일 수 있으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친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방송이나 출판 매체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착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일깨워 주거나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일의 핵심 활동은 개인적인 접촉과 호소여야 한다. 프레데릭 오자남(Frederich Ozanam)이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영혼 하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혼이 그를 잡아당겨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랑의 법칙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가톨릭 신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무지가 너무도 확고히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너무도 많고 거의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전통이 되어 버렸으며 교육을 통해 더 굳어져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가톨릭 신자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방책을 가지고 있을까? 두

려워할 필요가 없다. 교회의 가르침에서 간단히 설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가르침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는 일종의 보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검의 성능에 관해 뉴만 추기경(Cardinal Newman)은 다음과 같이 고매한 말로 아주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진리는 힘이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나는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진리에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탄은 진리가 승리하는 때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진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명심해야 할 원리가 또 하나 있다. “진리는 오류와 싸울 때 결코 화를 내지 않으나, 오류는 진리와 싸울 때 절대로 조용한 법이 없다.”(드메스트로 De Maistre)는 원리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바르게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되풀이해서 강조된 바와 같이, 입교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에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논쟁을 벌이는 태도나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과 사랑, 그리고 진실함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순수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이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행동한다면 심한 반발이 나올 리가 없고, 언제나 깊은 인상을 심어주므로, 마침내 우리의 선교 대상자가 입교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게 된다.

버밍엄의 대주교였던 윌리엄스 박사(Dr. Willi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염시키는 것이다. 믿음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는 불길이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 전파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믿음은 오로지 우리에게 친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만 전해 받는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는 믿음을 전해 받을 수가 없다.”

이처럼 개인 접촉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볼 때, 일꾼 개개인이 많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레지오 단원들의 수가 불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활동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가) 공부가 필요하다. 논쟁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진지한 질문에 성실하고 바르게 답변함으로써 상대방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나) 입교 후 세례 받은 교우들이 기존 신자들의 우정 어린 지원을 받도록 보살펴야 하며, 레지오 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레지오에 입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입교하기 전에 교류하던 형제들의 어려움을 그들만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단원들은 없을 것이다.

(다) 교리반에 등록했으나 교리를 중단한 사람들의 명단을 교리 교사로부터 확보하여 연락을 취한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비신자들이 교리를 중단하는 이유는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서라기보다는 출석을 중단해야 할 우발적인 사정 때문인 경우가 보통이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두 번 결석하다 보면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시 출석할 기회를 잃어버려 탈락하게 된다.

(라) 레지오 단원이 신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대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다. 흔히 당혹감이나 슬픔이나 그 밖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신자들을 만났을 때, 레지오 단원은 기도를 바쳐보라고 조언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영성 서적을 읽어보도록 권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앞서 말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방법들을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종교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되며, 단지 세상적인 생각만 말할 뿐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은 위로도 주지 못하고, 신앙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성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이처럼 완벽한 접촉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평상시 신앙을 주제로 한 대화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흔들리는 바로 그 때, 사람들은 영적인 조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이는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발전될 수 있다.

(마)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루 피정이 많은 곳에서 정착되어 있다. 피정의 기본 틀은 미사 봉헌, 세 차례의 강의, 질의 응답, 점심 식사 및 다과, 성체 강복 등으로 짜여 있으며, 때때로 해설이 곁들인 영화를 보여 주기도 한다. 수도원에서 피정을 실시하면 이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오해와 편견을 씻을 수 있게 된다.

피정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진행 순서가 적힌 초대장을 인쇄하여 그 지역 레지오 단원이나 다른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신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보내면서 피정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 초대장을 올바르게 활용하기만 한다면 심리적으로도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초대장을 마치 광고 전단을 돌리는 식으로 마구 뿌려서는 안 된다.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둔 후 응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초대장은 피정에 참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에게만 발송한다.

레지오 단원이 초대장을 인수했다면, 그는 피정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낼 임무를 수락한 것이다. 피정 참석자를 찾기 전까지 그 초대장은 단원의 수중에 남아 있으면서 맡은 임무를 아직 완수하지 못했음을 일깨워 줄 것이다.

민지 않는 이들을 피정에 참가시킬 때는 대개 그를 피정으로 이끈 가톨릭 신자 친구가 데리고 오는 것이 관례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낯선 피정의 집에 와서 서먹서먹하게 느끼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피정하는 동안 사제를 만나 보도록 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정 중에 반드시 침묵을 지킬 필요는 없다. 피정 대상자는 남녀 제한이 없다. 이러한 특수한 피정은 그 자체의 목표에 충실해야 하므로, 이미 영세한 교우나 냉담 신자는 참석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피정 참가자는 많아질 것이며, 피정 참가자 수가 많을수록 영세자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세자의 비율이 증가된다는 사실이 경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따라서 초기 접촉 대상자의 수를 배로 늘릴 수만 있다면(이 일은 확실히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힘을 쏟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영세자 수도 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복음서에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지우고, 그리스도교에서 마리아에 대한 증언을 삭제해 보아라. 단순히 사슬의 고리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사슬 전체가 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건물에서 균열 하나가 생기거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기반 자체가 사라져버렸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강생의 기적을 믿는 신앙, 세세 대대로 전해 내려온 신앙, 온 세상에 두루 퍼진 신앙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대답한 한 마디, 즉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인물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와이스만 추기경 Cardinal Wiseman : 신약성경의 주제)

## 5. 개종시키려면 성찬례를 설명하라

교회 밖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논쟁을 벌일 때가 있다. 그런데 입증이 되더라도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논쟁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자주 허비한다. 토론을 할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단지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보화를 엿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찬례에 대한 교리를 제시해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예수님에 대해 어렵듯이 알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찬탄하는 데에 폭 빠져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례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행사하시어,



자연 현상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며 예수님의 명령에 병마가 달아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언한 자료에 힘입어 인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일을 당신에게 고유한 권능에 직접 힘입어 행사하셨다. 그분은 인간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으신 영원한 하느님이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성찬례라는 감미로운 기적을 어떻게 단 한 번에 성취하셨는지 전해준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 이는 힘 있는 성경 말씀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말씀으로 남았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요한 6,60)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은 거부감을 드러냈고 이 거부감은 수세기를 거쳐 울려 퍼지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는 이유가 되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요한 6,52)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보인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서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참된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불신을 용서받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순진한 군중을 향해 장엄하게 설교하고 계신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신의 몸이 아닌 것’을 ‘이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기만적인 행위인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성체 성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파스칼이 전개한 다음과 같은 준엄한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성찬례를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내가 얼마나 경멸하는지 아는가? 복음이 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실 진데, 이를 인정하는 일이 그리도 힘들다는 말인가?”

성찬례 같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도전을 받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밖에 없다. 교회에 이처럼 더없이 영광스러운 것이 있음을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면 그들은 그 가능성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 많은 이들이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나는 얼마나 끔찍한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충동이 처음으로 강렬히 일어나는 때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이들 가운데 진지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모습을 과거의 희미한 역사에서 끄집어내고자 묵상과 진실한 기도 안에서 노력한다. 그러다가 상상으로라도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될 때에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 진실로 이 영혼들이 성찬례라는 경이로운 사건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찬례

가 인성과 신성을 간직하고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현재 삶의 영역으로 모셔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또한 성찬례를 통해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베타니아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훨씬 더 친밀하게 예수님에게 열중하면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뿐 만이랴! 성모님과 일치하여 지성한 영성체를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한 몸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온전히 보살펴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해주셨던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감사드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회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善)인 성찬례를 설명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들 안에 빛을 갈망하는 마음만 일으킬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이해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라는 ‘듣기 거북한’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주시고 밝혀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불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빵이 쪼개질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다(루카 24,13-35).

성찬례를 이와 같이 인정할 때, 냉랭한 이해심을 야기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했던 오해와 편견은 강렬한 태양 아래의 눈송이처럼 녹아 없어져, 여태까지 앞을 보지 못한 채 걷고 있던 이들이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외칠 것이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요한 9,25)

“성체 성사의 여인인 마리아는 성찬례와 성찬례에 포함된 은총을 충만하고 독점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보편적 은총의 분배자 자격으로 받으셨다. 성체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신 구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가장 뛰어난 열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리아는, 이 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 뵈고 사랑하도록 만들고, 성체 성사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려 교회의 수를 배로 늘리고 믿지 않은 민족들 사이에 교회를 세우며, 이단자들과 불경한 자들에 맞서 성체 성사에 대한 믿음을 보호하는 일을 도맡아 하신다. 또한 마리아는 영혼들이 영성체를 하도록 준비시키고, 자주 복된 성사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조배하게 만드는 일도 하신다. 마리아는 성체 성사가 지니고 있는 은총과 성체 성사로 인도하는 은총 그리고 성체 성사에서 흘러나오는 은총 그 모두를 가지고 계시는 보고(寶庫)이다.”(테스니에 Tesnière : 성체의 성모 성월)

## 6. 믿음이 식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전 세계 인구 중심지 중 많은 곳에서는 명목상 가톨릭으로 일컬어지는 지구 전체가 미사 참례나 성사 생활이나 심지어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어느 가톨릭 지구에서는 총 인구 2만 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톨릭 신자는 75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었다. 다른 두 지구에서는 인구 3만 명 가운데 4백 명이, 인구 90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미사에 참례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구에서는 너무나 자주 냉담 생활을 그대로 하도록 방치되어 굶아 문드러져가고 있으며, 가톨릭 지구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 어떠한 노력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쉬는 교우들을 직접 접촉한다 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어쩌면 위험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교사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위험과 죽음까지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조차 이 논조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지구들과 관련하여 가장 안타까운 일은, 쉬는 교우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일이 성직자들에게는 막혀 있다는 사실이다. 광적이라 할 수 있는 냉담 생활이 지닌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피해자’들이 하느님 안에서 자신들의 아버지인 신부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 지구에서 신부를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레지오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레지오는 사제를 대표하여 사제의 계획을 이행한다. 그런데 레지오 단원들은 신자들 무리에 속한 자들이기에, 쉬는 교우들이 단원들과 거리를 두고 살 수는 없으며, 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기에, 단원들이 하는 일을 망칠 수도 없다. 더욱이 쉬는 교우들은 거짓말로 연막을 쳐 단원들의 접근을 막을 수도 없다. 거짓 뒤로 숨는 일은 자신들과는 구분된 생활 신분을 살고 있는 성직자들에게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마르 8,37) 자기 이웃의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죽음까지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저 먼 곳의 선교 지역을 복음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식어버린 저 드넓은 지역도 단호한 마음으로 복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망이 없다.’고 외치거나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조언은 그 조언을 들었을 때 레지오 활동이 성공할 수도 있고 레지오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레지오의 활동이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 산처럼 거대한 악을 송두리째 들어 바다로 던지려면 믿음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단원들이 지녀야 할 믿음은 이냐시오 데 로올라 성인(St. Ignatius of Loyola)이 말한

것과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 성인은 노도 없고 돛도 없는 쪽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단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교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놀랄 만큼의 성과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영혼들이 그 첫 번째 직접적인 접촉을 기다리고 있다.

**접근 방법.**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무시되고 있는 곳에서는, 레지오 단원들은 제일 먼저 신자로서 지극히 필요한 핵심 의무인 미사 참례를 강조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사의 아름다움과 힘을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인쇄물을 준비하자. 소책자의 주제를 설명해주는 컬러 그림이 곁들여진다면 그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단원들은 이 인쇄물로 무장하고 집집마다 방문한다. 소책자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한 장씩 건네주고, 가능하다면 미사 신심을 친절히 설명해 준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참을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간단한 질문도 해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고 힐책해서도 안 된다.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즉각적인 성공도 많을 것이므로 그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다. 일단 첫 방문이 이루어지면, 이어서 레지오의 통상적인 방문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첫 방문의 근본 목표가 방문 대상자와 참된 우정의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얻은 셈이다.

한 사람의 쉬는 교우가 신앙생활을 재개하도록 만드는 일은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고지 하나를 점령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면 그 다음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령된 고지가 많아질수록, 그 고장의 여론이 달라질 것이다.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레지오 단원들을 눈여겨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비평도 하고, 곰곰이 생각도 할 것이다. 그리고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해마다 점령한 고지는 상당할 것이며, 그렇게 해가 거듭될 것이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주민들이 신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가다 마치 개미가 갇혀먹은 직물이 외견상 온전하게 보이지만 한 번만 손을 대도 순식간에 부서지듯이, 어떤 사건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이 이미 하느님께로 돌아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노력의 성과.** 인구 5만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냉담 생활에 덧붙여 다양한 종류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행해짐으로써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많은 구역에서는 사제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레시디움 하나가 믿음의 정신으로 설립되어, 겉보기에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임무인 가정 방문 활동에 착수하였다. 모두가 놀랄 만큼 즉각적인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고, 레지오 단원 수가 늘어나고 활동의 경험이 쌓임에 따라 그 성과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며 3년이 흘렀을 때, 교회 관할권자는 용기를 얻어 그 도시의 모든 남성들에게 주일 영성체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0명 정도는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표명하였다. 실제로 영성체에 참여한 수는 무려 1,100명에 이르렀다. 3년간의 사도직 활동이 이 도시의 온 주민을 발각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결말은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다. 분명히 이 마을의 다음 세대들은 새롭게 변모된 환경과 질서 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한때 미사를 거부하고 사제를 모욕했던 이 고장에 이제는 거룩함이 지배할 것이다. 이 마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해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마르 11,22-24)

## 7. 선교사의 도구로서의 레지오

**선교 현황.** 여기서 말하는 선교 활동이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민족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교회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리스도교가 현지 문화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민족이나 집단에는 문화나 교육 또는 사회적 조건 등에서 주민 계층 간에 차이가 폭넓게 존재한다. 한 나라 안에서조차도 인구가 밀집된 도시 공동체와 주민이 흩어져 살고 있는 농촌 공동체로 나뉘어 있다. 빈부의 격차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도 존재하고, 다양한 종족과 언어 집단들도 발견된다.

세상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보다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방대한 세상의 곳곳에 선교사들이 진출한다. 그들은 사제나 수도자, 평신도들

일 수 있다. 선교사들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기에 민족이나 언어 또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훈련이나 경험이 선교 활동을 용이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앞서 말한 차이를 제거해줄 수는 없다.

새롭게 개척된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수행하는 임무는 그곳에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 공동체는 점차 자립 교회로 성장하여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선교사는 선교 활동 초기에 현지 주민과 빠른 시간 내에 폭넓게 접촉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학교나 진료소 등 그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곳에서는 세우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 정신을 드러내고 현지 주민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한다. 영세자들 가운데에서는 교리 교사와 교회 인력을 선발한다.

선교사나 현지 교리 교사는 교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러나 바로 말하자면, 교리를 배우고 싶은 그 열망을 일으키는 것이 개종자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열망은 하느님 다음으로는 가톨릭 평신도와와의 접촉을 통해 생겨나며 오로지 그 이후에야 사제와의 만남을 통해 확고해 진다. 우정과 신뢰 관계가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리를 배우고자 문의하러 온 사람들은 흔히 “제가 아는 가톨릭 신자가 알려줘서 오게 되었어요.”라고 사제에게 말한다.

레지오는 격무에 시달리는 선교사에게 자신을 도구로 써달라고 봉헌한다. 레지오는 사람들을 입교시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돌보는 일에 경험이 많은 검증된 도구이다. 레지오는 현지 주민을 단원으로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선교사를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새 영세자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며 그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화 사업을 수행하도록 자극을 줄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선교사와는 달리 외부에서 와서 그 지역에 침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단원들이 올바르게 양성된다면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레지오 확장.** 레지오 단원들이 많아지고 질적으로 성장하면, 그들을 합당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뵈레시디움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적 지도자들은 각자 두 개 이상의 뵈레시디움을 관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뵈레시디움들을 훈련시키고 영감을 불어넣기 위하여 교리 교사나 그 밖의 경험이 풍부한 신자들을 단장 자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설립된 뵈레시디움들은 각각, 신앙으로 무장된 열명 내지 스무 명의 병력을 의미한다.

뵈레시디움의 수를 늘리는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 지역 사제들이 그동안 수많은 사도직 일꾼들의 다양한 노력을 조직화하여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에 대한 결과로서, 사제는 최고 직무라는 것만 아니지 교구장 주교가 맡고 있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교구장 주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는 신앙을 위해 일하는 강력한 여러 계층의 일꾼들을 수없이 많이 소유하게 되어, 그들을 통해 교구 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에서 레지오가 제안하는 계획은 전에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조건 아래 있는 여러 선교 현장에서 다년간 복음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공을 거둔 경험에서 나온 결과이다.

**각 단원에게 명확한 임무를 배당하자.** 레지오가 제안하는 선교 계획에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명확하게 규정된 활동 영역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프레스비디움은 단원들에게 활동을 배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활동 분야를 조사한 후 이를 개별 임무 조항으로 간단하게 정리한다. 이로써 각 단원은 주어진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책임을 엄격히 진다. 레지오는 단원들 각자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사제의 결정에 기꺼이 따라야 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원들은 사제를 통해 교회의 사명과의 친교 안에 머무른다. 레지오 조직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단원 각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고 그 책임을 훌륭히 지고 갈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

선교 지역에서 레지오 단원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활동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선교사의 주기적 공소 방문을 준비한다.

(나) 예비신자 교리반을 지도하며, 새로운 예비신자를 찾아 나서고, 교리반에 빠짐없이 출석하도록 돌본다.

(다) 신자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쉬는 교우들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도록 돌본다.

(라) 공소 예절을 주관한다.

(마) 비정규 성체 분배자 교육을 받은 경우, 이 임무를 수행한다.

(바) 임종을 앞둔 신자들의 영적 필요를 보살피고 교회 장례를 돌본다.

이 밖에도 해당 지역이 요구하는 영적이거나 육체적인 자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레지오 단원들의 신앙 지식은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가?** 단원이 갖추어야 할 지식의 수준은 그가 수행해야 할 활동에 달려 있다. 분명한 사실은 개종을 시키고 새 영세자를 보살피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교리 지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초대 교회 당시 교회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이를 널리 증명해 준다. 당시 대부분의

복음 전파는 권세 있고 부유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던 억압받고 미약하고 가장 작은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정식으로 교육 받는 일은 늘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식 교육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보화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쏟아 붓는 노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결실을 맺겠지만,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사회적 장벽은 쉽게 넘나들 수 있다. 확신에 찬 신자라면 누구든, 설령 완벽한 교리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 어느 정도 심상(心想)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감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그 느낌을 전달해 줄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신자들도 조직의 힘이나 그 밖의 강력한 자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레지오 조직은 그와 같은 추진력을 동기 부여와 사도직 활동 배당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제공한다. 신자들이 레지오 안에서 양성을 받게 된다면, 그때에는 스스로 주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레지오는 활동하시는 성모님을 드러낸다.** 레지오를 도입하면 선교 사업을 하는 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힘을 얻게 된다.

(가) 체계적인 조직이 발생시키는 힘. 조직은 항상 조직원들의 관심과 힘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이다.

(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영향력. 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성모님을 따르는 레지오 조직은 성모님의 영향력을 충만히 끌어들이어 이를 집약적 사도직 활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아낌없이 영혼들에게 나누어준다.

사실 성모님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빛을 전파할 수 없다. 성모님이 주재하지 않는 노력은 기름만 있고 등잔은 없는 것과도 같다. 오늘날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가 드문 현상은 바로 이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같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민족 전체가 빠른 속도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 431년에 열린 에페소 공의회(the Council of Ephesus)에서 치릴로 성인(St. Cyril of Alexandria)은 자신들이 전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은 바로 성모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망설임 없이 선언하였다. 더 나아가 선교사들의 주보(主保)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St. Francis Xavier)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나라에서 구세주의 십자가 아래 성모상을 두는 것을 꺾었던 경우에는 언제나 복음에 맞선 저항이 일어났다는 경험담을 들려준다.

만일 선교 현장에서 레지오 사도직 활동을 통해 성모님께서 당신의 그 풍성한 결실을 맺는 활동을 하실 수만 있다면, 치릴로 성인이 언급했던 그 좋은 시절이 다시 한



번 이 지상에 도래하여, 모든 지역과 나라가 오류를 털어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제 막 저 어부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은 어리석은 신념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내려준 지고한 영감이었을까? 잠시 동안만 그들이 세웠던 대담한 계획을 생각해보자. 일찍이 어느 군주도 제국도 공화국도 것처럼 숭고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은 적은 없었다. 갈릴래아 출신의 이 어부들은 누가 도와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장차 얻게 될 승리를 기약하며 온 세상을 각자의 구역으로 분할하였다. 그들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기성 종교들을 개혁하려는 확고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거짓 종교이든 부분적으로 참된 종교이든, 유대교이든 이방인들의 종교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경배, 새로운 희생 제사, 새로운 율법을 세우기를 열망하였다. 그들은 그 이유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보쉬에 Boussuet)

## **8. 그리스도를 위한 외지 순방 활동(P. P. C.)**

영혼들을 하나하나 다 접촉하겠다는 야망은 우선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접촉하는 일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통상적인 생활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상징적인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외지 순방 활동(Peregrinatio Pro Christo)’으로 알려진 레지오 운동을 통하여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 활동의 명칭은 몽타랑베르(Montalembert)의 불후의 고전 작품인 『서방의 수도승들(The Monks of the West)』이라는 선교 서사시에서 유래한 것이다. 6세기에서 7세기까지 불굴의 정신을 지닌 큰 무리가 ‘자신들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창세 12,1 참조) 유럽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쇠퇴해진 그리스도교 신앙을 재건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한 외지 순방 활동’도 이와 똑같은 이상(理想)에서 레지오 단원들을 무리 지어 파견한다. 이 활동에는, 신앙 상태가 좋지 않은 먼 지역을 찾아가서 일정 기간 머무를 만한 시간과 재정적 여유를 가진 단원들이 참여하며, 그들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밝히는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고 까다로우며 그리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는 일이기에, 이 일이야말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교황 바오로 6세) ‘그리스도를 위한 외지 순방 활동’은 인근 지역에서는 수행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외국을 활동 대상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

한두 주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처럼 신앙 때문에 외지로 나아가 모험을 감행하는 행동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는 단원들의 고정 관념을 바꾸고 모든 이의 창의력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 9. 마리아 정신의 외방 선교 활동(I. M.)

실제로 많은 경우, 고결한 마음을 가진 단원들은 한두 주 정도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오랜 기간을 외국에서 봉사하는 데에 봉헌하기를 바란다. 가고자 하는 곳에서 생계 수단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가정이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6개월이나 일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머물 수 있는 단원은 콘칠리움이나 세나투스 또는 레지아로부터 적당한 기간 외방 선교 활동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물론 현지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이 활동에 자원 봉사하는 단원을 ‘인콜라 마리아(Incolae Mariae)’라 부른다. 이 말은 단원이 마리아를 통하여 희생을 바친다는 정신으로 먼 지역에서 임시로 머무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 10. 주일 선교 활동(E. D.)

‘주일 선교 활동(Exploratio Dominicalis)’은 ‘작은 순방 활동(mini Peregrinatio)’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주일을 이용하여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레지오는 전 세계의 모든 브레시디움이 가능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주일을 이용하여 브레시디움 전체 활동으로 다른 고장을 찾아가서 선교 활동에 헌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문제 있는 지역을 방문지로 정하고, 내왕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는 곳을 선택한다. 이 활동은 하루에 그치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 동안 수행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브레시디움 단원의 대다수(대개는 모든 단원)가 타 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이라는 일종의 모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에 설명한 ‘그리스도를 위한 외지 순방 활동’은, 아무리 그 뜻이 훌륭하다 해도, 대다수의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실현 가능한 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험상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은, ‘주일 선교 활동’은 본질적으로 브레시디움 차원의 활동이라 것이다. 이는 콘칠리움도 되풀이해서 역설하고 있다. 평의회나 브레시디움들은 이 활동을 기획할 때에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